

항공

AIR FORCE QUARTERLY

제 2 호 1987



항공본부

저푸른 하늘에

주노우

하늘이 맑아 보일수록 내 마음도 맑아 보일 거야

그리고 너도

웃을 거야

웃을 거야

... 웃을 거야

하늘이 맑아 보일수록 내 마음도 맑아 보일 거야

그리고 너도

웃을 거야

웃을 거야

웃을 거야

웃을 거야

웃을 거야

웃을 거야

웃을 거야

웃을 거야

하늘이 맑아 보일수록 내 마음도 맑아 보일 거야

그리고 너도

웃을 거야

웃을 거야

웃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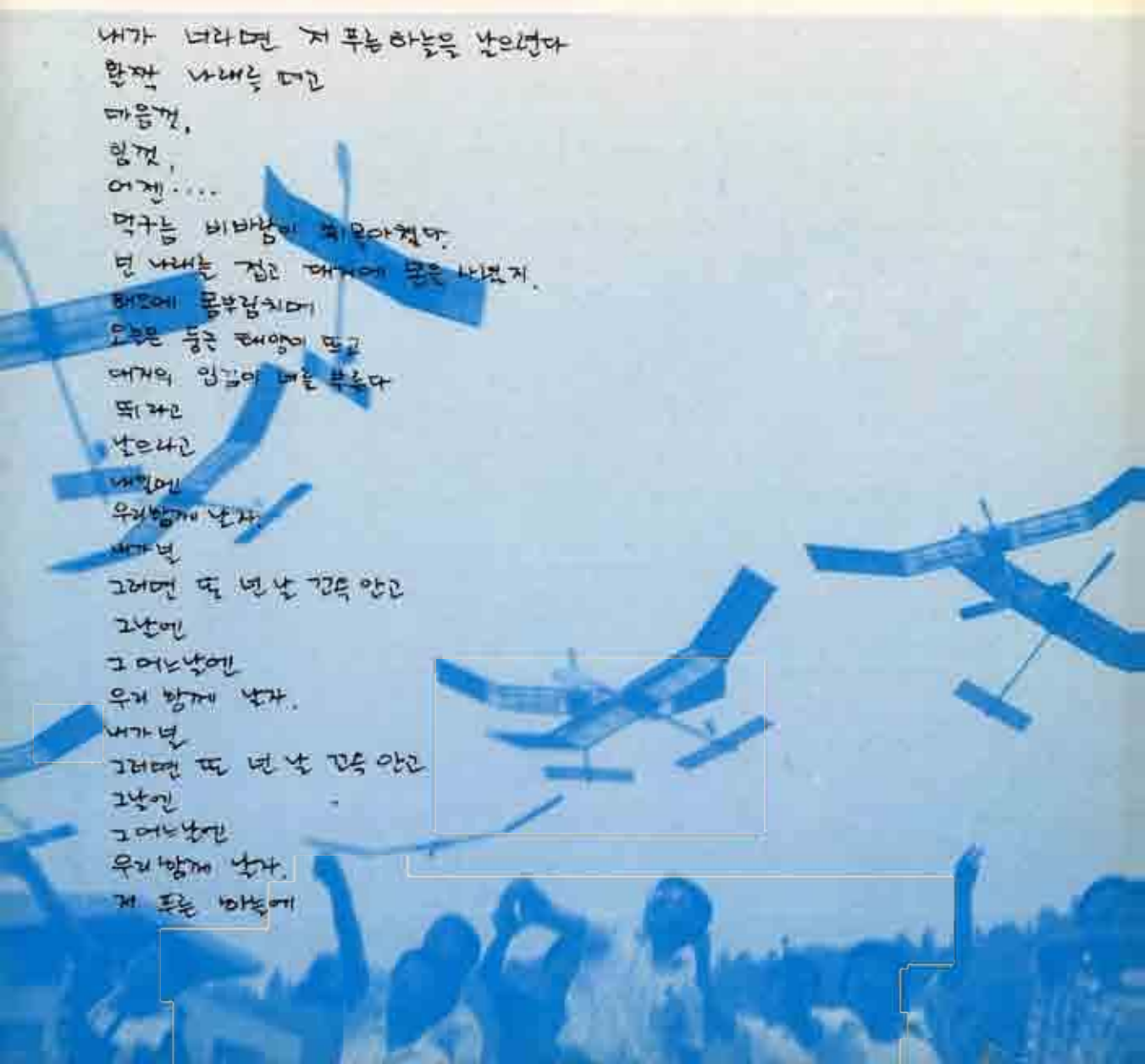
하늘이 맑아 보일수록 내 마음도 맑아 보일 거야

그리고 너도

웃을 거야

웃을 거야

웃을 거야





“速戰速決의 현대전, 공군력 역할 至大”

— 전투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 당부 —

속전속결의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역할이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앞으로 대적 우위의 전투기량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하늘의 방패로서의 소임을 완수함은 물론 21세기 항공우주를 선도하는 역군으로 성장해 주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 공군사관학교 제35기 졸업식 ★

전두환 대통령각하 유시 중에서

공권

AIR FORCE QUARTERLY



1987년 제 2 호 (통권 제 201 호)

권 두 언이 은 봉 (2)

논 단

소련과 동북아시아 안보관계장 상 용 (4)

북한의 폭력혁명 수출실태와 전망이 성 재 (23)

북방관계와 우리의 대응신 명 남 (38)

6·25의 이념적 조명노 희 상 (43)

함께 생각한다

바람직한 관리자의 자세엄 영 호 (49)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소고김 주 용 (55)

선진 경제로의 길김 호 식 (63)

FLIGHT LEADERSHIP.....김 명 익 (70)

방위병 정신전력 강화방안표 문 재 (73)

군 정신전력의 강화방향최 정 석 (93)

江 山 帆 影
 丁卯春
 宮 齋



군사지식

- 강력한 대전차 Helicopter황 정 화 (104)
 • AH-64A Apache대 MI-28 Havoc •
 핵억제 전략의 이율 배반성.....장 윤 화 (122)
 • 핵시대에 있어서 정치와 전쟁 •
 반도체와 IC에 관한 상식고 봉 홍 (134)
 공군교리 고찰(Ⅱ)서 성 도 (141)

역사를 찾는다

- 정묘·병자호란의 역사적 의의.....성 주 탁 (145)
 정다산의 생애와 사상안 진 오 (156)

시 처음 부르고 싶은 노래임 관 영 (165)

인체와 사격술정 승 진 (189)

운전기사의 얼굴유 명 준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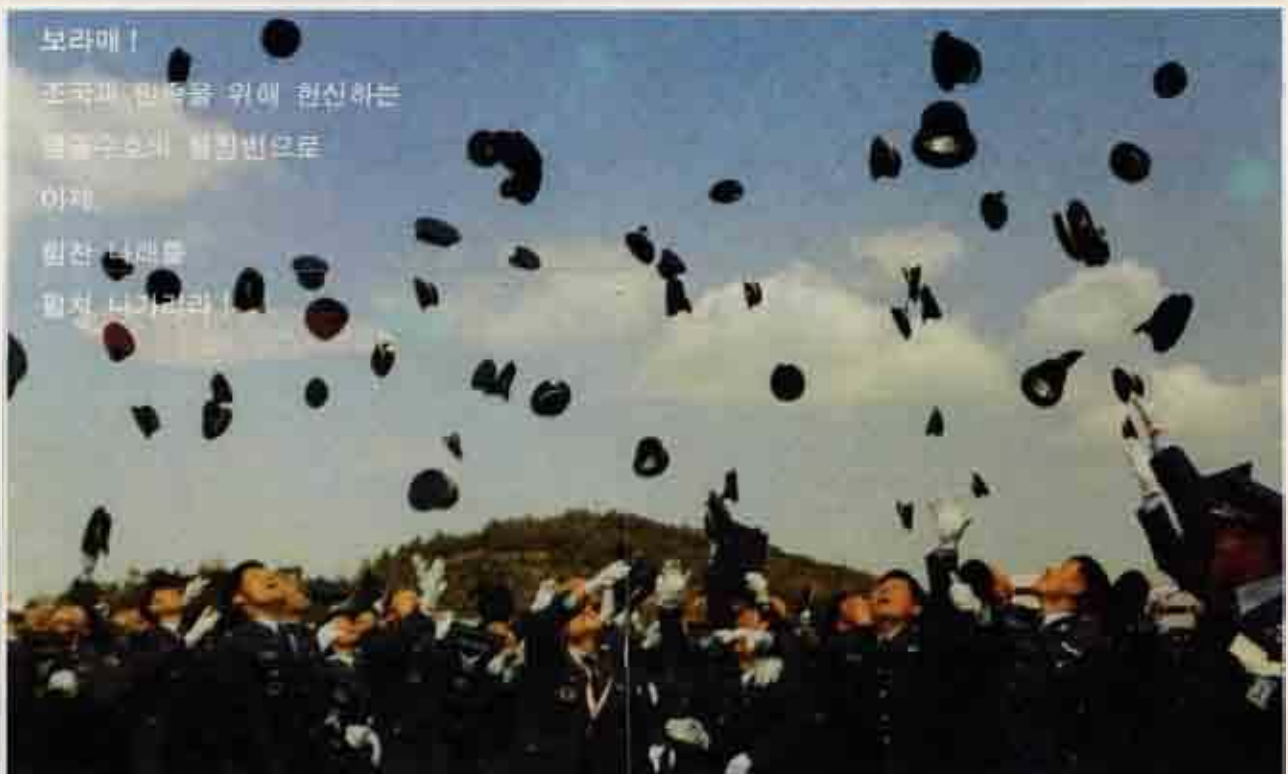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 제35기 졸업 및 임관식



졸업 우등수상자에 대한 공군참모총장 표창



호국비전의 결의를 다짐하는 신입장교의 임관선서



보라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영웅수호계 청함반으로

이제

힘찬 날개를

펼쳐 나가리라!

졸업과 임관을 자축하는 모습

- ▶ 김인기 참모총장은 미공군의 예방을 받고 한·미 공군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 최우수 안전부대 시상식
'87년도 비행안전 우수부대 및 유공 장병에 대해 표창하고 공적을 치하하는 김인기 참모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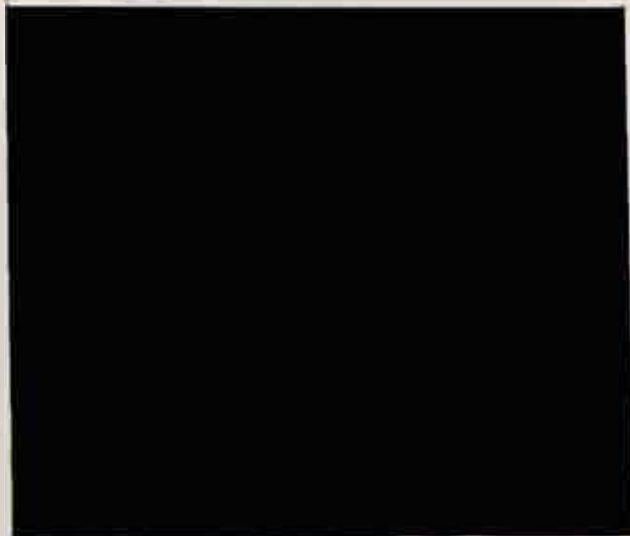
팀·스피리트 '87 한·미 연합훈련

'87 팀스피리트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공군은 중부전선 00지역에서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활주로 이·착륙훈련과 연합공수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완벽한 연합작전능력을 과시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를 앞두고 북괴의 단기 속결전 전략에 따른 기습 남침기도에 대한 경고와 함께 평화와 정의로 결속된 한·미연합 방위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는데 있다.



비상활주로를 이륙하는 F-16의 위용



재출동을 위한 신속한 급유 및 정비



T. S. '87

한·미합동연합 공수작전

한·미연합공군은 일단 유사시 신속한 기동력으로 병력, 장비, 물자 등을 정확히 공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푸른국토, 푸른병영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 공군은 각 부대별로 장병 및 군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푸른국토, 푸른병영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공군본부
식목행사 장면

봄맞이 환경 정리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범국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연보호 및 정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봄맞이 부대 주변환경가꾸기 작업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87년 제 2 호 (통권 201 호)

공군본부

“보이지 않는 전쟁”



정 훈 감
공군대령 이 은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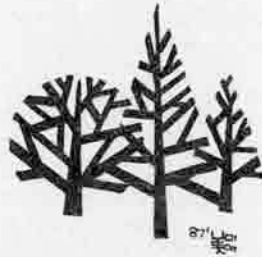
손자는 자신의 병서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으로, 모든 대결에서 상대의 실상과 능력을 파악하고 자신의 것과 비교하여 결코 상대에 뒤지지 않을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만 생존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남북한을 합쳐서 국토면적 22만km²에 6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우리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세계에 자랑할 찬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며, 공통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민족고유의 전통관습을 계승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제 2차대전의 종결과 동시에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주변 강국의 군사개입과 동서 간의 세력균형 정책에 따라 남북으로 국토가 분단된 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 4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민족적 염원인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공산집단은 전 주민을 마르크스 이론과 날조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전투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한편, 전국토를 병영화 시키고 오로지 무력남침을 위한 전쟁준비에만 광분하고 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민족문화의 말살을 통한 이질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꾸준한 대남공작을 통하여 우리의 사상적 가치관을 혼란시켜 무력남침의 결정적 기회를 포착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민족최대의 비극인 6. 25의 참혹한 전쟁을 통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속성과 만행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휴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겉과 속이 다른 북괴의 도발과 위장평화공세를 인내를 갖고 슬기롭게 대응해 왔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용공적 과격좌경사상은, 분명 북괴가 그동안 자행해온 대남 심리전 공격과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라는 한반도 적화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확신케 하고 있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은 물론 모든 간부들은 우리가 수호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최상의 체제라는 확고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과 신좌경 사상의 모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판능력을 함양하여 어떠한 경우도 좌경의식에 유혹되지 않도록 정신력을 강화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사상전에서 필승을 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글로서 결론은 국제정치상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보역량을 신장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이 한반도에 작용하는 세계 4대강국 간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소련과 동북아시아 안보관계

I. 서 론

장 상 용
(중령·공군본부)

이 글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대한 세계 4대강국 즉,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의 안보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소련의 군사전략, 4대강국 간의 이해관계, 4대강국이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글을 써 내려가고자 한다.

먼저, 주지해야 될 사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세계 4대강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서론에서 그 배경설명과 아울러 소련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증강현황을 파악해 보고, 본문에서는 소련의 외교정책 목표와 북한과의 관계, 중·소관계 그리고 미-중-일의 삼각체제를 알아봄으로써 세계 열강들의 외교·군사정책 변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배 경

1970년대 이래로 소련은 동북아시아지역에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 증가시켜 왔다. 1960년대말 소련은 이미 한반도 및 일본에 대하여 미국과 중공 연합세력과의 군사력 경쟁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시아 평화위협 의 신호로서 일본의 군사력 건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호전성은 1969년의 중-소 국경분쟁 이후, 세계 외교정책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 왔다. 1969년 우수리(Ussuri) 강 중-소국경 충돌은 중-소관계에 악화를 가져 왔으며, 이로 인해 소련의 군사활동은 증가되었고 북경에서는 문화혁명이 재 등장함으로써 소련 외교정책에 커다란 위협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소련은 미국과 중

공 간의 외교관계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1971년 키신저의 북경방문, 1972년의 닉슨 미대통령의 공식외교방문, 1979. 1. 1의 미-중 간의 공식외교관계 승인 등, 일련의 역사적 사실은 소련의 국익에 불길한 암시를 주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70년에 발표된 닉슨 독트린과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다는 구실로 1971년 한국으로부터 미제 7사단의 철수와 더불어 대만으로부터는 미국군을 점차적으로 철수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외교정책은 한국 및 대만과 같은 국가들에게 핵무기 확산이라는 위험성을 가중시켰다(참고문헌 1). 미국이 취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 및 소련의 정치외교적 개입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유지와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한국에서의 미국군 철수계획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으나, 대만안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장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일본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점차 증대되리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 지역 안보상 핵위협 증대의 가장 중요한 부산물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아직까지 중공은 이 지역 정세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멀지 않아 큰 세력이 될 것이다. 핵무기 확산에 대한 중공의

입장은, 과거 미-소만이 핵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그들만이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핵무기 생산능력의 확산경향에 따라 그들만이 향유했던 특권은 서서히 감소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참고문헌 2).

아시아국가의 군사력 증강은 지난 1945년 이래로 가장 두드러지며, 무역종들의 위협성은 증대되고 있고, 이 중에서 한반도는 무력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이다. 일본은 재래식 정밀 군사무기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련은 중공국경지역을 포함, 동북아시아지역에 재래식 및 핵무기 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공은 핵무기 생산능력 보유와 재래식무기의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참고문헌 3).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미루어볼 때, 동북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정책 및 군사력 증강문제는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소련의 군사전략

세계대전시, 소련 군사정책의 목적은 국토의 방위, 적대국의 공격격퇴, 중립화 및 중요 인근전략지역의 점령이었다(참고문헌 4). 소련의 군사독트린은 국가가 직면한 현대전과 군대임무의 특성 및 그 해결안이라고 설명되며, 이는 정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 의해 주요 군사노선으로 제기되어 당중앙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었다. 소련의 군사독트린은 방어보다는 공격개념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참고문헌 5). 소련은 군사독트

린의 수준에서부터 군사전략 및 전술과 관련된 특정문제를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행동을 일치시키야 한다는 보편적인 문제로 바꾸어 가고 있다.

소련 정부지도자들의 전쟁개념은 다음과 같다(참고문헌 6).

가.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나. 세계는 사회주의(Socialism)와 자본주의(Capitalism)의 투쟁과정에 있으며, 전쟁은 이러한 투쟁의 연속이다.

다. 전쟁준비는 소련 전략의 원칙이다.

소련은 그들의 군사력을 국제정치的手段으로 이용, 전 세계에 걸쳐 그들의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기회포착을 노리고 있다. 소련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 시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들의 정치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전략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참고문헌 7). 따라서, 소련은 최우선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질적·양적으로 증강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보다 소련군사력의 우위를 느끼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소련 지도자들이 이미, 강한 군사력의 존재는 타국에 간접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정치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데서 나온 발상이다. 모스크바의 또 하나의 전술은 제3세계국가들 중에서 “해방”(Liberation)운동을 벌이는 반정부군에게 군사물자를 해상 및 공중투하 방법으로 지

원하고 있으며, 때로는 인공위성까지 이용하고 있다(참고문헌 8). 특히, 수년간 미국이 그들의 국제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자진해서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하여, 소련은 원거리지역에까지 그들의 지상 및 공중, 지하수단을 통한 세계 전략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련 해군력의 양적 우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강력한 해군력은 국제정치적으로 소련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계속해서 그들 해군력의 양적 감소를 추구할 경우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및 해병작전능력의 질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 지역에 걸쳐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까지도 상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미·일·한국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평화상태에 위협이 되는 소련의 정치적·심리적 영향력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3. 소련의 군사력 증강

믿을만 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미-소 간의 핵전력 균형은 1980년대말을 넘어서면 소련측이 우세하리라 추측되고 있다(참고문헌 9). 이러한 소련의 핵능력신장은 미 본토의 이외지역에 대한 소련의 핵공격을 저지해야 하는 미국의 핵전략 능력에 의문점을 생기게 한다. 그러므로 장차 억제전력으로서의 미-소군사

력이 재래식 전쟁억제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다양한 전 세계지역에 있어 미-소 간의 핵전략 및 재래식 전력균형의 의미는 소련의 호전성을 견제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소련이 SS-20 중거리유도탄 및 Backfire 폭격기를 배치함으로써 미-소 간의 군사력 균형은 급격하게 붕괴하고 있다(참고문헌 10).

지난 수년 간 소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질적, 양적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 소련 지상군의 배치는 약 1/4에 해당하는 전력인 45개 사단, 37,000명이 중공과 소련의 국경선상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 중 32개 사단이 바이칼호 동부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소련 공군력의 1/4에 해당하는 전력 즉, Backfire 폭격기를 포함하여 2,100대의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대륙간탄도유도탄(ICBM) 및 989기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등 소련이 보유한 전략미사일의 약 30%(1,398기)가 소련 내륙지역 및 소련 태평양함대에 배치되어 있다. 더우기 소련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그들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SS-20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특히, 소련이 기존의 해안경비함대를 필요시 5대양 간에 걸쳐 운영할 수 있는 기동함대로 재편성했다는 것은 뚜렷한 정치적·군사적 발전이었다. 최근 몇년 간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한 소련 태평양함대의 활동영역

은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로 그 영역이 크게 확충되었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해군력 중 항공모함 전력의 약세를 인지하고 그 보완책으로 최선에 항공모함을 개발하였으며, 실례로 1979년 이후 소련 태평양함대는 민스크(Minsk)에 주둔하고 있는 최선에 항공모함인 Kiev-Class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듯 서태평양지역에서의 소련 해군력의 증강은 이 지역의 군사력 균형붕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평양지역의 미-소 해군력을 비교해 보면 소련은 그들 해군력의 약 1/3에 해당하는 820척(1,620,000톤)을 태평양함대에 배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단지 두대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65척(670,000톤)만이 배치되어 있다. 물론 미국과 소련의 해군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려면 양국의 군구조, 군사전략, 무기체계, 국제전략, 그리고 지형적 조건 등 제요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단지 숫적인 면만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심각한 평가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소련이 일본해 지역에서의 서방국가 일본, 그리고 동북아시아국가들의 해상활동을 주의 깊게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 만일,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세계적 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해 연안을 따라 배치되어 있는 소련해군의 활동은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참고문헌11). 이러한 제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련은

잠수함 및 Backfire 폭격기를 이 지역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계속해서 태평양 항로안전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참고문헌 12).

II. 소련의 군사정책과 북한

1. 소련의 대아시아 군사정책

1950년대 이후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의 첫째 목적은 소련안보의 유지이며 두번째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련의 외교정책과 평화공존의 기저는 정치·경제 그리고 이념적면에서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체제와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투쟁 배경은 평화장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소련이 아시아지역에 다양하게 접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과의 직접대결을 피하는데 있다. 또한, 아시아를 소련활동의 주요 무대로서 설정한 이유는 아시아가 이념주의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실용주의가 선호되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정책방향선정은 학자들에게 의하기 보다는 정치가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참고문헌 13).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1950년대 당시, 소련이 외교정책 수행상 범했던 이념적 접근, 지역 공산당제도, 게릴라 활동 등의 일련의 과오들은 한국전쟁 이후 소련 정책결정자들이 아시아와 제3세계국가들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게 됨으로써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목표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시아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소련은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데 있다. 소련이 여기에서 노리는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소규모 분쟁발생시 합법적이며 강력한 해결사 역할을 인정받는 것과 아시아의 책임있는 실질적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1950년대 이후, 소련 접근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소련의 두번째 정책목표는 워싱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자는 것이었다.

만일,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거나 아시아의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소련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소련의 세번째 목표는 아시아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을 전제하는데 있다. 중공은 분명한 아시아의 한 국가이며 중공 역시 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적 역할을 열망하고 있다.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중공은 아시아 공산권의 정치적·관념적 지도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중공의 영향력은 과거역사를 통해보아도 소련이익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4번째는 최근에 설정된 목표로서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제한하는데 있다. 소련의 관심은 일본의 활동영역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지역에서 계속 축소되고 있는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여 중공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그 공백을 일본이 떠맡는다는 것도 역시 환영하지 않는 것이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급속히 증강되고 있는 소련 해군력의 의미가 모스크바의 대아시아 목표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련은 아시아에 대해 현재의 경제적 이해관계 이외에 무역의 기회를 더욱 늘려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수입초과로 인한 무역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 소련제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참고문헌 14).

지난 30여년 간의 소련 행동은 이러한 소련의 정책목표를 수행하려는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1969년 이후, 중공의 대아시아 영향력을 전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모스크바와 북경의 대립은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면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더우기 직접적인 중-소관계는 아시아 현정치상황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소련의 군사정책과 북한관계

1970년대 말, 모스크바는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평가되었다. 한반도에서도 중공에 비하면 소련의 이해관계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참고문헌 15).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두 가지 기본목적은 첫째로, 중공의 영향권에서 북한을 분리시키는 것이며, 둘째, 미국과 한국 간의 결속관계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중공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참고문헌 16). 1969년 중공 문화혁명이 끝난 직후에는 북한은 상당히 중공측에 기울어져 있었으나 지난 수년 간을 살펴보면 북한과 중공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공 간의 결속에 있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중공과 북한관계에 새로운 냉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으며 중공은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향상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관계에는 약간의 변화 만이 존재할 뿐이다. 반면, 소련과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1950년대 중반 흐루시초프는 김일성집단의 전복을 시도했었고, 북한에 대한 현대식 무기제공을 시종일관 제한하였으며 북한이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 북한이 겪은 세 가지 위기 즉, 1968년의 Pueblo 납치사건, 1969년 EC-121 격추사건, 그리고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시에도 별도움을 주지 못했다(참고문헌 17). 개인적으로 소련은 김일성을 과대망상증 환자이므로 그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은 소련의 신무기체계 및 경제지원에 대하여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북한이 계속해서 소련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 전략환경에 주요변화를 야기시킬 것이다. 특히 한

반도문제에 있어 소련의 강력한 위치를 굳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거, 소련은 북한의 호전성을 환영하지 않은 듯 하나 만일,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에는 북한에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한반도 안보문제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소련은 소련과 미국과의 관계에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북한의 김일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소련은 사실 한국에 미제 2보병사단을 주둔시킴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그들의 방위선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반면 깊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북한 자신도 소련을 전적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시 김일성은 북한도 외몽고나 아프카니스탄 같이 될까봐 상당히 놀랐다는 보고도 있었다.

현재, 외몽고와 아프카니스탄은 소련에 의해 그들이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서 김일성은 그와 같은 상황을 북한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련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를 원치는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평화수호자는 더더욱 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해서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중공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참고문헌 18). 아마도 현상태의 지속을 소련은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시점에서 일본은 한반도보다는 소련의 위협이 적으나,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소련과의 이해관계 확대에 국제분쟁의 소지가 증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Arnold Horelick의 글을 인용해 보자.

”놀라운 사실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소련은 일본에 대하여 외교 활성화를 통하여 자국의 국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실패한 사실이다.(참고문헌 19).

Ⅲ. 중-소 관계분석

1950~1960년대에 사용되기 시작된 '테탕트(Detente)'라는 단어는 1970년대 세계의 정치적 상황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정치용어가 되었다(참고문헌 20). 이시대의 공산권과의 긴장완화는 미-소에 뒤이어 미-중 간의 관계에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초강대국 간의 '힘의 삼각관계' 형성을 가져왔다.

하지만, 소련과 중공과의 관계는 1969년 초부터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적대화되고 경쟁적인 관계가 되었다. 중-소간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1969년 3월초 우수리(Ussuri)강에서의 국경충돌에 이어, 중공 북서쪽 Singkiang지역의 아무르(Amur)강 국경에서 수개월동안 산발적인 충돌로 고조되었다.

이 지역의 소련군은 1969년초 15개 사단에서 중반에는 21개 사단으로 증가되었으며(참고문헌 21), 군사력 증강과 더불어 “중공의 주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브르즈네프 독트린을 적용시키겠다는 소련의 시사 및

중공에 대한 핵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크레믈린의 정보 등으로 양국 간의 심리전도 극에 달했다.

중-소관계의 위기는 그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코시킨과 주은래의 회담에서 해소되는 듯 했으나 양국 간의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국경지역에 대한 군사력 추가배치는 양측 모두 가속화되었으며, 소련의 군사력 배치는 1980년에 와서 51개 사단으로 고정되었다.

반면에 이 지역의 중공 군사력 배치는 '68년 60개 전투사단에서 '71년에는 90개 사단으로, 그리고 '73년 중반에는 109개 사단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중-소 간의 국경충돌은 1969년처럼 심각한 충돌은 없었으나 '74년 3월 중공의 소련 Hel기 및 승무원 나포 사건, '78년 5월 소련군의 중공지역 침입 등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했다. 미 군사분석지에 의하면, 1978년 후반 모스크바는 극동에 공군 및 지상군을 증강시켰고, 국경지역인 Khabarovsk근처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소련이 Singkiang지역에서 그들의 구상대로 군사력을 재조직, 증강시킨 증거였다. 같은 시기에, 소련과 중공은 베이징에서 간헐적으로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이러한 협상은 '78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나 별 진전은 거두지 못했다(참고문헌 22). 이는 소련과 중공 간의 국경문제에는 상호 간의 영토적, 이념적, 정치적 양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6년 9월 모택동의 사망은 크레믈린 지도층 입장에선 좋은 기회가 되었다. 소련은 완고한 반소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모택동의 사망으로 중공이 좀 더 합리적으로 국경문제 해결에 응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만일 중공이 "모스크바와의 관계개선"이라는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소련은 중공과의 국제관계에서 논쟁을 피하고, 이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중공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로서 중공의 진보적 발전을 도와주려고 했었다.

실제로 모택동사망시부터 1977년 봄까지의 소련정책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약간의 수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대조적으로 중공의 대소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소련은 결국 '77년 중반에 가서는 중공에 대하여 공격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되었다. 한편, 중공의 지도층들은 소련뿐 아니라 서방국가 및 일본까지도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1977년 5월 이후에도 모스크바의 반중 논쟁은 계속되었으며 이는 썬더의 반소혹평과 대조를 이루었다(참고문헌 23). 소련의 지도층은 중공과의 대립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협상이라도 바랐다. 실제로 모스크바는 1950년에 상호 우방관계, 동맹, 상호협조를 의미하는 중-소관계협정에 조인하였으나 썬더는 썬더성명('79년 4월)을 통하여 이를 거부했다. 결국 크레믈린은 중공의 "모택동 없는 모택동주의(Maoism without Mao)"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중공의 외교정책은 모택동주의자들의 반소정책으로 계속되었다. 수정 모택동주의를 추구하는 지역에서는 중공의 경제개발과 군사현대화를 주장하였으며 소련은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중공 역시 소련과의 외교적 이해관계에 대해 도전을 하였다. 그 첫째는, 공산주의 이론의 정통성 주장 및 세계공산주의자 운동이었다. 중공은 모스크바의 "수정주의-Revision"에 대해 이는 사상적으로 정통성에서 벗어났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중공 역시 1969년에 시작된 중공의 대서방 외교정상화정책, 특히 미국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로 인해 사상적으로 약세에 있었다. 썬더의 도전이 계속되는 지역은 이념문제와 안보문제가 교차되는 지역으로서 중공은 동북유럽국가들에 대하여 모스크바로부터의 독립을 독려하고 있었다(참고문헌 24). 1978년 8월 중공당의장인 Hua Guofeng이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했으며 소련은 이 방문에 자극을 받아 모든 동맹국들에게 경고를 하였다.

미국 닉슨대통령의 방문준비로서 헨리 키신저의 썬더 사전 비밀방문이(1971년 중반) 공개되자 썬더는 중-소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었다. 키신저 방문 이전의 썬더는 소련이 미국 및 중공과의 개별적 접촉을 할 수 있었던 장소였으나, 지금은 미국과 중공 두 국가의 회합장소로서 소련의 접근을 거부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소련은 1972년 닉슨의 중공 공식방문

으로 미-중관계가 발전되고, 돈독해지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미-중 간의 유대강화는 미국과 중공의 최고지도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이 점이 소련을 괴롭혔다. 미국 대통령후보였던 “해리 잭슨” 상원의원과 국회지도자 등이 중공과의 긴장완화를 위해 1974년 중반경 중공을 방문했던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해리잭슨’ 상원의원은 중공방문 중, 미-중 간의 테탕트 분위기가 계속 진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의 소련의 압력에 대해 중공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격찬했다(참고문헌 25).

결국 1979년에 미국과 중공간 외교정상화가 발표됨으로써 미-소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소련은 비록 늦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동맹국에서 제외된 대만을 승인한 것을 수락했다. 미국 지도층의 중공 방문 이후 소련은 이러한 양국관계가 앞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냐에 관심을 가졌다. 1972년 열린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TUC)에서의 부르즈네프 발언이 소련의 그러한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다.

“먼저, 미국과 중공 간의 관계회복 및 정상화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소련은 국제적 활동영역에서 그 역할을 늘 승인해 왔다. 베이징과 워싱턴 간의 상호관계개선 결과는 물론 그 기저에 깔린 조건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결정적 내용은 미-중 간의 후속조치 및 진실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참고문헌 26).

고문헌 26).

소련은 미국과 중공 간의 외교정상화가 발표된 이후, 그들의 국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미국과 중공 간의 협력관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예의주시해 왔다. 첫째, 소련의 패권주의(Hegemony) 정책에 미국과 중공이 공동으로 반대한다는 합의사항에 불만을 느끼게 되었으며 둘째는, 아시아지역으로서의 소련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중공이 미국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1979년 1월, 중공 부주석 등소평의 미국 방문시 행한 반소발언은 미국이 중공의 반소사상을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느끼게 해 주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중-소대결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소련은 팽창주의 정책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이 태평양지역에 공군력 및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술적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한반도에 작용되는 국제적 역학관계에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있게 되면 남-북한 관계가 불안정해 짐으로써 심각한 충격을 유발시키리라 예상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지역 안보의 중요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두 가지의 국제적 사건은 미-중 간의 외교정상화 및 일-중 간의 평화협정이다(참고문헌 27).

중공이 경제적, 전략적으로 미국 및 일본

에 대해 접근정책을 펴는 배경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소련에 대한 투쟁을 할 수 있는 국제정치능력을 신장시키고, 둘째는 문화혁명의 격동 속에서 오랫동안 침체되어 왔던 경제적 발전 및 군사력의 현대화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중공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 충돌 발생시 대외적 투쟁능력을 갖출 때까지 지역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참고문헌 28). 이러한 이유로, 중공은 한반도에 군사적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미국과 소련이 전략적, 경제적으로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게 됨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중공이 국제적으로 강력한 권력 및 군사현대화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주변국가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은 중공의 정책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중공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중공에게 긍정적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일-중 삼각체제 강화에 대응하여 소련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증강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 문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IV. 미-중-일의 삼각체제

1. 일본의 입장

197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지역 국가 중에서 특히 일본이 소련과 중공 두 강대국

간의 각축장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에서 닉슨의 중공방문 '충격(Shock)'으로 인해 생성된 경제적, 정치적 긴장관계는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지역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게 하였다. 소련은 이러한 일본과 미국 간의 긴장관계를 이용함과 동시에 일본과 중공의 국제관계 개선을 저지하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소련 외상 그로미코는 닉슨의 북경정상회담보다 앞서 이러한 새로운 중-일 결속을 방해하기 위하여 중공문제 전문가들을 동반하여 1972년 1월 일본을 방문하였다. 소련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중-일 결속 우려는 그로미코의 일본방문, 소련의 대일본 평화교섭 및 경제교류의 다양화 제의 등 여러 가지 사실로 나타났다. 일본 수상 다나카(田中)은 1972년 9월 중공을 공식방문했으며 이로써 공식외교적 유대관계가 성립되어 양국관계는 국교 정상화는 물론, 무역 및 경제적 교류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확실한 것은 소련과 중공 모두는 서로 그들 각자 고유의 대 일본관계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련은 중공이 소련과 일본 관계를 악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는 반면, 중공측은 중공국경부근에서 소련이 그들의 전략계획에 일본을 참여시키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70년대 초반의 소련과 일본의 외교적 접근은 미-중-일 삼각체제에 대하여 소련의 위협을 감소시켰다는 가치를 인정할 때 소련의 긴장완화 노력

이 소련과 일본관계 개선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어쨌든 1979년의 경우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중공과 일본과의 기존 결속관계를 유지하려는 미국측의 노력은, 소련의 대일본화합 노력 결과에 비해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인 일-소의 관계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하여 관계 유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한 예로 1977년 양국에 의해 발생했던 어업권 및 조업지역에 관한 분쟁을 들 수 있다.

주로 일-소의 마찰은 경제분야에서 발생했는데 상호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소 경제관계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초의 계획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로 하여금 시베리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경제적인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일-소 간의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나, 이미 해체된 사업은 물론, 일본의 참여범위도 당초 예상보다 많이 축소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부진은 사업성의 부족, 소련의 중도계획 변경 소련이 제시한 수락불가능한 조건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나, 무엇보다도 일본이 방대한 중공의 시장성과 대중공투자의 매력에 관심을 갖는 데에 그 이유가 있고 이는 당연한 논리가 될 것이다. 일-소 관계의 근본적 장애요소는 영토문제로서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소련이 점령한 "일본 북방 4개도서"의

영유권 분쟁이라고 일본측은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29).

1956년 일본과의 평화협정 체결 당시 소련은 부속군도른 포함한 2개 도서를 일본측에 반환한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그 후 소련은 이러한 약속은 한 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영토문제에 대하여 1964년 모택동은 일본 및 동구권 국가들의 소련에 대한 영토적 불만을 이용하여 일본측을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중공의 대일지원은 소련으로 하여금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도서들을 반환케 되는 경우에 발생할 지도 모를 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소련은 일본의 외교정책 및 미-중-일 간의 협력관계를 무엇보다도 우려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소련은 1975년 이후 이러한 삼국의 협력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이다. 예로서, 소련은 미국이 점차 일본을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대리국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은 재무장된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의 안보책임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물론, 소련은 미국과 일본의 상호 방위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참고문헌 30), 미-중-일의 삼각체제를 발전시킬 계기가 1978년 체결된 중-일 간의 평화우호조약으로 알고 있다(참고문헌 31).

2. 한 반 도

정치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미-중-일 삼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각국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방법은 일치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부터의 미군 철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나, 소련은 이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은 북한과 소련의 오판방지와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대한 억제력으로 중재한다. 또한 중공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라고 북한측에 사주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공은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없이도 남침 공격능력을 보유하려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중공의 지렛대 역할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자신들의 현 정책이 북한의 침공의사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무런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듯 하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 지상군을 비무장지대(DMZ) 근처에 주둔시키는 것은 수도권을 전쟁 초기단계에 장악하려는 북한의 기습남침 야욕을 저지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중공과 대만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 분단의 영구화를 인정한다는 것은 중공입장에서는 불만족한 전철로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

나 남북한의 통일 역시 중공은 원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공업국가로서의 발전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참고문헌 32).

미국과 중공은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양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공동으로 저지하는 정책모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중공은 서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소련의 팽창주의정책을 서방세계에 알림으로써 소련을 비방하는 한편,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월남과 한반도문제 간에는 비록 큰 차이점이 있다고는 하나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로 인하여 군사력 균형유지가 깨져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는 중공의 이해 측면에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하여 중공과 미국의 군사력 균형주의정책의 범위와 한계를 평가해 볼 때 중공 입장에서 북한과 남한과의 상호관계 중 어느쪽이 중공측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중요한 사실이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중공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소련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중-일삼각체제에의 도전을 받고 있음은 확실하다. 일본은 소련과 중공에 대하여 “등거리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최근 중공과의 경제

교류 확대 및 과거 1978년 8월의 중-일 조약 체결 등을 보면 중공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공은 소련의 해군력에 대응하는 일본의 방위능력 특히, 해군력의 증강을 촉구하고 있으며 Malacca 해협을 포함한 해상구역에 대한 소련의 해상통제를 우려하고 있다. 중공은 소련 견제를 위하여 일본의 군사력 증강도 요구하는 한편 미국에게도 서태평양상의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 배치를 원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중공과 일본의 방위협력은 소련에 대한 적절한 평형전력이 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중공과의 군사협력면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심만을 보여왔다.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의 국익은 중공과의 군사협력보다는 일본자위대의 해군력 증강 및 서태평양상에서의 미 해군력 증강에 달려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공과 마찬가지로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빼앗아간 북방도서인 Kunishiri-Etorofu 지역에 1979년 이후로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전차, 포병 및 지상군을 배치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참고문헌 33).

V. 결 론

이 글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세계 4대강국 즉, 미국·중공·일본의 지형학적, 군사적 상호 이해관계 중

특히,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논한 것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는 일본의 필수적 관심사항이며 미-일 상호방위 조약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만일,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파괴된다면 동북아시아는 불안정한 자세가 될 것이며, 북한의 남침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북괴의 남침형태는 국지전일수도 전면전일수도 있다. 미-중-일 동맹관계와는 무관하게 소련과 중공은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반면 남한은 미국 및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동맹국 간의 이념적 제국주의의 투쟁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민족주의의 투쟁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로, 1979년 미-중 간의 관계정상화 및 1978년 중-일 간의 평화우호조약을 들 수 있다. 미-중-일 간의 동맹관계는 소련의 팽창주의와 패권주의의 효과적 견제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반도 전쟁발발의 가능성도 억제시키고 있다. 물론 중공은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 때문에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유지인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비교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북한이 남한보다 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군사력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이는 북괴의 도발가능성을 저지하는 필수적 요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표 1.〉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North Korea	ROK	US Forces Stationed in ROK
Total military effective		About 784,500	About 622,000	About 39,300
Army	Active Manning	About 700,000	About 540,000	About 29,000
	Major Units	Infantry division 35 Motorized infantry division 3 Tank division 2 Special forces brigade 25 Armored brigade 5 Infantry brigade 4 Reconnaissance brigade 4 Light infantry brigade 8 Independent tank regiment 2 Independent infantry regiment 5 River crossing regiment 5 Air-borne battalion 5 Amphibious battalion 3	Infantry division 20 Mechanized division 2 Independent Infantry brigade 2 Airborne brigade 3 Special forces brigade 2 Commando brigade 1 Capital command brigade 1	2nd Infantry division 1
	Major equipment	T-34 300 T-54/55/62 2,200 T-59 175 APCs/IFVs 1,190 Artillery 4,100 Frog 5/7 54 AA guns 8,000	M-47/M-48 1,200 APCs/IFVs 850 Artillery 2,104 Honest John 12 AA guns 120*	155 Medium Tanks
Navy	Vessels	About 510 About 68,000 tons	About 110 About 85,000 tons	Supporting troops only
	Men	33,500	25,000	
	Major vessels	Escort frigates 4 Submarine (W class) 4 (R class) 4 (Local) 13 Missile patrol boat (Osa class) 8 (Koma class) 10 Large patrol craft 32 Landing craft 99	Destroyer class (Destroyer) 19 (Escort ship) 11 Missile patrol boat (with standard) 11 (with Exocet) 9 Corvettes 3 Large patrol craft 8 Landing craft 24	
Navy	Marines		One division Two brigades About 24,000	Supporting troops only About 70
Air Force and Army Helicopters and SAMS	Operational aircraft	About 740	About 450	96
	Men	51,000	33,000	
	Main types of aircraft	Light bomber IL-28 70 Fighter SU-7 20 MiG-19 200 MiG-21 160 MiG-15/17 290	Fighter-bomber F-4D/E 70 F-5A/B/E 250 F-86F 70 A-10 6 Anti-guerrilla aircraft OV-10G 24 Reconnaissance aircraft RF-5A 10 Anti-submarine aircraft S-2A/F 20	Fighter F-4E 24 F-16 48 A-10 24
	Helicopters	Mi-4 40 Mi-8 20	UH-1B 126 OH-6A 100 Hughes 500 MD 35 Others 95	
	Surface-to-Air Missiles	SA-2 & SA-3 launchers in 40 sites 250	Hawk launchers 110 Nike-Hercules launchers 100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일본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해는 정치적·전략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동시에 이 지역의 안보 유지를 위한 미국의 해상보급로로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참고문헌 34). 일본은 1979년 미-중 외교정상화 체결 이후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일본에 대한 미래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동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증강은 동북아시아 뿐 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한다.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GNP의 약 1%를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의 발표로는 "GNP 1%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방위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소련은 한반도의 현 상태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상적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에 SS-20미사일 및 Backfire 폭격기를 배치하였다.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일본의 역할은 이러한 소련 군사력 증강에 대하여 강력한 견제구실을 하는데 있는 것이다(참고문헌 35). 또 미-중-일의 삼각체제는 소련의 팽창주의를 억제하고 미-일 간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안보를 유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국은 미-중 관계와 같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적 대립뿐 아니라 일본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 및 기회주의(Oppor-

tunism)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련은 계속해서 동북아시아에 대하여 팽창주의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첫째, 중공에 대하여 정치적·군사적으로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중공과 소련과의 관계회복을 불투명한 상태이나, 소련은 최소한 중공과의 대립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소련은 강·약의 두 가지 전술을 동시에 취하면서 중공과의 국경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써 중공에 대하여 군사적 압력을 더욱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련은 중공의 국제적 고립화를 목적으로 북한과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해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문헌 36).

둘째, 일본의 중립화를 시도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는 일본의 중립화 및 일-소 간의 시베리아 경제개발을 위한 협력관계의 개선이다. 소련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약의 혼합전술을 채택할 것이다. 소련은 일본해상 주변에서 그들의 강력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빈번히 과시함과 아울러 일본의 북쪽근해에서의 조업을 더욱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일본에 대하여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더욱 가할 것이다. 또한 소련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지역에서도 보다 유리한 전략적 위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참고문헌 37).

셋째, 한반도에 대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소련에게 매우 중요한 곳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소련 영향력의 증대는 중공·일본 및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대하여 소련외교정책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소련은 이미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현재 중공보다는 소련쪽에 더욱 밀착해 가고 있다. 최근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전투기, 함정, 미사일등의 군사원조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뿐 아니라 베트남에도 소련의 해군기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

한 및 베트남을 급격하게 군사적으로 강화 시킴으로써 소련은 자신의 직접적인 군사력 개입 없이도 인근 국가들과의 투쟁을 선동하는 “대리국가-Client States”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소련의 군사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란을 지원하는 한편 미제 7 함대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여건들은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통제력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결국 일본에게 정치적·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참고문헌 38).

참 고 문 헌

- (1) Robert A. Scalpino, "Approaches to Peace and Security in Asia: The Uncertainty Surrounding American Strategic Principles," in *Changing Patterns of Security and Stability in Asia*, ed. Sudershan Chawla and Dr. Sardesai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80), p. 17.
- (2) Ibid., p. 18.
- (3) Loc. cit.
- (4) Robert P. Berman and John C. Baker, *Soviet Strategic Forces: Requirements and Response*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2), p. 27.
- (5) Earl A. Molander and Roger C. Molander, *What about the Russians and Nuclear War?* (New York: Pocket Books, 1983), p. 160.
- (6) Joseph D. Douglass, *Soviet Military Strategy in Europe*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9), p. 22-28.
- (7) Kenichi Kitamura and Jun Tsunoda, "The Japanese Defense Posture and The Soviet Challenge in Northeast Asia," in *New Foundations For Asian and Pacific Security*, ed. Joyce E. Larson (New Brunswick, London: National Strategy Information Center, Inc., 1979), p. 107.
- (8) Ibid., p. 107.
- (9) Ibid., p. 103.
- (10) Ibid., p. 104.
- (11) Ibid., p. 105.

-
- (12) Ibid., p. 108.
- (13) Roger E. Kanet, "Soviet Attitudes Toward Developing Nations Since Stalin," in *The Soviet Union and the Developing Nations*, ed. Roger E. Kanet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p. 50.
- (14) Thomas P. Thornton, "The USSR and Asia," in *Asia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ed. Wayne Wilcox, Leo E. Rose, and Gavin Boyd (Cambridge, Mass: Winthrop, 1972), pp. 273-303.
- (15) Robert C. Horn, "The Soviet Union and Asian Security," in *Changing Patterns of Security and Stability in Asia*, ed. Sudershan Chawla and Dr. Sardesai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80), p. 92.
- (16) Donald Zagoria, "Soviet Policy and Prospect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5, No. 2, 1980, p. 74.
- (17) Janet D. Zagori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 *Soviet Armed Forces as a Political Investment*, ed. Stephens. Kaplan, Mailed Fist, Velvet Glove (Brooking Institution, 1980), p. 52.
- (18) Donal S. Zagoria, "Korea's Future: Moscow's Perspective," *Asian Survey*, 1977, pp. 1103-12.
- (19) Arnold Horelick, *Soviet Policy Dilemmas* (Rand Publication p-5774, 1976), p. 10.
- (20) _____, "Sino-Soviet Relations in an Era of Detente," *Asian Affairs*, 1976, pp.287-304.
- (21) The Annual Issurs of *The Military Balance*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1979).
- (22) Kenneth G. Lieberthal, "Sino-Soviet Conflict in the 1970(s : Its Evolu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Strtegetic Triangle" (Rand Publication R-2342-NA, July 1978).
- (23) Horn, op. cit., p. 68.
- (24) Loc. cit.
- (25) Ibid., p. 69.
- (26) New York Times, No. 14 (April, 1972), pp. 38-39.
- (27) Hogan Yoon,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New Foundations for Asian and Pacific Security*, ed. Joyce E. Larson (New Brunswick and London: National Strategy Information Center, Inc., 1980), p. 122.
- (28) Ibid., p. 125.
- (29) Peggy L. Falkenheim, "Some Determining Factors in Soviet-Japanese Relaions," *Pacific Affairs* (Winter, 1977-78), pp. 604-24.
- (30) D. Petrov, "Japan's Place in U. S. Asia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October, 1978), q. 52.
- (31) Ibid., p. 58.
- (32) Pfaltzgraff, op. cit., p. 31.

-
- (33) Defense of Japan 1979, Defense Agency, Tokyo, 1979, p. 37.
- (34) Martin E. Weinstein, "Japan and Asian Security," in *Changing Patterns of Security and Stability in Asia*, ed. Sudershan Chawla and Dr. Sardesai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80), p. 100.
- (35) Kitamura and Tsunoda, op. cit., p. 104.
- (36) Ibid., p. 109.
- (37) Ibid., p. 109.
- (38) Ibid., p. 110.

北韓의 暴力革命 輸出 實態와 展望



李 性 宰
(소령·제7293부대)

1. 北韓의 政策基調

가. 北韓의 政策目標

北韓은 1970年 11月「党 第5次大会」에서 채택한「朝鮮勞動党 規約 前文」과 1980年 10月의「党 第6次大会」에서 改定, 채택된 同 規約 前文에서 北韓의「政策目標」를 “当面目的”과 “最終目的”으로 区分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朝鮮 勞動党的 当面目的은 共和国 北半部에서 社会主義의 完全한 勝리를 保障하며 全国的 範圍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의 革命課業을 完遂하는데 있으며, 最終 目的은 社会的 主体思想化와 共產主義社会를 建設하는데 있다”¹⁾

北韓의 党規約 前文에서 規定된 “当面目的”은 '70年代와 '80年代에 아무런 變動도 없이 南韓에서의「人民革命」을 推進하는 것이며, “最終目的”에 있어서는 '80年代 規約에 오히려「은 社会的 主体思想化」를 새로 첨가함으로써 敎条主義的 共產統一의 야욕을 더욱 노골화한 것이다. 또한「党 第6次大会」의 前文에서 北韓의 最高權力機關인 勞動党은 韓半島의 統一을 위하여

“南朝鮮에서 美帝國主義의 侵略軍隊를 몰아내고 植民地 統治를 청산하며 日本軍國主義의 再侵企圖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南朝鮮人民들의 社会民主化, 生存 權鬭爭을 적극 지원하고 祖国을 自主的, 平和的으로 民族大團結의 原則에 기초하여 統

一을 이룩하고 나라와 民族의 統一의 發展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라는 구절에서 北韓政權의 赤化統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南朝鮮革命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²⁾

以上 北韓의 公式的 言明에서 明示된 바와 같이 北韓은 政策의 上限線을 「全 韓半島의 共產化」에 두고 下限線을 「北韓社會에 建設된 社會主義 體制의 守護」에 두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와 大韓民國 政府의 전복에 의한 「全 韓半島의 共產化 統一」을 그 「政策目標」로 設定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北韓도 경제발전 등 다른 정책목표를 追求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全 韓半島의 共產化 統一」이란 目標만큼 一次的인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北韓의 政策路線

北韓은 「全 韓半島의 共產化 統一」이란 政策目標를 실현하기 위한 「政策路線」으로서 「3大革命力量 強化」方案을 채택, 추진하고 있다. 1964年 2月 27日 「党中央委員會 第4期 8次 全員會議」에서 3大革命力量 路線을 확정하였으며, 이러한 北韓의 政策路線은 6·25南侵과 4·19 당시 南韓革命의 失敗原因을 分析하고 이에 대한 戰略指針을 提示하기 위하여 채택한 것이다. 즉 「金日成」은 “南韓革命力量은 朝鮮革命을 위한 主体的 力量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祖國統一의 大사변을 앞당기며 그를 達成함에 있어서 重要的 역할을 수행한다”고 前

提하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은 아무리 北半部에 強力한 革命力量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南韓에 革命力量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祖國統一의 유일한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實吐한 바 있다.³⁾ 이러한 「3大革命力量 強化」方案은 1965年 4月 14日 「金日成」의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의 演설을 통해 다시 다음과 같이 主張되었다.

“우리 祖國의 統一 朝鮮革命의 全國의 승리는 결국 3大力量의 준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주의 建設을 잘하여, 우리의 革命基地를 政治·經濟, 軍事的으로 더욱 더 強化하는 것이며,

둘째로, 南朝鮮 人民들을 政治的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南朝鮮의 革命力量을 強化하는 것이며,

세째로, 朝鮮人民과 國際革命力量과의 團結을 強化하는 것이다.”⁴⁾

이와 같은 「北半部-南朝鮮-國際革命力量 強化」方針은 곧 北韓의 「對內-對南-對外政策」의 基調를 意味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北韓의 對外政策基調

北韓 共產集團이 국제사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外交行脚은 善隣, 協力, 交流 등 一般的인 外交政策의 추진이라든가 이를 뒷바침하는 活動이 아니라, 그들 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對南赤化戰略의 한 수행방도로서

펼쳐지고 있다는 데서 그 特性을 볼 수 있다.⁵⁾ 그들의 관점을 빌면 한반도에서 革命을 主動적으로 맞이 하려면 3大革命力量 強化를 해야한다는 것으로써 여기서 對外政策의 基調가 되는 것은 바로 「國際革命力量의 強化」인 것이다. 「國際革命力量의 強化」方針은 對南戰略을 수행하는데 있어 측면지원 세력을 획득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즉, 「國際革命力量은 南韓革命과 韓半島 革命을 위한 國際的 支援力量」으로서 世界 도처에서 反美 공동투쟁을 전개함으로써 美國을 고립시키고 南韓의 支援을 弱화시키기 위한 국제적·전투적 연대관계를 強化하고자 하는 것이다.

北韓은 「國際革命力量」을 強化하기 위하여 國家間的 外交形式 뿐만 아니라 「人民對人民外交」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特히 美國 및 日本 등을 비롯한 西方世界에 산재하고 있는 재외 韓國人과 第3國人을 회유, 포섭하여 民間次元의 國際反韓統一戰線 구축을 기도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韓半島 有事時 國際的 勢力들의 對韓支援을 단절 最小化시키고 對北 支援을 極大化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韓半島로부터의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할 수 있는 「國際革命力量」 強化에 초점을 두는 한편, 非同盟外交를 中心으로 한 實質的인 反美共同戰線의 結成을 획책하면서 革命이라는 이름의 테러를 輸出하고 있는 것이다.

2. 北韓의 暴力革命輸出外交

가. 테러리즘의 定義

폰 클라우제비츠가 「다른 手段에 의한 政治의 계속」이라고 定義내린 古典的인 戰爭의 영역을 넘어 最近에는 이보다 費用이 적게 들면서 훨씬 더 무서운 結果를 초래하는 戰爭手段이 全 世界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다른 手段에 의한 戰爭의 계속」으로 부를 수 있는 테러리즘(Terrorism)이다.⁶⁾

멀리는 '72年 9月 팔레스타인 「검은 9月 團」이 뮌헨 올림픽村에서 11名의 이스라엘 선수들을 殺害한 事件이나, 「카롤로스 재콜」이란 別名의 職業的 테러리스트가 '75年 12月 독일 및 팔레스타인 혼성팀을 이끌고 「빈」의 OPEC 本部에 침입, 11名의 아랍 석유상들을 人質로 잡은 事件 및 '79年 이란주재 美대사관 人質事件으로부터 가까이 는 버마 「아웅산 묘소 暗殺爆發事件」이나 '86年 「김포공항 폭탄테러」 등에서 수 있는 바와 같이 납치, 人質劇, 하이재킹, 폭탄 및 자동차총을 動員한 모든 犯罪行爲를 테러라고 부른다.

테러리즘(Terrorism)이란 이와 같이 보통 政治的·理念的인 目的을 성취하기 위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暴力을 行使하는 非合法的인 「政治的 暴力」 다시 말해서, 個人이나 집단이 政治的 目的을 위하여 기존체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행위

로서 自行되는 모든 暴力 또는 위협행위를 의미하나 이같은 개념정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않다. 全世界의 테러단체들은 마르크스 레닌主義者, 스탈린主義者, 無政府主義者, 反植民族主義者,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 단체 등 각종 구색으로 조직되어 赤色테러, 黑色테러, 白色테러 등 다양한 性格의 테러를 自行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테러를 당하는 쪽에서는 이를 비열한 행위로 비난하지만 行하는 쪽에서는 正當한 투쟁으로 보는데 問題가 있다. 「國際테러를 선동하고 있는 원흉은 소련」이라고 비난하는 美國에 대해 「美國은 解放을 쟁취하려는 諸民族의 의사 및 歷史法則을 무시하고 民族解放鬭爭을 테러라 부르고 있다」는 소련의 反論은 現代 테러리즘의 개념형태가 광범위한 次元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政治的·理念的 目的이야 무엇이든 무고한 良民을 殺害하는 殺人者는 단지 殺人者에 불과할 뿐이며, 우리가 테러를 보는 관점도 이같은 맥락에서 出發해야 할 것이다.

Brian M. Jenkins는 테러리즘(Terrorism)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⁸⁾

“暴力의 위협, 暴力의 利己의 행위 또는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하여, 서서히 두려움을 注入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考案한 暴力運動을 아마도 테러리즘이라 부르는 것 같다. 테러리즘은 效果를 노린 暴力이며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테러리스트들의 自己 희생의 結果 때문

이다. 사실상 희생은 결국 테러리스트들의 事故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테러리즘은 사람들의 耳目을 노린 暴力이며, 공포는 부산물이 아니라 테러리즘의 의도된 效果이다.”

결국 테러리즘(Terrorism)이란 政治的 目的을 성취하기 위하여 自行되는 폭력 또는 위협행위를 意味하는 것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나. 테러리즘(Terrorism)의 類型

테러리즘의 개념정의가 간단하지 않은 것처럼 테러리즘의 類型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Thomas Thorton에 의하면 강권적 테러리즘(Enforcement Terrorism)과 선동적 테러리즘(Agitational Terrorism)으로 분류하고 강권적 테러리즘은 힘(Power)이 있는 者들이 행하는 것이고 선동적 테러리즘은 힘(Power)을 선망하는 者들이 행하는 것이라 하였다.⁹⁾

그러나 이와 같은 二分法은 많은 弱點을 內布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二分法에 罣매이지 않고 좀 더 流動性 있는 유형을 만들려고 努力한 者가 Paul Wilkenson으로 그는 테러리즘을 일반화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 바, 革命的 테러리즘(Revolutionary Terrorism), 反革命的 테러리즘(Sub-Revolutionary Terrorism), 抑壓的 테러리즘(Repressive Terrorism)이 바로 그것이다. Wilkenson에 의하면 革命的 테러리즘은

政治的 革命을 가져 올 수 있으나 反革命的 테러리즘은 革命보다는 政治的 동기로 使用되며, 抑圧的 테러리즘은 政府가 어떤 团体나 個人 或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行動의 형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¹⁰⁾

Wilkinson의 관점에서 볼 때 北韓의 테러리즘은 完全한 革命的 變化的 成功的인 效果를 노리기 위하여 政治的 暴力을 非正常的인 형태로 使用하고 있는 革命的 테러리즘의 범주로 간주할 수 있다.

다. 北韓의 暴力革命輸出 實態

北韓은 非同盟 新生弱小國들의 支持獲得을 위해 지난 1966년부터 국제적인 테러조직과 연계를 맺고 게릴라훈련을 시키기 시작함으로써 地球村의 망나니로 전락했다. 물론 1945年 第2次大戰 終結과 더불어 한반도에 잠입한 金日成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 서부터 아니 그보다도 훨씬 이전 匪賊生活을 할 때부터 테러活動을 自行해 왔음은 歷史가 증명해 주고 있다. 단지 北韓 共產集團이 테러活動 무대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地球村 全体로 본격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始作한 해가 1966年경이라는데 시기 부여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¹¹⁾

北韓은 「프롤레타리아 世界 革命的 東方 哨所」임을 자처하면서 反帝鬭爭과 非同盟運動에서의 連帶性이라는 名分을 앞세워 1966년부터 亞·阿·中東 및 南美地域의 軍事要員 과정 및 초치訓練, 무기제공 등 對

外 軍事支援을 強化해 왔다.

1) 정부전북활동¹²⁾

北韓이 對外的으로 전북활동을 支援하는 名分은 「反帝·反植民 共產革命」이다. 따라서 그 支援對象도 당연히 西方先進 國內의 反政府团体로 制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第3世界의 모든 나라가 對象으로 되어 있어 그 모순성을 드러내 놓고 있다. 그 이유는 서방측의 대부분 國民들이 마르크스主義와는 융합하기 어려운 기독교 정신문화권에 속해 있고 政治的으로도 高度의 自由民主主義를, 經濟的으로는 世界의 先進國 수준의 生活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暴力革命 輸出의 길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政治·經濟的으로 혼미상태에 있는 第3世界帝國을 표적으로 해서 좌경국 이든 우경국이든 상관없이 北韓을 支持할 수 있는 「親北政權」 수립에 집착하여 支援活動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最近에는 게릴라訓練을 계속 支援해 나가면서도 전북 공작에 관여 支援하는 것은 다소 감소시키고 있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 原因으로는 北韓의 재정적 궁핍 이외에 직접적인 理由로 과거 무분별하게 顛覆活動을 支援한 結果 공관원 추방, 外交단절 등 각종 제재 조치가 잇따르고 이에 따라 극히 민감한 국제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사실을 잘 인식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非同盟國의 광범위한 지원획득을 추구하고 있는 現時點에서는 得보다 失이 더 크다는 판단하

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도 있다.

北韓은 많은 나라의 좌익 반정부단체 활동에 영합해서 現地の 北韓工作員이나 秘密工作員들은 이들 나라 속의 地下組織과의 연계를 은밀히 추진하여 反政府活動을 하든가 또는 반란을 배후에서 支援하든가 아니면 直接 加担하는 形態를 取하고 있는데 1970年 콩고게릴라 團體를 조종한 혐의로 現地 北傀 대사관원 3名이 체포된 事件을 위시해서 1983年末까지 21個 國에서 34件의 전복활동을 전개해 왔음이 세상에 폭로된 실정에 있다(表-1 参照).

2) 게릴라訓練 支援

北韓의 暴力革命輸出中 그 규모나 빈도 면에서 가장 核心을 이루고 있는 것이 1966년부터 시작된 對外的인 게릴라訓練 支援이다. 그 支援 內容은 첫째, 게릴라 전문가가 대상국에 파견되어 現地에 常住하면서 훈련을 指導하는 方式과 둘째, 外國人 게릴라 要員을 北韓으로 초청하여 教育하는 方式 등 2가지가 있다.¹³⁾

招請 指導方式을 위한 게릴라訓練 캠프는 평양시 삼성리 구역 등에 있는 15個 特別招待所와 평남 강동군 원흥리 등지에 있는 15個所 등 총 30個所이며 매 招待所別로 30~40名씩을 分散 收容하여 教育을 하며, 1981年 11月부터는 非同盟圈의 親北團體 人物을 中心으로 한 各國의 좌익세력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招待所에서 個別教育과 함께 사회과학원 내에 설치된 소위 「外國人 主体

思想 教育課程」에서 집단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새로운 게릴라要員 선발, 教育手法도 개발·活用하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招請 指導方式으로 1966년부터 국제테러 및 게릴라 단체와 연계되어 「反帝·民族解放鬭爭」 支援 名分아래 에이레共和國 등 44個 國際테러組織과 PLO 등 35個國에 5,000여명의 게릴라 要員을 훈련시켰다(表-2 参照).

現地派遣 指導方式으로는 1970年 11月 브라질의 「포르또·알레그레」 근처에 게릴라 訓練基地를 설치하고 15名의 게릴라에게 思想教育과 함께 무기조작법을 가르쳤고 무기구입 및 革命團體 무장을 위한 자금 5만 불을 支援해 주었다. 이외에도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가나 등 中南美·아프리카 등의 政治不安國을 中心으로 총 34個國에서 2,000여명의 게릴라 및 특수 요원을 指導해 왔다(表-3 参照).

3) 武器 및 資金支援¹⁴⁾

北韓이 第3世界圈을 中心으로 反政府團體에다 제공한 工作活動 資金支援을 보면 1965년부터 1975年 사이에 16個國에 약 350억불 이상이 되며 케냐, 인도, PLO 이외는 모두 中南美帝國이 그 對象이었다.

한편 武器支援은 「西南아프리카 人民기구」(SWAPO)를 포함하여 阿·中東地域에 중점적으로 소총, 기관총, 수류탄 등 초기에는 소규모 支援을 계속해 왔으나 이는 무엇보다도 北韓이 개입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물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거듭할수록

〈表-1〉北韓의 政府顛覆活動 實態

국 家 名	年 月	내 容	備 考
우 루 과 이	66.	우루과이에서 북괴 「오동당」 대표부요원 쿠메타 가담혐의로 추방	
케 나	69. 9	케나 야당인 「케나인민동맹」을 사주하여 반정부활동 선동	
콩 고	70. 9	북괴대사 등 3명을 반정부 파괴활동 가담혐의로 재판에 회부 외교관계 중단	
스 리 랑 카	71. 4	「반다라 나이케」 수상 암살을 기도하다 체포	북괴대사관폐쇄 및 공판원 추방
이 집 트	72. 6	북괴대사 「김영순」이 카이로 대학생을 사주, 반정부 데모 선동	「김영순」 추방
칠 레	73. 6	북괴공작원 「김창본」이 반정부계릴라단체인 「콰이혁명운동」(MIR) 가담혐의	「김창본」 추방
알 제 틴	74. 9	남미공산화를 목적으로 「남미좌익단체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단체: 알제틴 「인민해방군」, 볼리비아 「전국해방군」, 우루과이 「Tupamar」 등 7개 단체 • 주 재: 북괴 대표 「양국학」 대좌 • 결의사항: 중남미혁명의 통일전선형성, 무력투쟁전개, 혁명통합위원회 설치 등 	
이 집 트	75. 9	이집트 주재 북괴무관 「한주경」은 반정부부스파이단 「쇼크리」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추방됨 이집트내 북괴문화원 회원인 「아슬」대학생 7명이 북괴지시에 따라 국가 전복 활동에 가담	「한주경」 추방
코 스타 리 카	75. 5	코스타리카 경찰은 북괴요원 「김동은」 외 3명을 반정부 학생시위 선동혐의로 체포	북괴요원 4명 추방
네 팔	77. 4	네팔 주재 북괴 공작원들이 네팔의 정치범 15명의 Nakhu형무소 탈옥을 방조	북괴 공작원 추방
페 루	77. 4	페루주재 북괴요원, 반정부여성계릴라 20명에게 정부 전복활동 훈련 실시	
볼 리 비 아	78. 5	북괴요원 「김현주」 「박덕진」 「김명학」 등은 볼리비아에 입국후 정보 당국에 연행되어 조사후, 정부전복기도 혐의로 추방	북괴요원 3명 추방
파 나 마	82. 6	파나마 당국은 반정부 파괴활동 혐의로 북괴요원 「김영」 등 5명 조사	북괴요원 5명 추방
레 바논	82. 7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체포한 80여명의 국제테러단 중 북괴요원 24명을 확인	현재 서베이루트에서 활동중인 북괴테러단 60~100명으로 추정

〈表-2〉北韓의 招請訓練 實態

국 가 명	年 月	내 容	備 考
케 나	69. 9	케나당국은 북괴에서 훈련 및 자금을 지원받은 게릴라 두목 「오티노」 체포시 16명 이상의 케나인이 북괴에서 훈련 받았음을 확인	
차 드	69. 10	차드북부, 반란군 지도자 「알바시디크」는 북괴로부터 게릴라훈련 및 다량의 무기와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음을 실토	
이 디 오 피 아	69. 12 77. 8	이디오피아 정부 전복단체 (ELF) 대표단 방북, 동ELF 사무총장은 청년간부 수명이 북괴에서 훈련 중임을 언급 이디오피아·소말리아間 분쟁시 수개월간 이디오피아 민병을 북괴교관이 훈련지도	
이 집 트	73. 7	700여명의 군·게릴라요원을 평양에서 훈련	
소 말 리 아	73. 9	소말리아 게릴라 지도요원을 평양에 초치, 훈련 및 교육지원 • 73년 6월 제 4차 훈련 집단 100명이 북괴에서 교육마치고 귀국 • 73년 7월 제 5차 훈련 집단 100~150명이 6개월 교육 예정으로 북괴 향발	72년~74년간중 1,500명 훈련지원
P L O	72. 8 75. 9 76. 1 81. 11	PLO 소속 게릴라 30명을 북괴에서 훈련, 아랍테러 분자들에게 다량의 무기제공 팔레스타인 게릴라 12명이 북괴에서 1년 정도의 군사훈련을 받음 북괴는 영남 강동군 원흥면 특별초대소에서 72년 1월부터 팔레스타인·자이레·멕시코등 외국게릴라와 공산당원 30~40명씩을 14개 초대소에 분산 수용하여 3~5개월간 게릴라 교육을 실시 PLO 의장 「아라파트」 방북 이후 북괴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 대 이스라엘 게릴라전에 대비 PLO병력 다수를 북괴에서 훈련지원	
프 에 르 트 리 코	75. 6	대미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공산당 정치국원 「후안메데스」 방북시 새로운 훈련소를 설치하고 전 라틴아메리카 출신 게릴라와 질레의 극렬 좌익분자들을 훈련지도	
태 국	76. 4 77. 3	76년 2월 태국군에 귀순한 공산당은 25명의 태국공산당 게릴라(CPT)들이 평양에서 게릴라 훈련을 이수하였다고 진술 태국공산당 게릴라 후속 교체인원 30명이 입부 훈련 받음	
멕 시 코	71. 3 76. 12	멕시코 연방검찰총장은 북괴에서 훈련받은 게릴라 총 50명중 17명이 정부전복 활동을 기도하다 체포되었다고 발표 멕시코 정권교체시 공산계릴라 활동에 북괴가 관여하여 1969년 쿠바, 월맹등이 동계릴라들의 훈련을 거부, 북괴에서 받아들여 50명을 훈련 시켰으며, 이들 대부분이 사망 또는 투옥되고 그후 다시 북괴로부터 훈련받은 게릴라 간부요원 21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폭로	멕시코 월간지 「콘데니트」
페 루	77. 4	페루 국가정보위원회는 주 페루 북괴통상대표부내에서 페루 여성 20명이 정부전복에 관한 훈련을 받아왔으며 페루학생 상당수가 평양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고 있다고 폭로	
파 테 말 라	78. 2 80. 12	좌익게릴라 집단군(인민해방군) 요원 100명이 북괴에서 훈련 이수 좌익 게릴라 요원들이 북괴에서 훈련이수	수 미 상
엘 살 바 도 르	80. 12	좌익 게릴라들이 북괴에서 훈련 이수	수 미 상

〈表-3〉 北韓의 現地派遣 訓練支援 實態

국가명	年月	내용	備考
우루과이	70. 11	우루과이 사회당내에 북괴가 「국제문제연구소」란 기구를 설치, 케릴라조직체와 연계를 맺고 케릴라단체의 통합을 획책	
가나	66. 7	북괴요원들이 케릴라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적발	북괴와 외교단절
콩고	70. 9	주 콩고 북괴 대사 등 3명이 케릴라 훈련 지원 및 정부 파괴 활동 가담혐의로 체포	북괴 대사 등 3명 추방
브라질	70. 11	북괴는 「포르투-알레그레」 지역에 케릴라 기지를 설치하고 케릴라 15명에게 사상교육, 무기조작법 등 교육훈련	
중앙아	71. 3	「보카사」 대통령은 간첩 및 파괴공작활동 혐의로 동국 주재 북괴대사 및 공관원 전원을 추방	북괴와 외교단절
칠레	71. 11 73. 6	「아옌데」 대통령 취임후 북괴는 「산디아고」에 대규모 대사관을 개설, 쿠바에서 활동중인 북괴케릴라 훈련단을 이동시켜 새로운 훈련소를 설치하고 전 라틴 아메리카 출신 케릴라와 칠레의 극렬좌익 분자들을 훈련지도 북괴공작원 「김창본」은 중부 고원지대의 반정부 케릴라단체인 좌익혁명운동(MIR)에 자금 및 훈련을 지도하다 추방당함	
영국	72. 6	북괴특수전 요원4~5명이 밀과되어 에이레 공화군(IRA)에 무장케릴라 양성, 각종 시설물 파괴 및 폭파요령, 요인납치와 암살방법, 사회교란 책동등을 교육	「메일리·벨레그라프」 지
남예멘	72. 6	20여명의 북괴군사요원들이 케릴라 훈련지도와 청년층에 대한 사상교육(1천여명) 실시	
P L O	73.	북괴케릴라 교관 70~80명이 팔레스타인에서 케릴라 훈련지도	
알제틴	73. 12	알제틴의 「사라」지역에 북괴가 케릴라기지를 설치하고 30~40명의 대원에게 사격·폭파술 및 사상교육 실시	
알제리아	76.	팔레스타인 케릴라 훈련중심지인 알제리아에 중공 및 북괴의 케릴라 훈련교관이 정치입문, 케릴라전 및 사보타지 수법 등을 훈련 지원	
볼리비아	76. 10	볼리비아 전국 해방군(ELN) 요원들을 가이아나 소재 북괴의 케릴라 훈련소에서 훈련	
서독	76.	서독 극좌케릴라 단체인 「바더마인 호프」는 북괴에 군사훈련 및 정치적 협력을 요청	81. 8 서독 경관 발표
레바논	76. 4 81. 12	레바논 내전에 북괴군은 일본적군파, 소말리아인, 파키스탄인 등 좌익극렬 분자들과 합류, 좌익외교도를 지원 북괴 특수전 요원들이 남부레바논 PLF 캠프에서 국제테러 활동을 위한 훈련지도	
페루	77. 7 78. 4	페루의 총과업시 「리마」 근교에서 페루의 반국가단체에 북괴요원이 무기조작법·사격술·폭탄제조법 등을 교육 북괴 통상대표부원 「양도두」는 「우아마스」시 근처의 케릴라 기지에서 독도법·암기술·사전복사·사회주의사상·암호해독 케릴라 훈련을 지도	
탄자니아	78. 2	71년 8월이후 「타보라」지역에 북괴는 혁명학교를 설립하고 1,000여명 이상의 아프리카 케릴라들을 훈련시킴	
기니아	78. 12	소니아 공화국 케릴라 훈련소에서 북괴교관이 농촌케릴라 훈련을 지도	
모잠비크	81. 11	소련·쿠바와 함께 북괴군 특수전 요원을 과전, 모잠비크의 특수부대인 「사이런스」 소속 500명을 훈련 지원	

武器支援은 더욱 적극화·대규모화하고 있는 실정이다(表-4 参照).

4) 軍事要員 과전¹⁵⁾

北韓은 1966년부터 1983년에 이르기까지 총 38개국에 약 8,000여명의 軍事要員을 과전했다. 이들 北韓軍事要員들의 해외과전任務는 참전과 被支援國軍의 장비 및 部隊運營, 그리고 訓練指導 등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表-5 参照).

北韓의 軍事要員 과전실태를 最近 公開된 「그레나다」사태에서 살펴보면 1983年 10月 28日 美國務省은 “「그레나다」에 外交官과 유사한 身分을 가진 北韓人 24名이 있었다”고 發表했는데 그 동안 바깥 世上에는 北韓이 「그레나다」에 그들의 軍事要員을 5名 과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外交的 表現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은 「그레나다」軍을 訓練시키기 위하여 과전된 軍事要員이었음이 틀림없다. 또한 「리처드·자이콥스」 소련주재 「그레나다」대사는 “「그레나다」軍이 소련 및 北韓製의 最新型 武器로 무장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좌익 「그레나다」軍이 북한제 무기와 북한 군사고문단에 의해 訓練받았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모스크바」 発信 UPI通信은 보도하고 있다.

한편 北韓은 1983年末까지 中東·아프리카·아시아·中南美 地域 등 20個國에 약 1,200여명의 軍事要員을 과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表-6 参照).

3. 展望 및 対応策

北韓은 今後에도 「全 韓半島의 共產化統一」을 불변의 「政策目標」로 삼고 이를 實現하고자 역시 「3大革命力量 強化」方案을 「政策路線」으로써 계속 堅持할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北韓이 赤化統一이라는 그들의 基本目標를 포기하지 않는 한 「國際革命力量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對外政策과 活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크게 흔들리고 있는 外交基盤을 재구축하고 強化하기 위하여 중·소를 비롯한 共產諸國과 第3世界 및 西方國家들을 대상으로 外交活動을 더욱 강력히 展開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對外的 暴力支援 活動은 第3世界諸國을 親北勢力化하여 이를 基盤으로 駐韓美軍 철수나 韓國의 국제적 고립화를 위하여 계속될 것임은 틀림없으나, 北韓은 과거에 親北勢力을 부식하는 데에만 몰두한 나머지 無分別하게 전북활동을 支援한 結果 対象 各國의 심한 거부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國際社會로부터 규탄의 대상으로 지목된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世界 各國의 反政府團體에 대한 武器·資金支援과 政府顛覆 工作活動의 無分別한 介入을 止揚하고 選別的인 介入을 하는 方向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北韓은 단독 또는 국제테러 團體들과의 기존 연계관계를 活用 世界 도처로의 政治

〈表-4〉北韓의 武器 및 資金支援 實態

國家名	年月	內 容	備 考
베네수엘라	66.	진국해방무장군(FALN)의 「마뉴엘·카메로」에게 공작금 5만불 지원	
브라질	70. 11	혁명단체인 「해방혁명투쟁대」의 「체탈도·바레토」에게 구대타용 무기구입 등 무장을 위한 5만불의 자금지원	
인도	71. 4 79. 10 82. 6	인도 총선시 공산당 소속의원 및 친북의원들에게 정치자금 총 150만불을 지원 인도 동북부지역 「나가랜드」의 게릴라들로부터 노획한 무기 중 북괴계 수류탄, 다발총, RPG·2 (5정), 소총 등 발견 및 북괴 군사요원 4명을 체포 인도 내무성은 북괴대사관인 3등서기관 「이창용」 등이 대학생들에 세뇌공작과 인도회사와 결탁, 불법의환거래 등 범법활동과 관련 체포	대사관인 「이창용」 추방
스리랑카	71. 4	반정부 게릴라 단체에 북괴공관에서 북괴계 무기 및 자금지원	대사 「황영우」 등 전 공관원 추방 및 공관 폐쇄
파키스탄	71. 12	북한 흥남에서 적재한 무기와 탄약을 「카라치」에 양육 (130밀리 포 13문 등)	「뉴욕 타임스」지
우루과이	73.	북괴가 사회당산하 좌익단체에 34만 3천불의 공작금 지원	
볼리비아	73.	「체·케바라」와 「후엔세친」 등 볼리비아내 좌파세력 규합 및 지원자금 28만불 지원	
파라과이	73.	적색 혁명분자 「조하스」에게 18만불의 공작금을 지원하고 반정부 군부용기 선동	
알제틴	73. 12 77. 10 82. 4	인민해방군 (ERP)의 「호르헤 막스터」와 2개 좌익단체에 65년~73년간 69만 5천불의 공작금 지원 혁명인민군(RPA)과 파라과이 조국보호운동회, 그의 중남미 과격 좌익단체에 공작금 약 160만불 지원 「북괴·파나마 국제무역회사」를 통해 북괴계 무기 수출 교섭	
방글라데시	74. 11	방글라데시 해군당국은 태국 선박에 적재된 다량의 북괴계 무기 및 실탄 등을 적발, 압수	
칠레	75.	「구스타보」 칠레 장군은 북괴가 「피노체」 반공정권을 전복하려는 좌익 게릴라들에게 소총 등 다량의 무기지원을 하고 있다고 증언	
나미비아	75. 12	서남아 인민단결기구(SWAPO) 의장 「삼누조마」는 북괴로부터 무기지원을 받고 있다고 언급	
버마	76. 5	반정부 집단 (연방민족주의 전선)에 북괴가 훈련 및 무기지원	「더네이션」지
짐바브웨	77. 2	7인의 가톨릭 선교사 살해사건에 사용된 총기가 북괴가 지원한 AK 소총으로 판명	
리비아	78. 82. 2	박격포, 대공포 및 탄약 대량 지원 방사포, 105밀리 야포 등 각종 총포 지원	
가이아나	78. 11 83. 2	북괴가 가이아나내에 중남미 게릴라 훈련기지를 설치하고 훈련 및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폭로 약 6천불에 달하는 무기 및 탄약지원	「울퍼마스·노퍼시아스」지
파나마	82. 6	이민국과 군당국은 북괴측의 현지 은행예치금 50만불을 동결조치, 모인물이 북한공작금 5만달러를 인출 쿠바로 가려다 출국금지	

〈表-5〉 北韓의 軍事要員 派遣現況

지역	형태 국가	군사요원	군사 고문단	군사 기술요원	군사 교관요원	군사 훈련요원	제릴라 교관	공군요원	육군요원	기타
아시아	몽 골							50		300
	태 국		20							
	캄보디아	450								
	파키스탄	15							5	
유럽	방글라데시	7								
	폴 란드				6					
중 동	애 굽			8				98	55	
	남예멘				2,140		20			
	P L O						180			
	북예멘				20					
	시리아							30	367	140
	이라 크					400				
	리비아		10			410		280	4	
	이란		21	334						
아 프 리 카	알제리아	38	65					15		
	탄자니아					50		1		
	소말리아	10					220			
	기니아비소					200				
	자이르		130							7
	케냐					5				
	토고					30				
	모잠비크				50					
	보츠와나	1,000								
	잠비아				10		12			
	폴리사리오					25			38	
	베 넌					5				
	마다가스칼			35		3		8		
	우간다	71	23	5						
	콩 고	30								
세이셸	30									
질바브웨		240								
중남 미	가이아나	10				20				
	니카라과	30				30		3	7	
	그레나다		5							
	쿠 바	10								
계	35 개 국	7,800 여명 (단위: 명)								

資料: 自由評論社, 「地球村의 망나니」, ('83. 11) pp. 89-94.

〈表-6〉北韓의 軍事要員 상주現況('83. 10 現在)

地 域	国 家	内 容
중	남 예 멘	軍事要員 140名
	리 비 아	軍事技術要員 240名
	이 란	軍事技術要員 300名
	알 제 리 아	軍事要員 38名
동	시 리 아	포병요원 27名, 무기공장 전문요원 16名
	몰 타	軍事要員 6名
아	우 간 다	軍事教官要員 35名
	앙 골 라	軍事技術要員 (수미상)
	탄 자 니 아	軍事要員 30名
	베 닌	軍事教官要員 5名
프	잠 비 아	軍事要員 10名
	소 말 리 아	軍事要員 10名
리	세 이 셸	軍事要員 30名
	모 잠 비 크	軍事要員 50名
카	짐 바 브 웨	軍事教官要員 134名
	마 다 가 스 칼	軍事教官要員 35名
	수 단	태권도 教官 3名
아시아	파 키 스 탄	軍事要員 15名
중남미	니 카 라 과	軍事訓練要員 33名
	그 레 나 다	軍事顧問團 24名 ('83. 11 강제추방)
계	20 個 国	1,181名

資料：自由評論社, 「地球村的 망나이」, ('83. 11) pp. 95~96.

의인 支援勢力 확대와 經濟的인 實體追求
를 위한 軍事要員의 파견과 게릴라 訓練 등
은 더욱 적극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對
南工作 活動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지능
화·격렬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北
韓의 도발양상으로 다음의 몇 가지로 展望
할 수 있다.¹⁶⁾

첫째, 武力도발에 있어 종전보다 더욱 격
렬해질 것이며, 지속적으로 特攻隊員을 집
단적으로 우리의 後方에 투입시킬 可能性
이 크다.

둘째, 韓國의 内部交亂을 위해 경제기관
에 對한 破壞工作이 집요하게 감행되리라
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셋째, 政府要人에 對한 암살기도 뿐 아니
라, 해외체류 인사와 여행자에 대한 납치
공작도 보다 노골적으로 감행되리라는 것
도 分明하다.

네째, 다가오는 「'88서울올림픽」 國際行
事를 파괴하기 위한 對內外的인 반대·파괴
등 온갖 도발이 加해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다섯째, 北韓은 韓國內의 反政府 勢力규
합과 테모난동을 위해 더욱 고정간첩 및 테
러분자들을 침투시켜 테러工作의 적극화를
기도함으로써 국가안위에 치명적인 損失效
果를 노릴 것으로 展望할 수 있을 것이
다.¹⁷⁾

그러므로 우리는 北韓의 對南테러 工作
激增 可能性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多
角的인 對테러 防止 및 對備策¹⁸⁾의 강구
가 절실히 要求되며, 國際테러에 관한 國
際情報 交換体制의 발전이 要請됨과 아울
러 우리들은 총체적인 国力培養에 끊임없이
努力해야 하겠다.

註 解 釋

- 1) 康仁德(編), 「北韓政治論」(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6), pp. 565~566.
- 2) 白鍾天外 4人, 「北韓軍事政策論」(서울: 경남대학 극동문제연구소, 1983), p. 290.
- 3) 白鍾天外 4人, 前揭書, p. 294.
- 4) Yuk-sa Li(ed.), Juche 1 (New York: Grossman Publishers, 1976), p. 64.
- 5) 李昌夏, 「對外政策基調와 海外宣傳樣相」, 「새물결」(서울: 自由評論社, 1982), p. 119.
- 6) 統一安保 教育, (서울: 國土統一院, 1983. 12), p. 14.
- 7) 上揭書, p. 14.
- 8) Brian M. Jenkins, "International Terrorism: A New Mode of Conflict" (Los Angeles: Crescent Publications, 1975), p. 1.
- 9) Thomas Thorton, "Terror as a Weapon of Political Agitation" in Internal War, ed. by Harry Eckstein (London: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4).

-
- 10) Paul Wilkenson, "*Political Terrorism*" (London: Mac Millian, 1974), p. 9.
 - 11) 自由評論社, 「地球村의 만나니」(서울:自由評論社, 1983), p. 50.
 - 12) 白奉鍾, "北傀의 非正規戰과 暴力輸出", 「北韓」(서울:北韓研究所, 1983. 11), pp. 63~70.
 - 13) 朴爽雨, "北傀暴力革命 輸出実態와 展望", 「自由公論」(서울:自由公論社, 1984. 1), pp. 66~68.
 - 14) 鄭相龍, "北傀의 對外軍事支援 그 실상", 「自由公論」(서울:自由公論社, 1983. 10), pp. 62~63.
 - 15) 自由評論社, 前掲書, pp. 71~73.
 - 16) 李喆周, "北傀의 도발책동과 새 양상과 그 대책", 「自由公論社」(서울:自由公論社, 1983), p. 41.
 - 17) 朴점식, "北傀暴力革命輸出의 어제, 오늘, 내일", 「새 물결」(서울:自由評論社, 1983), p. 38.
 - 18) 朝鮮日報(1984. 4. 17日字), 「美 反테러 打撃隊 창설」参照.

北方關係와 우리의 対応

申 明 南

〈중령·공군본부〉

1. 序 論

最近의 韓半島 動向 가운데 가장 높은 關心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다름아닌 그동안 北韓이 취해 온 蘇聯과 中共에 對한 等距離 外交에서 軍事力 增強을 爲해 對蘇 一辺倒外交로 旋回하고 있는 外交路線의 變化이다. 이러한 現象은 北韓으로서는 中共의 對 西方政策의 變化에서 온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 弱화에 따른 그들의 世襲體制 瓦解 憂慮로 蘇聯이 積極的으로 必要하게 되었으며, 한편 蘇聯 또한 韓·美·日 三角體制 構築과 對 中共 關係 惡化에서 오는 焦燥感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必要로 하게 되었다는 이른바 蘇聯의 對 亞細亞政策의 積極化와 密接하게 關係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蘇聯과 北韓間의 最近의 密着은 韓半島에 있어 가장 危險스럽게 作用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곧 韓半島를 強大國들의 戰場으로 提供함으로써 우리 民族의 破滅을 招來케 하는 重大한 要因이 되고 있다.

2. 蘇聯과 北韓의 密着關係

1984年 5月 北韓의 金日成 一行이 23年 만에 모스크바를 公式 訪問한 以來 蘇聯과 北韓間의 密着關係는 具體化되기 始作하였다. 이는 北韓이 金日成의 모스크바 訪問을 大的으로 報道하면서 그의 訪問을 契

機로 蘇聯과의 親善關係가 한층 더 높은 段階로 探化 發展되고 있다고 主張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蘇聯과 北韓의 密着關係는 大体로 다음의 두 가지 事實에서 緣由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蘇聯의 大規模 軍事援助 뿐만 아니라 落後된 經濟를 開發하기 爲한 援助를 받고자 하는 北韓의 露骨的 渴望이며,

둘째는 高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宣言以後 蘇聯의 亞細亞 進出 野慾을 爲해 그 어느 때보다도 北韓과의 密着이 必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實際로 金日成이 모스크바를 訪問하여 어떠한 約束을 받아냈는지는 正確히 알 수 없지만 그의 訪問以後 蘇聯과의 關係가 急進展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우선 軍事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84年 11月 카피차의 平壤訪問以後 平素 北韓이 蘇聯에게 強力하게 要請하였으나 實現되지 않았던 MiG-23機, 地對地 스카트 미사일, T-72戰車, 그리고 戰鬪用 헬리콥터 등의 導入問題가 解決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4年 12月부터 蘇聯의 Tu-16 機가 北韓 上空을 通過하면서 韓半島에 對한 偵察飛行을 定例化 하였으며 이듬해 5月에는 雙方 戰鬪機의 相互交換 飛行이 實施되기도 하였다. 또한 '84年 4月 羅津港의 蘇聯軍艦 寄港許可를 비롯하여 元山港에도 '85年과 '86년에 蘇聯의 太平洋 艦隊가 式典參加 名目으로 寄港하였으며, 西海岸의 남포港에

도 寄港許可를 얻었다.

한편 軍事的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非軍事的 側面에서도 急進展되고 있는데 그 實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北韓에서 모스크바까지의 直通列車가 '86年 10月부터 開始되었고, 平壤 모스크바間의 논·스톱 航空便이 '86年初부터 運行되고 있으며 經濟協力 增大에도 關心을 보여 雙方은 「貿易 및 經濟技術 協助에 關한 議定書」와 「原子力 發電所 建設協定」 등을 締結하였다. 이와 同時에 蘇聯과 北韓間의 高位幹部들의 頻繁한 交換訪問이 있었다. '84年 11月에 蘇聯의 카피차 外務次官 一行이 平壤을 訪問하여 北韓 代表團과 一聯의 會談을 가졌으며 그 結果中的의 하나가 「蘇·朝 國境線 通過에 關한 條約」의 假調印이었다. '85年 4月에는 北韓 外交部長 김영남이 蘇聯을 訪問하고 當時 蘇聯 外相 그로미코와 會談을 가졌다. 그 結果 「蘇聯·北韓 커뮤니케」가 發表되었으며 여기서 雙方은 日本의 再武裝과 日本 領土內의 核武器의 配置를 非難하고 同時에 「韓·美·日 協力體制」를 나토형의 軍事 블록으로 規定했다. 그리고 두 나라는 같은 커뮤니케에서 1961년에 兩國間에 締結된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 調約」이 規定한 義務를 다같이 誠實히 遂行할 것을 再確認하기도 했다. '85年 8·15 解放 40週年 記念式에서는 蘇聯의 第一副首相 알리에프가 大規模 使節團을 이끌고 平壤을 訪問했다. 알리에프 以外에

도 蘇聯의 第一国防副首相 제트로프 元帥를 團長으로 한 軍事代表團도 北韓을 訪問하였다. 1986년에 들어서도 雙方간의 接觸과 交流는 繼續되어 1月 19日부터 23日까지 日本을 訪問했던 蘇聯 세바르드나제 外相이 平壤을 訪問하여 平壤指導層과 會談을 가진 후 共同聲明을 發表하였으며 이 聲明에서 雙方은 北韓의 統一政策을 支持한 反面 서울올림픽 共同開催와 팀·스피리트 '86을 中止할 것을 要求하였다.

더우기 '86年 10月 金日成의 蘇聯 訪問은 蘇聯 北韓간의 密着을 더욱 強化시킨 커다란 事件으로 注目을 받고 있다. 公式的인 發表는 없었지만 兩國은 「國際社會에서 共同의 行動」을 取할 것을 宣言하고 서로 広範圍한 協力關係를 構築할 것을 約束하였다 고 한다.

3. 北方 外交

最近 蘇聯과 北韓의 緊密한 密着關係로 因해 韓半島 周邊의 情勢는 새로운 狀況으로 變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狀況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適切히 対処해 나갈 수 있는 對策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變化하는 周邊 環境에 適切히 対処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는 곧 破滅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의 安保는 무너지고 赤化統一로 치달을 것이다.

이에 適切한 對策을 爲해서는 두 가지 點이 特別히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國際環境의 變化에 適應해 나갈 수 있는 国力을 伸張하는 일이다. 이를 爲해서는 有·無型的인 側面, 즉 經濟的 安定은 물론 政治的 安定을 이룩해야 한다.

둘째는 그러한 国力伸張의 確固한 基盤위에서 우리의 外交力量을 增大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現時點에서 特別히 考慮되어야 할 것은 韓國이 既存의 友方國家들과 緊密한 協力關係를 持續시켜 나가면서 同時에 우리의 直接的인 敵이 아닌 北方 共產國家들에 對해서는 門戶를 開放할 수 있는 새로운 外交活動의 指標을 樹立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北方外交의 必要性은 根本적으로 北韓의 好戰性에서 起因한다고 하겠다. 北韓은 살아 걸어다니는 金日成을 神格化하여 偶像化하고 40代의 아들을 後繼者로 冊封하는 등 共產主義 社會에서도 前例가 없는 王朝 世襲體制를 構築해 놓고 있다. 이러한 對內的 不滿은 噴出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解消시키기 爲해 北韓은 南朝鮮 革命課業 完遂를 地上命題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의 好戰性은 北韓의 體制維持를 爲해 不可避해졌고 이로써 金日成 體制에 劃期的인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난 40年間 持續시켜온 赤化策動은 變함없을 것이다.

이러한 韓半島와 그 周邊狀況으로 볼 때 韓半島의 平和統一은 單純히 南北韓간의 問題일 뿐만 아니라 저 높은 大陸의 障壁을 넘어서 蘇聯, 中共과 같은 大陸國家와 連結

되고 그 關係가 改善되지 않는한 無意味하고 事實上 不可能한 일이다.

또 南北韓 關係의 改善조차도 北方 大陸 國家들의 協力없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儼然한 現實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韓國은 더욱 北方外交를 積極的으로 摸索 探求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北方 共產 國家들을 相對로 하는 우리의 北方 外交政策은 '73年 6月 23日로부터 始作되었다. 이른바 「6. 23宣言」 또는 「朴 正熙 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宣言」이라고도 하는 政策이 表明됨으로써 韓國의 外交政策은 極的인 軌道修正이 이루어졌다. 이 宣言은 理念을 달리하는 나라들 중 우리의 直接的인 敵이 아닌 모든 나라에 對해 門戶를 開放하며 南北韓 同時 유엔 加入에 反對하지 않는다는 것을 主要 骨子로 하고 있다.

「6. 23宣言」以前에는 北韓은 우리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았으며, 특히 第一共和國時節에는 外交面에서 우리는 中立國과의 關係조차도 矚려하는 對美 一辺倒 外交를 固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의 積極的인 北方外交 努力에도 不拘하고 「6. 23 平和統一 外交政策을 宣言한지도 13年이 지났지만 커다란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北韓이 韓國의 中·蘇 接近을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막는데 있다.

北韓은 이에 그치지 않고 韓國이 相互「기브 앤드 테이크」의 原理에 따라 美·日·中·蘇 4強에 의한 交叉 承認을 提案했을

때도 北韓은 應하지 않았으며 南北韓의 유엔 同時加入도 勿論 反對했었다. 理由야 어쨌든 우리의 平和統一 努力에 對한 北韓의 妨害策動은 民族的 不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北方外交가 전혀 結實을 보지 못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비록 現在까지 蘇聯과의 關係에서는 政治的 非政治的 次元에서 아무런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中共과는 스포츠 交流를 비롯한 非政治的 次元에서 交流가 活潑히 進行되고 있다. 이는 中共 自信이 그들의 國益 圖謀를 爲해 成功的인 經濟發展을 이룩하고 있는 韓國이 切實히 必要했기 때문이다.

中共은 '83年 5月까지만 해도 韓國과의 關係改善에 별다른 變化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硬直되었던 中共이 '83年 5月 그들의 旅客機가 韓國으로 拉致되면서부터 態度的 變化를 보이기 始作했다. 바로 韓國과의 直接 協商이다. 이것은 韓國이 中共의 北東地域과 隣接해 있으므로 中共 航空機의 대만 기착지로 利用될 수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이를 防止해 보자는데서 緣由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接觸 機會를 통해 韓國과 政治的은 아니지만 그들의 經濟發展을 爲해 非政治的인 交流를 擴大해 보자는 속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9月 서울에서 開幕된 亞細亞게임에는 北韓이 不參하였는데도 中共은 選手 任員團 5百餘名을 派遣, 親善의 제스처를 보

였다. 이러한 처 中共 接近에 대해 우리가 考慮해야 할 事項이 있다면 韓國의 처 中共 接近은 蘇聯과의 長期的인 關係 改善을 可能하게 할 수도 있으나 不便한 中·蘇 關係 및 改善된 中·美 關係와 美·蘇 冷戰 等 強大國들의 關係로 볼 때 韓國의 中共과의 急激한 發展은 單期的으로 蘇聯의 警覺心 高潮와 처 北韓 密着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狀況展開를 排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蘇聯과의 關係改善에도 慎重한 努力을 傾注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4. 結 論

蘇聯은 1970年代 後半 共產 베트남의 캄란과 다낭에 軍事基地를 設置하면서 亞細亞 進出을 보다 積極的으로 推進해 왔다. '79年 12月 蘇聯이 아프카니스탄을 侵攻하여 親蘇政權을 다져 두려웠던 것도 蘇聯의 亞細亞 進出 野慾이 그만큼 積極化 되었음을 反映키에 족한 것이었다.

結局 蘇聯의 亞細亞에 對한 關心增大는 지난 7月末 고르바초프 蘇聯 共產黨 書記長의 블라디보스톡 演說을 通해 鮮明해졌다.

블라디보스톡宣言은 蘇聯이 亞細亞 諸國과 關係를 改善시켜 이 地域으로 깊이 파고 들려는 意圖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蘇聯의 北韓에의 接近은 蘇聯의 亞細亞 進出 積極化에 따른 것으로 보아도 無妨하다.

蘇聯의 亞細亞 進出 積極化는 韓國과의 關係改善도 排除할 수 없다는 것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蘇聯은 亞細亞地域에서의 孤立을 脫皮하기 위해서는 韓國과 日本을 看過할 수는 없다. 때문에 蘇聯은 韓國에도 有和的인 態度로 接近해 올 可能性도 予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韓國의 北方外交의 展望은 어둡지 만은 않다고 보아도 無妨하겠다. 이 機會를 놓치지 말고 蘇聯에 조심스럽게 接近한다면 北方外交의 門도 언젠가는 열릴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問題는 北韓의 繼續되는 妨害策動인데 이는 周邊 強大國들 間의 關係가 改善되고 우리의 持統的인 努力이 있다면 解決할 수 있는 展望이 밝아질 수 있다는 점을 否認할 수 만은 없다. 이는 그만큼 韓國의 北方外交 成功 可能性도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6 · 25의 理念的 照明

— 젊은 세대의 그릇된 安保觀에 부친다 —



盧 熙 相

(國軍保安學校 教官)

최근에 필자는 모 대학에서 학생들 스스로 발행하는 科誌를 입수해 읽어본 일이 있다. 세칭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S 대의 이태올로기 전공학과에서 발간한 월간 pamphlet인데, 그 내용을 보고 아연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내용인즉 대부분이 우리의 安保問題를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는 바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2차대전 직후 미국은 한국을 對蘇 前進基地로 위치 지우고 막대한 군사인조를 통해 한국의 군사력을 미국에 예속시켰다.

둘째, 현재 한국에는 2차대전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폭의 약 1,000배 정도에 이르는 핵을 미군이 배치해 놓고 있으며, 「팀 스피리트훈련」은 核戰爭 연습이다.

셋째, 한국군은 美帝의 庸兵 역할을 한다. 즉 美帝는 한국군을 그들의 고용군대로, 아시아진출의 방패로 보고 있으며, 한국군을 美帝의 안보를 위하여 한국에서 직접적인 경제원조로 키워온 자기의 용병으로 보고 있다.

넷째, 反共이태올로기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미국과 그 예속 매판세력에 의해 강요된 가장 반민족적, 반민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前方入所教育과 兵營集体教育은 미제의 한국에 대한 신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는 反共主義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미국이 해방의 은인, 한국전쟁의 은인이라는 논리를 주입하게 하고 있다. 결국, 안보의식 고취는 反共意識, 分斷意識을 일컫는 말이고, 美帝와 세속정권의 분단 고정화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지를 담고 있는 그 팸플릿을 소개하는 것은 그것이 몇몇 학생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어느 학과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는 젊은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安保觀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보아졌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다. 과연 우리는 이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릇된 의식을 갖게 되기까지 무엇을 하였는가. 학교의 정치교육은 어느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가, 또한 이와같은 청년들을 군에 받아들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르고 합리적인 태도와 행동·행위」로 이끌 수 있는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심각하고도 엄청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비판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비논리적인 것이며, 역사적인 사실로서 얼마든지 반박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할 계는 못된다. 다만 문제의식을 모아서 6·25라고 하는 동족상

잔의 전쟁을 이념적으로 재조명하고, 그 6·25가 남긴 안보의식면에서의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장병 정신교육의 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연합국의 일원으로 부상한 소련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국에 대해 자기 영역에로의 편입을 시도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전쟁이다. 이미 한반도의 반을 위성세력화하는데 성공한 소련은 나머지 반을 차지함으로써 극동에서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여 동으로는 태평양, 남으로는 인도양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전략라인을 긋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월남 패망 직후 월남의 캄란만을 군사적으로 재빨리 조차하여 아시아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아름다운 소련은 북한에 심어놓은 金日成과 그들이 양성해 놓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아직 民主國家로 출범한지 2년여 밖에 안된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력적 점령을 시도하였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전제주의 국가와는 달리 초기 출발과 접목단계가 매우 어렵고 시일이 걸리는 체제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물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력이 신장되게 되면 외부의 어떤 도전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應戰力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 역시 광복 후 3년여의 미군정과 소군정을 체험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이질적인 정치이념으로 출발하였고 강력한 군사력을 뒷받침으로 하여 세계 적화혁명을 기본 목표로 삼는 소련과 그 주구 김일성 일당에 의해 북한은 그야말로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東方肖所」로서 침략을 위한 예리한 칼날을 갈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6·25 공산남침으로 빚어진 한국전쟁을 논의할 때 미·소 열강의 세력 재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거론한다. 즉 1945년 이후의 세계정치가 미·소를 중심으로 한 民主主義 대 共產主義 국가 간의 理念的으로 대립하는 平和維持의 원칙을 반영하는 세력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전쟁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근본 바탕을 보면 결국 理念的인 対決이다. 북한 공산집단이 출발 초기부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소련군과 일체가 되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소련군정 하에서 발표하는 공산지배자들에게 복종하느냐 아니면 비판과 반항을 하느냐 하는 것이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졌던 선택의 여지였었다.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통치 아래서 해방직후부터 살아 본 북한 주민들 중 1949년 8월 25일까지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내려온 수는 무려 328만 3천명이 된다고 하니 해방 당시 북한의 인구를 감안해 보면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이 월남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6·25 후에 UN군 철수와 더불어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합하면 그 수는 총 514만 3천명에 이른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양민들이며 다만 공산당 치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다.

이에 반해서 해방 후 남한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보통 일반시민이 스스로 이사갔다는 소리는 일찍부터 없었다. 다만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북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6·25때 납치되어 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모로 보나 스스로 넘어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한 마디로 공산당 치하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른 바 ‘지상낙원’과 ‘평등사회’를 표방했던 공산주의 북한사회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웅변과 행동으로 증명한 것이니, 자유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이념대결은 이미 한반도에서 38년 전에 승패가 결말이 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북괴군은 보병 10개 사단과 전차 242대, 각종 포 2천 5백문, 함정 36척 그리고 전투기 211대의 절대적인 군사력을 갖고 일제히 38선을 넘어 침 공을 자행하였다.

당시 8개 사단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던

우리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는 열세 한 군사력으로 북괴군의 남침공세를 막아내야 했다. 공산군의 선제 기습공격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괴의 북침설에 동조하여 우리 국군과 유엔군을 침략군으로 오인하는 좌경세력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기정된 사실로만 받아들여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그 주장의 허위성과 더불어 한국전사를 현대사에 포함시켜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교육을 보면 대부분 王朝史 내지 政治史로 점철되어 있고, 특히 해방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꾸만 나중의 일로 미루는 폐단이 있음으로써 최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나아가 鬪爭史 내지 抗爭史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國家安保와 國民의 抗戰意志에 부정적인 시각과 의식의 조장을 방관하지 않았었는지 자성해 볼 때라고 생각되어 진다. 30여년 밖에 흐르지 않은 최근의 일에 대해서까지 왜곡된 사고와 굴절된 시각을 2 세들이 갖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족공동체의 존속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최근의 것일수록 그 중요도가 큰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의 일이 곧 오늘의 일로, 내일의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의 일이 국제적인 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우리는 광복 이후의 현대사에 대하여 깊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년여의 전쟁이 결국 가난과 파괴, 질병과 범죄 그리고 민족사의 후퇴를 자초하면서 숏한 피해를 남기고 휴전이 되었다. 소련군과 중공군, 북괴군에 맞서 국군과 16개 자유 우방군이 혈전을 벌인 이 강토에는 전쟁의 흔적 만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국군은 사망, 실종, 부상으로 25만 7천명의 병력손실을 입었고, 민간인 피해는 사망 24만 4천명, 학살 12만 8천명, 부상 22만 9천명, 납치 8만 4천명, 해방불명이 33만 명에 이르렀다. 재산피해는 그 당시의 가격으로 4천억 원이 넘었다. 북한의 피해는 이것보다 더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전쟁의 상흔은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있어 國土의 分斷, 人口의 分離로부터 오는 수많은 고통이 아직도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휴전 이후에도 수 많은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니 대표적인 것만 해도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 삼척 공비침투 사건, 대통령 영부인 저격사건, 관문점 도끼만행 사건, 아웅산 폭거에 이르기까지 남한적화를 위한 도발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反共은 곧 우리 民族의 生存을 위한 理念이자 哲學이라는 점이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6·25와 그 후의 수 많은 도발은 곧 大韓民國의 抹殺을 획책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理想的 토대로서 反共, 즉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美軍의 주둔이나 國軍의 존재 이유를 대기 위한 목적에서만이 아니다. 또 현 집권 정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이념으로서 만이 아니다. 그 이전에 민족과 국가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바탕이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준적인 지표적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이 주장한 '이데올로기의 終焉'은 우리와 같이 敵對 이데올로기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정립이 절실한 과제이다.

최근 학원가 일부와 재야정치인 및 노조 그리고 종교인들 가운데서 급진좌경 사상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와의 理想的 挑戰과는 달리 새로운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일부 청년층의 좌경 성향은 하나의 유토피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즉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결여됨으로써 나타나는 일종의 동경 내지 환상의 시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불안요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날 이른바 自生的 共產主義者라는 容共勢力이 이 사회에서 싹트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전후 세대가 전체 인구의 70%를 상회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自律과 開放이라는 것도 어떤 한정된 범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체제를 인정하고 그 체제 안에서 발전과 번영을 모색하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우리는 이 자유투개방을 마치 해방과 동의어로 확대 해석하여 무분별한 자유로 인식하지 않았었던가 반성해 볼 일이다. 물론 거기에는 '70년대까지의 정치 및 경제 사회상황이 국민들에게 긴장과 갈등을 조장해 주었었기 때문에 '80년대 이후부터 제시된 각종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인한데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찌 되었든지 이제 '80년대 초의 갈등과 분망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도정에 있다.

우리의 역사상(현대사에 있어서) 한 세대는 약 35년을 주기로 하여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즉 19세기 후반인,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거 개방이 강요된 뒤 1910년 한·일합병까지의 35년은 국운 쇠퇴 시기이며, 그 후 1945년까지의 35년 간은 국권 상실의 시기이고 그 다음 5년의 혼돈과 3년의 6·25전쟁이 마무리 되어진 뒤인 1953년부터 1988년 즉 올림픽이 끝나는 해까지는 제 3의 35년으로서 민주국가발전의 토대 구축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년의 올림픽 개최의 성공 여부는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서울 올림픽이 끝난 뒤 우리는 신장된 국력을 토대로 하여 민족사의 흥륭을 위한 제 4의 35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서기 2024년 경에는 우리 나라가 그 옛날의 영화를 되찾을 '동방의 찬란한 밝은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반복된다고 한다. 우리는 王朝史가 5백년을 주기로 흥망이 부침하였다면, 현대사에서는 한 세대 즉 35년을 주기로 쇠운과 발전을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우리 역사는 세계사의 빠른 템포에 맞추어 더 빠른 시간을 주기로 하여 25년 내지 30년 만에 역사 발전의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역사감이 뛰어나고 문화감이 세련되어 있는 민족이다. 국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일수록 더 힘을 내어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好機로 삼아왔다.

따라서 지금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 민족의 自淨能力에 의하여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일부 우리 사회에 파고 든 파격한 용공사상은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기의 후퇴와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또 이러한 좌경성향을 띤 청년들이 정화되지 못한 채 군에 들어옴으로써 군의 전력 강화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安保問題에까지 영향을 미칠 소지가 높다고

본다.

군의 정신교육을 통한 이념교육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고 공산주의의 虛實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즉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없애고 정확한 현실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공산주의의 古典的 理論에 대한 비판 보다는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산 세계 자체내의 모순과 그들의 현실적 전략, 전술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론보다는 현실에 중점을 두어 접근케 하여야 한다.

셋째, 경험담을 토대로 하는 情感的 反共 教育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이성과 지식에 호소하는 교육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며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의 고취가 필요하다.

넷째,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지식의 전수에만 그치지 말고 그것의 내면화 또는 행동행위로의 연결을 강력히 유인해야 한다. 특히 반공교육과 같은 價值・態度教育은 반드시 실천 생활화의 측면을 중궁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외국의 공산주의 비판 논문을 읽고 보고서를 내거나 토론회 하는 것이 장병들의 학습내용 수용 태세에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 낸다. 여기에는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管理者의 姿勢

— 管理者의 職務와 役割 —

組織은 곧 사람에 依해서 運營되는 것이며, 사람의 能力과 行動如何에 따라 盛衰가 決定되는 것이고 보면 管理者의 役割이 얼마만큼 重要的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管理者는 조직의 中樞的 位置에 있으면서 조직을 構成하고 있는 各 階層間의 連結고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며, 管理者는 參謀로서 또한 리더로서 役割을 다해야 할 莫重한 使命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겠다.

머 리 말

嚴 永 鎬

(軍務員·空軍大學)

管理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모든 組織에 있어서의 活動은 組織의 指導者인 企業家, 行政家, 軍의 指揮官 등으로 주로 個人的인 經驗 또는 肉感에 依한 判斷으로 遂行되어 왔다. 그러나 産業革命

以後 産業조직을 비롯하여 公共行政 및 軍隊는 물론, 그 밖의 모든 社會組織에 이르기까지 規模가 차츰 擴大되어 活動內容이 異質化되고 複雜化되어감에 따라 經濟的이며 能率的인 活動을 위한 管理가 더욱 要求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合理的인 組織管理를 위하여 高度의 管理技術이 要請되었으며, 이에 따라 管理에 대한 專門知識이 없는 組織을 運營할 수 없는 體制가 形成되어 專門的인 管理者가 必要하게 되었다.

管理者란 넓은 뜻으로는 “部下를 거느린 사람 全體”를 뜻한다. 그러면 空軍의 管理者는 어떤 사람인가? 오직 指揮系統에서 役割을 하는 指揮官만 管理者인가? 勿論 모든 指揮官은 人員, 物資 및 裝備를 效率的으로 管理하여야 하므로 管理者이다. 그러나 指揮官 뿐만 아니라 모든 將校 및 이와 同等한 軍務員까지도 資源을 適切하게 使用하여야 할 責任을 賦課받고 있으므로, 自身이 곧 空軍의 管理者라고 할 수 있다.

自身이 管理하는 資源이 指揮官들이 管理하는 資源만큼 廣範圍할 수도 있고, 또 그 範圍가 至極히 좁을 수도 있다.

本稿에서는, 이런 意味에서 管理者의 役割 중 가장 重要하다고 볼 수 있는 바람직한 管理者의 姿勢를 다루고자 한다. 부연하고 싶은 것은 여러 管理者 중에서 中堅 管理者로서의 位置에서 考察하였음을 밝혀 둔다.

1. 自己 變革

管理者에게는 여러 가지 類型이 있다. 目

標·方針을 提示하지 않는 管理者, 提示하더라도 애매한 管理者, 部下의 業務 사소한 데까지 支配하려고 하는 管理者, 部下가 失敗하더라도 아무런 措置를 取하지 않는 管理者, 權限을 大幅 委讓하는 管理者, 委讓하지 않는 管理者 등 各樣 各色이다.

이러한 管理者의 類型을 課業과 人間的 두 가지 側面에 대한 關心의 大·小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들 類型의 特徵은 다음 表와 같다.

型	關心度	特 徵
	課業·人間	
A	小·小	課業이든 人間에게든 지나치게 關心이 없고, 最小限의 일밖에 하지 않는다.
B	小·大	화기애애한 職場運用에는 높은 關心이 있으나 課業이나 業績에 대한 關心은 지나치게 없다.
C	大·小	'첫째이든 둘째이든 課業 밖에 모르는 型'으로서, 部下를 一方的으로 指揮·統制하고, 酷使하나, 人間的 側面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D	中·中	現實을 挾하는 妥協型으로서, 課業과 人間的의 밸런스를 취하려고 한다. 規則 따위는 까다롭게 따진다.
E	大·大	部下가 主体的으로 目標을 立案하여, 目標達成에 意慾的으로 파고 들고, 잘 되지

	<p>않을 境遇는 自制 可能한 環境條件을 造成하는 型이다. 그러므로 指揮官·指導者일 뿐만 아니라 助言者·相談相對役으로서 部下의 目標達成을 도와 준다.</p>
--	---

가. 自己의 類型을 찾아 보라.

貴官 自身の 平常時 管理活動을 매 서운 눈으로 謙虛하게 되돌아 보아, 自己가 어떤 類型에 該當할진가 또는 가까운가를 自覺해 본다.

나. E型으로 變貌할려는 努力을 해 보라.

만일 貴官의 型이 A·B·C·D 중 어딘가에 있다면, E型을 目標로 삼아 自己變革을 試圖해 본다. 自己를 厚하게 採點하여 E型이 아닌데도 E型으로 믿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自己變革은 簡單할 리가 없다. 長期間의 努力과 忍耐가 要求된다. 알고 있더라도 行動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目標管理를 實踐할려는 管理者는 E型으로 變貌되지 않는 限 진짜라고는 할 수 없다.

2. 對立·葛藤의 昇華

對立·葛藤은 비즈니스(Business)에 부산물이다. 職場에서는 對立·葛藤이 흔히 있기 마련이다. 자기 나름의 見解·思考方式·價值觀이 多樣해지고 있는 事實, 立場이

틀린 것 따위의 緣由이다. 성가시다고 해서 對立·葛藤으로부터 逃避하는 管理者는 落伍者이다. 逃避하면 無氣力한 A型의 管理者로 零落하고 만다. 對立·葛藤에 對한 類型別 特徵은 다음과 같다.

A型: 逃避한다.

對立·葛藤에 말려들지 않는다. 意見을 求하더라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式으로 回答을 避한다.

B型: 回避한다.

摩擦을 避한다. 요는 남을 傷處 입힐만한 甚한 짓은 하지 않는다. 適當히 얼버무려서 넘어간다.

C型: 抑壓한다.

自己와 틀린 意見은 權力으로서 排除한다.

D型: 妥協한다.

바로 앞에서 맞대고 合意를 할려고는 하지 않는다. 합해서 둘로 나누는 식의 結論을 내릴려고 한다.

E型: 對決한다.

勝負를 가름하기 위한 對決일리는 만무하다. 씨름과 같이 바로 앞에서 맞대고 솔직히 競争한다. 이로 因하여 理解와 納得이 가는 結論을 내리도록 한다.

가. 對立·葛藤을 歡迎하자.

對立·葛藤은 切磋琢磨라고 여기자. 보다 나은 結論이나 意思決定을 낳는 前提가 된다. 「아무렴 괜찮아」라는 安易한 妥協은 틀린 意見이나 생각을 끌어내지 못한다. 初面に 알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獨創性이 나오지 않는다.

対立・葛藤面이 없는 代身에 보다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職場 構成員의 創造意慾을 잃게 된다. 対立・葛藤을 겁내지 말고, 逆으로 活用하는 것이 管理者이다.

나. 対立・葛藤에 아무지게 対決한다.

씨름으로 말하면, 4 個人로 組를 編成하는 것이다. 서로 自己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理由를 솔직히 말한다. 感情은 죽이자. 率直함은 率直함을 낳는다. 果然 그렇게 하는 見解・思考方式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서로 理解되면 解決로 이어진다.

3. 率先해서 自己啓發

가. 管理能力의 向上이 必要하다.

管理能力이란 뭔가? 統率力, 意思傳達力, 育成力, 洞察力, 問題發見力, 解決力, 創造力, 分析力, 判斷力, 行動力 등등이 管理能力이다. 能力發揮에 必要한 要素로서 責任感・協調性 등이 있다. 이들을 伸張하자.

管理者의 職務는 他人을 움직여서 成果를 올리는 일이다. 플레이어(Player) 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實施活動 모의 職務技術・技能을 몸에 익히는 것은 管理者에게 그다지 重要하지 않다. 오히려 對人能力을 中心으로 한 管理能力의 向上이야말로 緊要하다.

나. 自己啓發 方法을 研究한다.

專門書籍이나 雜誌를 잘 읽고, 講演會・大學 등등의 세미나・職場內의 集体研修會에

積極적으로 出席한다. 管理者끼리 研究會를 가져 集團討議를 거듭한다. 業界나 産業界의 動向을 研究하는 등등, 知識이나 技術을 吸收하는 方法은 많다. 要는, 意志力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다. 어려운 問題에 파고든다.

어려운 問題를 다루는 것은 貴官의 潛在能力을 總動員하여, 그것에 活力을 주는 데에 이바지한다. 問題가 解決되어지면, 自信・能力 다함께 한 段階 올라간다.

4. 上司와의 關係

우선 「上司에 對한 態度」의 類型別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型 • 上司에게 接近치 않으려고 한다. 定例적으로 定한 報告밖에 하지 않는다.

• B 型 • 上司와의 사이에 摩擦을 일으키지 않는다. 예스・맨이다. 問題가 있더라도 끌어들이지 않는다.

• C 型 • 自己 業務를 數値로 나타내서, 그로 因하여 上司에게 認定을 받으려고 한다. 때로는 上司에게 反抗한다.

D 型 • 예스・맨이라고 할 수도 없고, 反抗하지도 않고, 政治的 立場에서 意見を 말한다. 「말씀하신 바대로이나, 하지만 ○○○이다」라고 여쭙는다.

• E 型 • 上司는, 自己를 統制하는 者이라고 할 수 없다. 自己는 組織目標 達成의 한 構成員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報告 뿐만 아니라, 必要 情報의 提供이나 問題解決

의 提案을 實施한다.

가. 上司의 指示를 實行한다.

上司의 指示事項 中 納得이 가지 않는 點을 放置하지 않는다. 그것을 上司에게 確認하고, 自己의 見解를 說明함으로써 可能한 限 疑問이 없는 線에서 着實히 實行한다.

나. 장난삼아 問題를 풀지 않는다.

上司를 괴롭히지 않고, 自己에게 주어진 自由裁量의 範圍 內에서, 問題를 適切 解決해 나가고, 結局은 自己統制 機能을 充分히 發揮한다.

다. 業務의 段落만은 報告한다.

業務의 段落에서, 반드시 經過나 結果를 報告한다. 目標의 達成狀況이나 業務의 進行狀態를 理解시키고, 必要한 情報과 助言을 받는 것이 目的이다.

라. 上司에게 情報을 提供한다.

業務를 通해서 蒐集한 情報 中, 上司에게 有益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迅速히 上司에게 提供한다. 上司로부터 情報을 얻는 것만으로는 消極的이다. 緊急을 要하는 것은 口頭, 複雜한 것이나 重要한 事項은 文書로서 提出한다.

마. 上司에게 提案한다.

貴官의 職場에 關聯되는 問題, 將來 發生 하리라 予想되는 課題를 上司에게 提起하고, 때로는 그 對策을 提案하는 것이 有能한 管

理者이다. 貴官은 上司와 더불어 組織目標 達成의 構成員이라는 自覺을 갖고, 때로는 提案者가 되는 것이 必要하다.

5. 管理者의 立場과 活動

가. 部下로서의 活動

上司의 要請에 따라 目標·方針을 立案하여 承認을 得한다. 目標達成에 努力하고, 自己 權限으로서 統制 不可能한 事態가 惹起되면, 上司의 도움을 받는다. 더욱 더 上司에 對해서, 報告를 包含한 必要情報의 提供과 問題解決을 위한 提案을 行한다. 期末에 는 目標達成 結果를 評價해서 上司에게 報告함으로써 必要한 피드·백을 받는다.

나. 同僚로서의 活動

部署長이라면, 部署 全体問題를 他部署長들과 共通적으로 理解하여, 그 解決에 共同으로 參與한다. 相互 調整機能을 作用시켜, 援助活動을 促進한다. 相互 立場을 是認하고 責任轉嫁는 하지 않는다. 恒常 橫的 커뮤니케이션을 維持한다.

다. 上司로서의 活動

目標·方針을 提示하여 部下 自身の 目標을 立案시킨다. 部下에게 目標達成에 必要한 權限을 주어, 積極적으로 活動시킨다. 必要에 따라 業務의 進行狀況 등의 報告를 받고, 必要한 助言 및 도움을 준다. 期末에 는 目標達成 結果를 測定·評價시킨 根拠를 報告케 하여, 議論에 依한 評價를 한다. 部

下 活動上의 問題點에 對해서는 솔직한 피드·백을 實施한다. 또 部下의 育成에 힘쓰고 커뮤니케이션의 圓滑化를 圖謀한다.

맺는 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바람직한 管理者의 姿勢는 다음과 같다.

○ 課業과 人間의 統合을 企圖하고, 리더십을 發揮할 수 있는 管理者로 變貌해 나가야 한다.

○ 對立·葛藤을 겁내지 않는 管理者이어야 한다. 對立·葛藤은 아이디어를 創出하는 源泉이므로, 이를 昇華시키는 管理者이어야 한다.

○ 管理者 自身이 率先해서 自己啓發을 할 必要가 있다. 管理者는 管理能力의 向上을 圖謀하는 것이 自己啓發을 위한 要諦이다.

○ 上司와 뜻이 맞지 않은 管理者를 모신

部下는 悲劇이라는 事實을 銘心하고, 管理者는 上司와 더불어 良好한 關係를 持續해야 한다.

○ 管理者의 立場은 複合的이다. 諸各其의 立場에 따라서 必要한 活動을 해야 한다.

組織은 곧 사람에 依해서 運營되는 것이며, 사람의 能力과 行動如何에 따라 盛衰가 決定되는 것이고 보면, 管理者의 役割이 얼마나 重要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管理者는 組織의 中樞的 位置에 있으면서 組織을 構成하고 있는 各 階層間의 連結고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며, 管理者는 參謀로서 또한 리더로서의 役割을 다해야 할 重要한 使命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겠다.

軍의 組織體도 例外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空軍의 管理者는 軍을 建設·維持하고 運用하는 莫重한 責任을 賦課받은 位置에 있으므로 보다 나은 管理者로 變貌하기 위하여 恒常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靑少年 問題의 原因과

그 對策에 關한 小考

I. 서 론

오늘날의 청소년은 내일의 국가사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역군이므로 한 국가의 장래는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미숙한 존재이며, 특히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기대의 대상이며 또한 문제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대중화 및 매스컴의 발달로 현대 산업사회는 청소년 문제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기성문화와 청소년문화 간의 심각한 가치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의 가족제도나 가족기능의 변천,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사

金 主 勇

〈소명·공군본부〉

상이 내면화 되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정서적 불안감, 자아정체감의 결여, 방향감각의 상실을 초래하는 등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급기야는 가출과 비행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기 전에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더구나 내일의 우리 나라의 운명이 바로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청소년 대책은 정부적인 차원의 것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 환경인 가정과 학교, 사회적인 차원의 것 등 모든 가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청소년들의 힘이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풍토 조성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 사회의 환경과 어른들의 모든 생활방식은 그것이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반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되고 규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문제의 원인 및 청소년 지도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청소년의 본질

1. 청소년의 범위

청소년의 범위는 보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한 구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연령에 의한 구분도 통일된 것이 없다. 즉 우리 나라 민법, 소년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은 미성년을 20세 미만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18세 미만을 보호대상으로, 소년법에서는 14~19세까지를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으로는 중·고생 연령층을 지칭하기도 한다. 발달심리학에서도 통일된 시기는 없지만 대략 사춘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약 10년을 포함하는 12~22세 사이의 연령층을 일컫는다. 또한 12세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결혼과 직업적 책임을 성취할 때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적, 인지적, 성격적, 교육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할것 같다.

2.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되어가는 과정 중의 한 시기로 과도기적 성격 때문에 이중적 성격 즉, 주변인으로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는 「폭풍과 노도」의 시기이다. 문화적 과도기나 경제적 과도기나 정치적 과도기가 모두 그

러하듯이 과도기란 반드시 혼란이 있고 진통이 있고 불안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으로 그들의 내적 세계(성격이나 정신세계)나 그런 것이 외현(外現)되는 생활장면에서의 행동징후상으로도 혼란과 불안정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발달과 발전을 위한 진통과 불안정의 상태도 모두가 긍정적인 행동만이 아니고, 그 과정에는 많은 불순물이 생기기 마련이며, 미풍과 질서를 해치고 비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시기는 성적 관심도 뚜렷해지며 심리적으로 성인과 같은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렬해지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하려고 한다.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선택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생활에도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자아를 인식하여 자기대로의 인생관, 생활관, 사회관 및 도덕관 등을 확립하여 나가는 시기이다.

여기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상의 과도기인 청소년들의 혼란과 불안정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체적 급변과 정서의 가변성

신체적 발육이 현저성의 원리에 지배되는 시기이다. 성적성숙의 질적·양적 급변을 비롯하여 신장, 체중, 체력, 근육활동 등 모든 신체적 발육의 속도가 빠른 시기이다. 이와 같은 신체적 발육의 속도는 심리적 불안정을 가져 오기 마련이고, 정서적 가변성

의 개체 내의 원인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나. 반항성

청소년기의 반항성은 주로 기성인이나 기성사회에 대하여 일어나는 반항성이다. 청소년기의 반항성은 성장된 자아가 성인들로부터 존중받거나 성인으로서의 동등한 대우가 거부당하며 자기가치와 맞지 않는 기성가치나 제도, 그리고 관습을 강요당하는데서 생겨나는 증상이라 보겠다.

다. 소속으로부터의 이탈

청소년기는 자기가치와 맞지 않는 기성가치와 제도, 그리고 관습을 강요당할 때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세계로 이탈해 간다. 이와 같은 이탈의 과정은 먼저 심리적 이탈이고 그 다음으로 지리적, 사회적 이탈이라는 소속으로부터의 이탈 현상으로 나타난다. 가출현상이나 방랑벽 및 갱집단의 형성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라. 사회적 미성숙성

가정, 학교 및 교우집단이 주된 생활환경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경험반경이 좁을 뿐만 아니라, 활동의 종류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 머물고 있다. 생산활동이나 수입활동과 같은 직업활동과 같은 직업생활이나 사교생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장면에는 경쟁의 폭이 좁아 현실감이 희박하고 사회적인 성숙도가 낮다. 거기에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이 강하

여 기성사회의 제도나 관습에의 동화성(同化性)이 약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현실생활에 적지 않은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감이나 불만감도 높기 마련이다.

Ⅲ. 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과 그 원인

1. 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의 개념

일반적으로 일탈행동이란 「한 특정사회 집단이나 체제 내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수용된 규범기준에서 벗어나는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회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식되고 공유되는 제도화된 규범을 범한 행동」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또한 비행이란 대체로 범죄로 불리는 행위와 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을 이탈하거나 불량교우, 유해장소의 출입, 숙박, 성행위 등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이며 소년으로서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형성을 뜻한다.

2. 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의 원인

가. 개체적 원인

청소년 자신의 측면에서 일탈 및 비행의 원인을 찾아볼 때 앞서 서술한 바 있는 청소년의 특질을 염두에 두고 보면 많은 원

인을 들 수 있겠으나 몇 가지 원인을 들어 본다면,

첫째, 청소년 특유의 반항심의 충만이다. 청소년은 자칫하면 흥분하고 격동하며 억압적인 권위에 반항적이며 자포자기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비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자아개념의 미형성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의 미형성과 더불어 자신의 장·단점은 물론 능력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할 때 망상에 사로잡히고 현실을 직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가치관의 미확립이다.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 사고와 행동의 불일치와 비행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네째, 소외감이다. 가정에서의 대화가 결여되고 학업성적의 부진 등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외로움을 느끼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가정환경적 원인

부모는 자녀에 대해 사랑과 이해로 지도하는 것에는 소홀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기대는 높아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은 상당히 높다. 이에 학업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방황을 하게 되고 가정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일탈과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불화의 청소년 비행도 생각할 수

있다. 부의 음주와 폭행, 이성관계의 복잡과 같은 가정화목의 부재 등은 청소년의 도덕성 결여와 자아개념과 가치관의 왜곡, 소외감에 젖게 하여 비행의식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가정의 경제적인 원인이다. 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은 욕구의 불충족과 함께 동료들에 대하여 위축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해 열등감은 심화되어간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은 반항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생활에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경제적인 부를 중시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허욕과 인간 존엄성의 경시 풍조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과잉보호와 방임으로 과잉보호된 청소년은 대체로 의존적·추종적 존재가 되기 쉽고 방임은 이와 반대의 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다. 학교환경적 원인

학교는 다양한 제층과 자아개념,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교사의 부적응면을 보인다면 어찌될 것인가?

또 대학진학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는 입시위주자 지식편중 교육은 원만한 인격형성의 전인교육을 도모할 수 없고 성적부진의 청소년들은 등교 거부 등의 학습기피 현상까지도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과밀학급도 문제이다. 충분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정보와 대화없이 개별지도는 물론 문제유발 학생의 지도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늘날 학교 또는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 갈취현상은 이와 같은 것과 무관하다고 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 사회문화적 원인

산업사회는 필연적으로 도시화 현상을 일으키며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슬럼화지역도 나타나고 커져서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다양한 각종 사회로 이루어지는 도시화는 또한 동일의식의 결여와 향락적인 감정이 산재하게 되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의한 인간관계의 소원화는 깊어만 간다. 서로의 이해관계의 마찰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비인격화와 함께 개인주의에 기인한 인간소외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이동성과 익명성의 고도화 현상이 일어나 거리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도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는 아무도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냉정한 사회로 변모하게 되어 청소년의 비행경향은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대중매체인 TV, 영화, 잡지 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문화적 목표나 사회적 가치가 도시 중심적이며 상류계층 중심적일 때 청소년에게는 현실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욕구 불만의 좌절감을 초래하게 되어 소외현상으로 인한 비행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흥기는

청소년의 공격적 성향을 자극하게 되고 모방학습의 자료가 되기도 하며 성에 대한 묘사 등의 저속화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것은 인격이나 인간생활의 가치관에 대한 감각둔화 현상을 일으키며 도덕의 혼란과 생활양식의 세속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E. Shanas와 C. E. Dunning은 Recreation and Delinquency (1942)에서 「범죄성향이 짙은 프로그램은 비행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 방법을 흉내내어 비행을 적응시킨다」고 불량 대중매체의 악영향을 설파하기도 하였다.

IV. 건전한 청소년의 지도 육성 방안

1. 가정에서의 지도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은 부모의 참된 애정과 교육의 장(場)인 가정이 그 초석이 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안정은 가정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안정은 부모들에게서 받는 풍부한 애정과 대화에서 이뤄진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이 적당한 영양과 운동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들의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정이 결손되면 형태적으로는 회복된다 해도 기능적으로는 정상

회복이 어렵고 그로 인한 악순환은 누적되어 마침내 인경의 불가역성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은 건전한 인간성과 가족관계 사회생활의 묘상으로서 양친의 관계가 화합되고 정상일 때 비로소 안정되고 통합된 인격형성이 가능하다.

건전한 자녀 육성을 위해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또 개인차를 인정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기대를 하는 태도가 요망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엄격함과 자애로움을 적절히 조화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적절히 조화되어 주어짐으로써 바른 인격이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또한 가지 고려될 사항은 자녀를 이해하고 모든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망된다는 점이다.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는 필수적이며 자녀를 이해한다는 것은 먼저 청소년기에 있는 그들의 심리적인 특징을 이해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녀의 개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미숙하지만 어른보다 더 순수하고 활기가 있다. 청소년들의 순수성과 활력은 높이 사주어야 한다. 가정에서 자녀의 능력을 바로 인식하고 능력이 상의 기대와 부모의 체면이나 허영으로 특

기의 강요나 일류학교의 입학요구로 긴장감과 압력을 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부모의 잘못된 지도가 부모와 자녀와의 거리감을 유발케 되고 또한 이로 인한 반발과 도피의 방법이 가출을 유발하고 탈선과 불량서클에의 가입을 택하게 한다.

2. 학교에서의 지도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가까운 생활환경임을 감안할 때 학교교육과 생활지도는 청소년의 탈선방지를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학생범죄의 격증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지도가 요청되고 있다.

교사는 문제학생을 발견하여 비난과 처벌을 가하기에 앞서 준엄과 친절과 애정으로 상담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지도를 할 것이 요청된다. 처벌로서만 조치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방침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없다.

학교 레크레이션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흥미있고 자극있는 분위기에서 그들의 욕구가 창조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지도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장을 원활하게 실현시켜 주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실정은 학교의 여가활동을 레크레이션이라고 부르기보다 학교교육

의 일환으로서의 과외활동이나 특별 교육활동이라는 말로 불리워지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활동, 독서, 어학과 같은 지적활동과 단체게임이나 오락 등 사회적 활동 그리고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적 활동, 운동경기 기타 스포츠 같은 신체적 활동 등이다. 이러한 활동 등은 자기의 흥미와 욕구목적에 맞도록 선택하여 여가선용의 습관을 기르는데 의의가 있고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은 레크레이션을 전전하고 유익하게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므로 학교교육에서의 여가선용의 일환으로서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 사회의 역할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기계문명의 덕택으로 여가시간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특히 여가시간을 비교적 많이 향유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실제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증가하는 결정적 요인은 그들이 지나치게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가정과 학교에 이어서 고려해야 할 생활공간은 지역사회라고 보아야 하며,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레크레이션 시설을 구비해 놓음으로써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로와 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가 없다.

사회환경이 건전화되기 위하여는 먼저 퇴폐적인 사회풍조와 사치적 풍조를 일소해야 한다. 황금만능주의나 물질주의 세계관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서는 청소년을 건전한 방향으로 지도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와 함께 유해 향락업소의 폐지 내지는 순화이다.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숙박업소의 정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유흥장, 유기장, 오락장을 청소년들의 흥미욕구에 맞는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세째로 대중매체의 순화와 건전화이다. 영화나 TV의 지나친 범죄물 또는 폭력물, 성 등 지나친 분위기 중심의 프로그램과 상류층에 편중된 내용의 지양이다.

끝으로 전통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한 장을 항시 마련하고 전통가치관의 확립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언제 어디에서나 도덕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V. 결 론

청소년은 우리 민족의 후속세대이며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진 주인공이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은 국가적으로는 민족주체의식과 국가관이 투철해야 하며, 고도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력자원이 되어야 하며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나 사회의 각종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해도 청소년 당사자, 가정, 학교, 사회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분석이 있을 때에 더욱 용이해지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先進經濟로의 길

過去 우리經濟가 한때 급격한 인플레이와 부동산과열로 고통을 겪을때와는 달리 이제 우리經濟는 安定되어 있으며 또 企業이나 家計의 經濟活動에 있어 自律性이 최대한 保障되어가고 있는 現시점에서 自己의 合理的인 經濟活動이야말로 우리經濟를 健全하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것이다.

世界 속의 우리 經濟

우리 經濟는 지난 4半世紀동안 눈부신 發展을 이룩해 왔다. 經濟開發 初期에는 不足한 国内賦存資源, 狹小한 国内市場, 貧弱한 資本에다 좁은 国土에 높은 人口密度까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障壁은 실로 巨大한 것이었다. 그러나 質 좋고 풍부한 人的 資源을 바탕으로 對外指向的인 경제개발전략을 과감히 實踐해 나감으로써 우리 앞의 障壁들을 극복해 나왔

金 昊 植
(經濟企劃院 産業2課長)

고 이제는 어엿한 先發新興工業國의 位置에 까지 우리 經濟가 발전해 온 것이다. '60年代初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2,00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고 수출도 300억달러를 넘어서서 무역 규모로 보아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VTR, 자동차 등 고급제품들이 선진국 市場을 누비고 있는 사실은 우리 經濟의 發展된 모습을 쉽게 조명해 주는 일들이다.

이러한 우리 經濟의 발전으로 '86년에는 드디어 國際收支에 있어서까지 46억달러에 달하는 黑字를 시현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 經濟의 발전에 큰 制約要因이 되어왔던 外債問題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국제수지 흑자와 함께 높은 경제성장이 物價安定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經濟가 先進經濟로 進入할 수 있는 基盤이 튼튼히 다져진 것이다.

우리 經濟의 급속한 發展에 따라 世界 各國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선진국들이 先發新興工業國으로서 우리 經濟의 위치를 높이 평가하게 됨으로써 低開發國 즉 무언가 도와주어야 하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국가로부터 이제 그들과 함께 競爭隊列에 설 수 있고, 또 동반자적인 協力關係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국가로 여기게 된 것이다. 또 우리 經濟의 地位向上은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행동반경을 넓혀 주는 파급효과까지도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經濟의 발전이 국제경제무대에서 항상 바람직한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진국들과 대등한 입장의 경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들은 自國産業保護 등을 이유로 우리의 輸出商品에 대한 規制를 날로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市場에 대한 開放壓力을 높여 나가는 등 그들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사실은 국제경제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도전은 우리 經濟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어이 극복해 나가야 할 課題이며 그들과 대등한 立場에서 경쟁해 나가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先進經濟로의 進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經濟는 그동안 길러온 능력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先進經濟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며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을 어떻게 效率적으로 活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높은 教育熱에 따라 배출되고 있는 좋은 質의 人力은 向後 우리 經濟의 持續的인 發展에 필요한 人的 資源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는 바탕이 될 것이며 '80年以後 역점을 두어 다져 온 物價安定 基盤은 우리 企業들이 경쟁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 經濟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왔던 '70年代의 無理한 重化學 投資도 이제는 오히려 우리 産業이 한차원 높은 成長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經濟의 發展方向

經濟發展의 궁극적인 目的은 國民福祉의 增大, 즉 多數國民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國民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經濟的으로는 個人의 富를 增大시키는 것이며, 이는 한편으로는 國家全體의 富를 키워나가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家全體의 富를 個人이 기여한 만큼 적정히 分배하는 것이라 하겠다.

성장과 적정한 分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눌 수 있는 전체 덩어리가 크지 않고서는 이를 아무리 잘 나눈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며 적정한 分배라는 것이 결과의 分배라기 보다는 機會의 分配이기 때문이다. 적정한 分배는 모든 부문에 있어 參與의 機會가 擴大되고 또 參與에 따라 나타난 結果에 대해서는 參與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적정한 機會의 保障에 따라 個人의 經濟活動에의 參與가 擴大되어 나가면 이는 社會的으로는 安定帶 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 두터운 中産層의 形成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성장과 적정한 分配라는 문제를 놓고서 우리 經濟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하나를 생각해 보자. 우리 나라에는 매년 50만명 이상씩 새로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할 機會를 부

여하고 經濟活動에 參與시키는 것은 適正한 分配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경제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제성장이 없이는 누구이든 50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를 놓고 보더라도 성장과 적정 分배의 문제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서 互리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課題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산업부문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가? 우리 나라의 農業部門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험한 사실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도 국민총생산 중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생산성면에서도 타부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와 농업여건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농업의 제약점은 두드러지게 되며 따라서 농업은 타부문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고 보다는 타부문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한편 서비스부문도 비록 국민총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타부문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유틸유로서 작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현실이며 운송·금융·보험·소프트웨

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부문의 주요 업종들은 발전기반이 취약하여 주요 선진국처럼 경제발전을 주도해 나가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과 基盤造成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 우리 經濟發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산업부문은 製造業部門이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어떤 한 산업부문만의 획기적인 발전으로만 전체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는 없는 것으로서 각 부문이 균형있게 발전되어 나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산업부문을 추출해 본다면 그것은 製造業인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부문에서의 활기찬 투자와 끊임없는 기술혁신은 성장과 적정분배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선진경제로의 길을 열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經濟運用的 基本理念

成長과 適正한 分配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 經濟가 先進經濟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꾸려져 나가야 하는가? 한나라 經濟運用的 흐름, 즉 國民의 최대행복을 追求해 나가기 위해 經濟를 꾸려나가는 방법은 그 나라의 政治·社会的인 國家發展理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소위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그 代表的인 對

立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조금씩 장단점을 섞어나가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對立的인 經濟體制, 즉 資本主義 經濟體制와 社會主義 經濟體制 또는 市場經濟 原理에 입각한 體制와 計劃經濟體制間的 優劣性의 論議는 이론적인 면에서도 많은 點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지난 수십년간 세계 여러 나라가 경험한 사실에 의해서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 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성취해 온 경제발전 실적을 보거나 싱가포르, 홍콩같이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추구해 온 나라와 인도·파키스탄 등 국가 주도적인 자원배분을 해 온 나라의 경제발전상태를 비교해 본다면 양체제간의 근본적인 우열은 쉽게 가려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個人의 能力과 創意를 最大限 발휘토록 하는 것이 國民의 富를 최대한 증대시키는 것이며 이는 個人의 경제활동에 있어 自由로운 의사를 존중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제를 움직여 나간다는 것으로 資本主義 경제체제의 근본 이념을 경제운용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우리 經濟運用的 基本理念은 다시 몇 가지 要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서, 이는 自律·開放·安定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틀에 의해서 經濟가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要約해 볼 수 있다.

먼저 自律이라는 要素를 생각해 보자. 經濟의 흐름에 있어서 자율을 최대한 존중한

다는 것은 個個人이 주어진 여건과 상황 하에서 최선의 選擇을 해나갈 때 이러한 個個人의 행위가 全体로서도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한나라의 경제에는 個人이 할일이 있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할일이 있어 이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경제의 자율이라 함은 개인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나 공공단체도 각기의 임무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운용에 있어 자율성은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분권화된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자율의 뒷면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개방이라는 要素를 살펴보자. 現代國家가 經濟를 폐쇄적으로 꾸려나가서는 發展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구태여 比較優位論 등 經濟理論的인 說明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만 나라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또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것이며 이러한 開放의 理念은 具體的으로는 우리 市場을 대외적으로 터놓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우리가 적극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開放의 理念은 國際社會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國內社會에도 같이 適用되어야 하는 것으로 經濟活動에 있어 參與의 制限이 없어야 하고, 國家가 보유하고 있는 有用한 정보는 國民이나 企業에게 터놓아야 하며 국

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國民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개방의 이념은 經濟活動에 있어 自由를 최대한 保障한다는 自律의 理念과도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며 자율의 이념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이라는 要素를 생각해보자. 즉 부동산투기가 만연되어 있고 물가가 극히 불안한 상황에서는 企業이나 個人은 生産的인 經濟活動에 진력할 수 없게 된다. 은행에서 얻는 이자소득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때 국민이 저축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노력보다 부동산투자나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더 많은 이익을 줄 때 기업이 기술개발, 품질향상에 매진해 나갈 이유는 없는 것이다. 안정되지 않은 경제에서 자율과 개방의 추구는 어쩌면 국민이나 기업에게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인플레이 경제 하에서는 자산이득을 저절로 획득할 수 있어 불로소득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으므로 경제의 안정은 적정한 분배에도 더없이 중요한 것이 된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은 자율과 개방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 안정은 자율과 개방을 통해 성취될 때 그 기반이 더 없이 튼튼해 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자율·개방·안정이라는 세 가지 要素는 모두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 경제운용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先進經濟實現을 위해 國家가 할일

이러한 自由經濟體制의 基本理念을 바탕으로 우리 經濟가 先進經濟로 나아가기 위해서 國家가 할일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個人과 企業의 經濟活動을 制約하는 規制와 政府介入은 그것이 市場經濟活動으로 達成할 수 없는 것이 아닌한 繼續해서 줄여나가야 하며, 國家經濟政策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民間의 意思가 충분히 反映될 수 있도록 制度的인 장치를 확충해 나가야 하고, 意思決定은 가능한한 分權化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對外開放에 있어서도 우리 產業의 성숙도를 正確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開放을 擴大해 나갈으로써 國際社會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튼튼한 體質을 갖도록 條件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安定基調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부동산투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함은 물론 적정한 통화공급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國家가 할일들을 찾아보면 수 없이 많은 課題들이 있겠지만 國家가 해야 할 이러한 모든 일들은 自律·開放·安定이라는 세 가지 基本理念이 調和롭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나라의 경제에는 시장경제 질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부문도 여전

히 남아있는 것이며 이러한 分野에서의 國家의 역할도 선진경제에 가까와 질수록 더욱 많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남들과 같이 경쟁대열에 설 수 없어 원천적으로 機會가 봉쇄된 소외된 계층에 대해 생활의욕을 북돋워 주는 일, 누구나가 부담하기 싫어하는 환경보전에 관한일 등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더욱 알차게 실현하기 위해 國家가 담당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에서도 자율·개방·안정이라는 기본이념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참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先進市民으로서 해야할일

한나라 經濟의 主体는 企業이나 家計이며 先進經濟로 나아가기 위해서 企業이나 家計가 할일도 國家의 役割 이상으로 重要的 것이다.

合理的인 思考와 判斷 하에 生産이나 消費活動을 영위해감으로써 우리의 經濟가 經濟的인 要素들에 의해 움직여져 나가도록 해야 하며 과시적이거나 전시적인 목적의 經濟活動이 성행하여 經濟外的인 要因이 우리 經濟를 左右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國家政策도 効力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企業이나 家計는 自己가 한 經濟活動에는 항상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며 經濟活動은 自己가 하고 이에 따른 責任은 國家나 他人에게 轉嫁하려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經濟는 더 이상 先進隊列에 참여할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過去 우리 經濟가 한 때 급격한 인플레이와 부동산과열로 고통을 겪을 때와는 달리 이제 우리 經濟는 安定되어 있으며 또 企業이나 家計의 經濟活動에 있어 自律性이 최대한 保障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自己의 合理的인 經濟活動이야 말로 우리 經濟를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시민은 불로소득의 機會를 턱없이 갖지 않아야

할 것이며, 企業家도 技術開發과 經濟改善이 企業의 發展이고 나라의 發展이라는 점을 알고서 公正한 경쟁상태 하에서 自己發展努力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企業이나 家計는 分野別로 担当해야 할 特別한 役割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직 주어진 條件과 狀況 속에서 健全하고 活氣찬 經濟活動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 經濟는 先進經濟로 踰달음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FLIGHT LEADERSHIP

김 명 익
(소령·제3975부대)

最近 人的 要素에 依한 飛行事故傾向을 보면 飛行技備이 아주 未熟한 訓練操縱士나 編隊長의 指揮能力 不足에 依한 것이 상당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本 譯者는 그간의 飛行經驗으로 비추어 보아 飛行事故를 未然에 防止하고 編隊員의 技備向上을 圖謀하기 爲한 實踐方向을 提示해 주는 適切한 글이라 생각되어 TA C ATTACK誌(U SAF '86年 10月刊)에서 다음의 내용을 拔萃하였다. 이 글이 모쪼록 讀者 여러분의 飛行安全과 技備發展을 爲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參考로, 다음에 紹介할 內容은 Drittenbas 美空軍 大尉의 글을 基礎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最 最近의 航空事故는 飛行編隊長의 役割을 強調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한편 僚機는 단지 네 개의 Radio Call, ; "Two", "BINGO", "MAY DAY", "Lead You're on Fire,"만을 했었음에 批해 이제 까지 많은 變化가 있었고 僚機는 더 많은 任務를 賦与받았으며 編隊內에서의 그의 位置는 한층 더 높은 것이 되었다. 그러나 編隊長은 아직도 編隊를 指揮하고 責任져야 한다는 것은 分명한 事實로 銘心해야 한다. 編隊長이 任務를 效果的으로 遂行하면서 編隊指揮를 하기 爲해선 다음 네 가지 基本 指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任務를 主管하라.
2. 計劃을 세워라.
3. 明確히 指示하라.
4. 僚機의 能力을 考慮하라.

첫째, 任務를 主管하라

編隊指揮時 發生하는 모든 것을 責任져야

한다. 始作부터 飛行編隊 構成員에게 自身이 責任者임을 周知시켜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地上에서부터 Leader 가 됨으로써 飛行을 始作하라. 正時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準備하라. 任務에 必要한 事項을 熟知하라. 繼續하여 Check In, Taxi Out, Take Off 등을 通하여 監督을 하라. 一旦 水準以下의 操作을 許諾하게 되면 任務中 繼續적으로 그러한 일이 發生될 것이다.

過去에 나는 그의 編組가 Active Run Way에 接近中에 形便없는 Frequency Change를 하여 編隊 全員이 같은 Tone 으로 整然히 그리고 遲滯없는 R/T를 할 때까지 地上에서 머물게 했던 編隊長과 飛行을 했다. 編組가 適切한 Check In을 連續으로 네 번 實施하자 離陸을 했다. 그 編隊長은 全員이 無電軍氣를 嚴守할 것을 強調하여 브리핑을 했었다. 그 編隊長은 任務를 監督하고 編隊員들이 그가 브리핑한대로 任務를 遂行하기를 願한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殘余飛行은 順調롭게 進行되었다.

둘째, 計劃을 세워라

任務遂行에 必要한 事項을 認知하고 最適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라. 万若, 作戰可能訓練部隊에 勤務하고 있다면 教科課程을 点檢하고 學生의 Grade Slip을 確認하라. 이 때, 자신과 飛行할 操縱學生의 것 뿐만 아니라 다른 教官과 飛行할 같은 編組의 學生 것도 確認하라. 操縱學生과 처음 飛行하기 前에는 그의 飛行經歷을 확

인할 수 있도록 以前의 여러 가지 Grade Slip과 Back Ground Sheet를 詳細히 살펴 보라. 戰鬪飛行大隊일 境遇, 僚機가 精銳化 訓練, 惑은 昇級訓練 課程中에 있는지 그의 訓練 Grade Slip을 確認하라. 또한 僚機를 爲한 大隊의 訓練要求量을 確認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空域이나 射擊場에서 必要한 任務를 計劃할 수 있고 歸還時 接近方法을 扨할 수 있을 것이다. 計劃을 構想하고 나면 혹판에 브리핑전에 그 內容을 作成하라. 이것이 여러 方面으로 有益하게 해준다. 우선 僚機에게 関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획된 임무의 全般의인 內容을 僚機가 쉽게 獲得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僚機가 重要한 事項을 自身の Line Up Card에 作成할 수 있는 余裕를 더 주게 된다.

세째, 明確히 指示하라.

編隊員에게 무엇을 願하는지 明確하게 이야기하라. 例를 들면 여러 가지 時刻을 브리핑했을 때 全員이 그 時刻에 編隊長이 願하는 바를 알 수 있도록 하라. 即, 集合時刻, 大隊出發時刻, 裝具着用時刻 等等……. 大隊建物을 떠나기도 전에 僚機를 잃는 것은 難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空中에서 그러한 要因을 생각해 보라. 요기로 하여금 誤解를 할 수 있는 要素를 브리핑하지는 않았는가? 万若 僚機가 당신이 意味하는 것을 推測해야만 한다면 당신의 指示는 매우 非指示的인 것이다.

非正常的인 狀況이 發生할 때는 僚機가 무엇을 해야 할지 唐慌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브리핑에는 非常処置節次를 包含해야 하나 實際의 狀況에 當面하면 処置 困難해 지기 전에 無線으로 助言을 하라. 万若 僚機가 空間正位를 喪失했거나 브리핑된 行動을 따르지 못하면 "Knock It Off"할 것을 잊지 마라.

네째, 僚機의 能力을 考慮하라

새과란 요기와 비행할 때는 簡單하고 詳細한 브리핑과 任務計劃이 順坦한 戰術을 周知시키는 것보다, 價值가 있다. 經驗이 있는 僚機라면 基本事項과 重要點만을 強調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끝나기도 전에 졸고 있을 것이다.

上記한 네 가지 基本原理는 批較的 簡單하고 記憶하기 쉽다. 그러나 適用하지 않는다면 無用之物일 뿐이다.

編隊長이 努力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編隊員들은 編隊長의 첫마디에 벌써 알아차리게 되며, 殘余任務中에 信賴性을 잃고 말 것이다.

適切한 時間과 努力을 投与하는 가운데 成功的인 任務完遂와 飛行安全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TAC ATTACK; 1986年 10月号(美 空軍刊)

防衛兵 精神戰力 強化方案

— 軍務離脫者 分析을 中心으로 —

이 글은 空軍 防衛兵을 대상으로 가장 높은 범죄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軍務離脫 범죄를 최근 7년(1977~1983)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범죄발생요인에 관한 研究分析을 통하여 억제 可能 方案을 提示한 内容이다(편집자 주).

摘 要

軍의 紀綱과 秩序를 파괴하는 犯罪行為는 效果的이고 능률적인 目標達成을 困難케 할 뿐 아니라 戰鬥力 弱化和 軍의 發展을 沮害시키며, 國民으로부터 不信感을 가져 오게 하는 등 自主國防과 國民總和에 逆行하는 原因이 되는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空軍 防衛兵을 對象으로

표 문 재

(중령·제2695부대)

가장 높은 범죄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軍務離脫 犯罪를 최근 7년(1977~1983)간의 統計를 中心으로 하여 犯罪發生 要因에 関한 研究 分析을 通하여 抑制 可能方案을 提示 하고자 하였다.

第1章에서는 研究의 方向 提示를 위하여 問題를 敘述하고, 研究 目的, 研究 範圍와 方法을 記述하였으며,

第2章에서는 1774年 베카리아(Becaria)以後 現代까지의 犯罪 原因에 대한 諸學說을 變遷과정을 通하여 歷史적으로 살펴 보았다.

第3章에서는 適応과 不適応의 問題, 그리고 젊은이들의 획득하지 못한 未來地位에 對한 理想的 願望과 現實的 願望의 隔差를 나타내는 願望隔差의 問題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第2章과 第3章을 通하여 犯罪發生의 諸原因에 對한 理論的 側面을 考察하였으며,

第4章에서는, 防衛兵 軍務離脫者에 對한 統計的 分析으로서 犯罪發生現況, 年度別, 原因別, 學歷別, 發生日 및 曜日, 離脫前 服務期間을 分析하여 軍務離脫者의 傾向을 도출하였다.

第5章에서는 防衛兵 軍務離脫의 主要 原因 및 問題點을 살펴보고,

第6章에서는 防衛兵 軍務離脫의 防止對策을 考察하여 보았다.

本 論文에서 研究 分析 結果로 導出된 空軍 防衛兵의 軍務離脫의 諸要因 및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1. 불우한 家庭環境에 의한 情緒的 不安定과 反抗의 현상.

2. 低學歷에 對한 劣等意識과 挫折感 그리고 與和에서 오는 極端的 생각에 의한 不完全한 結정.

3. 現役兵과 다른 勤務形態로서 출퇴근에 依한 無절제한 私生活과 환경적 유혹

4. 作業量과 氣合이 많은 分野에 酷寒酷暑 暑期에 月曜日에 軍務離脫이 많이 發生하며, 6個月이 지난 防衛兵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이와 같은 諸要因 및 問題點은 分析에서 나타난 表面的 側面보다는 보다 깊은 願望隔差에 의한 地位不滿의 表現이라는 側面에서의 해석이 더욱 重要함을 지적 하였다.

分析을 通하여 導出된 諸要因 및 問題點에 對한 對策으로서 防衛兵 軍務離脫 防止對策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選兵時 人性檢事를 通한 非適格者의 과감한 제거.

2. 基本軍事訓練時와 酷寒酷暑期에 作業量과 氣合이 많은 分野를 重點적으로 精神教育과 軍法教育을 실시하고, 週末과, 특히 入隊後 6個月 경과 후 강력한 再訓練 實施.

3. 身上把握 철저와 非公式集團의 적극적 活用, 그리고 소속장 또는 감독관과의 圓滑한 人間關係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4. 防衛兵에 對하여 現役兵보다 깊은 관

심을 가지고 욕구불만 요인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防衛兵 전당의 相談室 운영, 그리고 수시로 여론조사 및 願望隔差를 조사하여 人事管理에 반영시켜 주는 指揮管理의 改善,

이러한 防止对策은 各級 指導者(指揮官이나 監督官)들이 使命意識 속에 강한 實踐意志를 갖고 보다 積極的인 姿勢로 施行할 때 軍務離脫者 發生을 極小化시켜 軍의 無爲戰力 손실을 抑制하고 必勝空軍의 目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本 論文을 通하여 軍犯罪의 原因을 願望隔差의 차원에서 理解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點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防衛兵 전용의 人性檢事의 개발과 軍에 맞는 願望隔差 측정의 方法 研究에 관하여 계속적인 發展이 있기를 眞心으로 바라는 바이다.

第1章 序 論

第1節 問題의 敍述

人口의 증가와 社會의 複雜化 그리고 拜金思想의 蔓延과 人命輕視 風潮의 澎湃로 各種 犯罪가 증가함은 勿論, 知能化, 大形化, 惡辣化되어 가고 있는 現社會의 現象 속에서, 이러한 現象은 청소년층을 汚染시켜 이들의 犯罪는 날로 暴惡해지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社會의 影響을 받은 젊은이들이 계속적으로 流入되고 있으며 服務를 하고 있는 軍組織에 있어서 犯罪 予防

活動의 必要性은 너무나도 切實하다고 하 겠다.

現代 科學의 急進的 發達과 함께 오늘날의 社會는 個人의 힘보다는 組織의 團合된 힘을 重視하고 있으며 組織의 효율적인 目標達成을 위하여 組織을 움직이는 一정한 규칙(Rule)의 준수와 함께 各 소속원의 任務完遂를 絶대적으로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國家存立의 主要한 義務와 役割을 遂行하기 爲하여 形成된 軍組織에 있어서는 強力한 組織力과 規則의 수행이 絶대적으로 要求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軍은 스스로가 命命에 絶對服從하는 자세, 即 軍의 規律과 秩序를 生命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일사불란한 指揮體系를 엄수하는 自發的인 자세로서만이 部隊의 共同目標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社會의 急進的 變化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核家族制度에서 오는 家庭教育의 輕視, 學校教育에 있어서 미흡한 精神教育 등에서 緣由하는 各種 不適應 要因과, 個人的인 願望隔差¹⁾에서 오는 地位不滿을 가지고 軍隊에 流入되고 있으며, 그것이 軍生活에서의 不適應과 연결될 때, 各種 犯罪의 形態로 表現됨으로써 軍의 位階秩序를 紊亂케 하고 軍의 士氣와 戰鬥力을 低下시켜 軍에 있어서 커다란 問題點으로 拾頭되고 있는 實情이다.

神聖한 國防義務를 지니고 있는 軍人의 身分으로서 國家를 防衛하고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爲하여 軍服務를 充實히 遂行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使命感과 本分을 忘却하고 私事로운 일 때문에 犯罪를 恣行하는 者가 每年 계속적으로 發生하고 있는 現象은 無爲의 戰力損失을 가져 오고 또한 軍에 對한 國民의 不信感을 초래하고, 軍隊組織의 士氣를 저하시킴으로써 共同目標達成을 期待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軍隊組織 自体의 存立마저도 크게 위협하고 된다는 點에서 우리에게 軍內에서의 犯罪 予防活動의 心要性을 切感케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空軍의 경우 1974年부터 召集되어 運營되고 있는 防衛兵의 犯罪가 軍 全体 犯罪의 約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中에서도 軍務離脫이 63.7%를 차지함으로써²⁾ 防衛兵 軍務離脫한 者가 空軍 全体 犯罪의 39.7%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實情이다.

第2節 研究의 目的

本 論題의 研究目的은 空軍組織內에 있어서 空軍의 一員으로 服務하고 있는 防衛兵의 各種 犯罪 類型中 매년 가장 높은 犯罪 占有率(發生率)을 차지하고 있는 軍務離脫 犯罪에 對한 犯罪發生 要因을 分析하여 問題點을 도출하고 이에 對한 現實의이고 合理的인 對策을 研究함으로써 予防犯罪學的 側面에서 防衛兵의 無爲戰力 損失을 방지하

고 戰力化에 實効性을 거두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는 空軍의 일사불란한 團結力과 戰鬪力 維持에 기여하여 國民으로부터 信賴 받는 軍人像을 確立하는데 本 研究의 目的을 두었다.

第3節 研究範圍와 方法

어떤 類型의 犯罪든지 犯罪를 效果的으로 予防하기 爲해서는 犯罪의 實상을 正確하게 파악하고 그 根本原因을 철저하게 分析 評價하여 도출된 問題點에 對하여 多角的이고 효율적인 對策을 講究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軍務離脫者에 對한 研究는 軍 組織上에도 매우 重要的 地位를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별로 전문적인 研究나 文獻이 없는 상태에 있어 아직 未開拓 分野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陸軍의 韓聖東 中領이 軍務離脫者에 對한 研究를 한 바 있으나³⁾ 주로 現役兵을 中心으로 실시하여 防衛兵에 對하여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기타 軍犯罪에 對한 研究도 거의 防衛兵은 무시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現役兵보다 防衛兵의 犯罪率이 월등히 높음을 勘案하여 本 研究는 空軍 防衛兵 犯罪中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軍務離脫에 局限해서 分析하여 諸問題點을 도출하고 그 防止對策을 提示하였다.

따라서 本 研究는 犯罪 原因에 對한 既存 文獻資料를 整理하여 理論의 背景을 고

찰한 후 1977년부터 1983년까지의 7年間に 걸친 空軍 防衛兵 軍務離脫者를 統計的 方法으로 分析하고 各種 參考文獻 및 法令, 犯罪分析誌를 中心으로 文獻調査에 依해 研究 分析하였다.

第 2 章 犯罪原因에 관한 理論的 考察

第 1 節 諸學說의 變遷

犯罪에 對한 최초의 學問的인 研究가 始行된 것은 1774年 이태리 法律家 베카리아(Beccaria)에 依한 「犯罪과 刑罰」이라는 著書를 통한 哲言的 研究 結果 發表이다. 이 方法은 19世紀에 이르러 독일의 포이에르바하(Feuerbach)에 의해서 계승되었으나 犯罪行爲와 재판에 관한 것이 主된 것으로서 犯罪者의 人格에는 注重하지 않았다.

19世紀 후반에 이르러서는 잠시 一般犯罪가 自然科學의 對象으로서 취급되었으며 그 先驅者는 犯罪의 原因을 人類學的 側面에서 究明하려고 한 이태리의 롬부르조(Lombroso)로서, 그는 「우범자는 人類의 變形된 身體의 特徵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⁴⁾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生態性 犯罪原因說」을 主張하였는데 이와 같은 롬부르조(Lombroso)의 學派를 이태리 犯罪學派라고 부른다. 이태리 犯罪學派의 이와 같은 主張은 英國의 고링(Goring)에 의해 實證的인 反論을 받아⁵⁾ 그 誤診가 지적되고 있으나, 그가 犯罪者의 研究에 특히 犯罪의 原

因分析으로서 素質의 重要性을 明確하게 한 點은 커다란 功績이라고 指摘할 수 있다.

롬부르조(Lombroso)의 說에 對應되는 學派로서 같은 時代의 프랑스 犯罪社會學派가 있다. 이것은 19世紀 前半에 벨기에의 統計學者 페뜨레(Quetlet)를 中心으로한 學派로서 페뜨레(Quetlet)는 「犯罪은 各個의 現象이 아니라 集團의 現象으로서 그때 그때의 社會狀態나 經濟狀況에 依하여 變한다」고 지적하였다.⁶⁾

페뜨레(Quetlet)보다 半世紀 정도 후에 리용大學의 法醫學 教授 라카사뉴(Lacassagne)가 失業이 犯罪을 일으키는데 影響이 큰 것을 지적하여 유명하여 졌는데 이것은 리용學派 또는 環境學派라고 불리어진다.

정차 이태리學派와 불란서學派의 對立도 完化되어 롬부르조(Lombroso) 自身도 어느 정도 環境의 影響을 인정하게끔 되었으며, 獨逸에 있어서도 페뜨레(Quetlet)의 說이 修正되어 獨立한 犯罪統計學이 생겼지만 리스트(Liset)는 犯罪을 社會現象으로서 이해하는데 重點을 두어 犯罪과 刑罰을 實證科學的으로 고찰하여 犯罪의 社會的 原因의 究明과 더불어 刑罰의 社會的 效果를 강조하였으며, 1889년에는 國際刑事學協會를 창립하였다.

美國에 있어서의 犯罪學은 社會學的 傾向이 強하여 유럽에 있어서의 犯罪學과는 獨自的으로 發達하였는데 그 代表的 學者로서 「形事學原論」의 著者 서더랜드(Sutherland)와 少年 非行 研究에 있어 偉大한 功

績을 남긴 精神醫學者 헐리(Healy) 및 글루크(Glueck) 부처가 있다.

특히 美國의 犯罪學 研究中 注目할 것은 바지에스(Burgess)에 依하여 始作되어 진 「非行性 研究의 予測과 犯罪地域의 研究」가 있다. 7)

第2節 內因의 犯罪原因論

오늘날 犯罪原因에 對한 諸學說은 크게 나누어 內因의 原因論과 外因의 原因論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犯罪의 原因을 內部的·心理的 側面에서 파악하는 理論을 內因의 原因論이라고 한다.

犯罪學上 犯罪의 原因으로 各 個體가 갖는 人格上 特徵의 異常面을 강조하는 學派를 犯罪生物學派라고 한다. 이들은 個人의 人格特徵은 先天的인 遺傳素質과 發生後 成長過程에서 形成되는 人格特徵 즉, 獲得素質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그밖에 遺傳素質에 對한 研究로서 글루크(Glueck)의 「非行 少年과 無非行 少年 父母에 對한 遺傳因子 研究」와, 「受刑者와 一般人에 對한 父와 子의 犯罪相關 比較 研究」가 있다. 8)

이런 研究 等에서 밝혀진 遺傳要因 으로는 知能遲滯, 緒障, 犯罪性, 飲酒癖 等を 제시하고 있다.

1930年 하버드大學 人類學 教授 후튼(Hooton)은 受刑者에 對한 身體 部位에 對한 精密分析을 통하여 身體的 特徵이 犯罪의 한 原因이 됨을 究明하였다. 9)

獲得素質에 의한 原因으로는

첫째, 뇌 損傷으로, 이와 같은 경우 情勢 判斷 및 知的 精神作用에 障敝가 생겨 異常 人格者가 되고 감정, 欲求面의 障敝로 衝動적 行動의 傾向이 바로 犯罪性과 連結되어 沈着性을 잃어 抑制力을 상실, 폭발적인 行動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알콜과 마약中毒은 뇌의 中樞神經系를 마비, 判斷力이 흐려지며, 道德, 規範意識에 對한 高等精神作用이 후퇴하는 反面 動物的인 本能慾求의 面이 활발하게 作用, 結果的으로 犯罪의 原因이 된다고 하였다.

세째, 價值觀의 混亂 및 解弛로 인한 無政府的 狀況이 한 要因으로, 靑少年 犯罪의 증가와 그들의 價值觀 研究는 서로 相乘作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네째, 身體的 特性 및 性格에서 오는 劣等感이 나아가 各種 犯罪의 原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以上을 一般的인 內因의 犯罪原因으로 究明하고 있다.

第3節 外因의 犯罪原因論

外因의 犯罪原因으로서는 外部의 自然條件이나 社會的 環境은 물론이거니와 순간적인 感情의 자극 또는 壓迫的인 緊張에 依하여 本來의 善良한 人間이 平常時의 性質과는 달리 犯罪을 犯하는 경우를 말하며, 또한 個人的 素質을 가지고 있는 者에게 犯罪行動으로 이어지도록 相乘作用을 해주는

要因 등을指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各學說은 多樣하지만 大略 간주리면 다음과 같다.

1. 프랑스의 法學者이며 社會學者인 타르드(Tarde)는 模倣理論에서 一切의 社會關係, 犯罪現象 등은 模倣(Imitation)의 結果라고 主唱하여 居住者나 웃사람, 都市 혹은 農村 등 特히 大象傳達手段(Mass-Communication)이 發達한 現代에서 實際로 일어나고 있는 現象이라고 주장한다.⁹⁾

2. 美國의 쿨리(C. H. Cooley)와 토마스(W. E. Thomas)의 社會解體理論에 의하면 갈등 등으로 倫理, 直德觀念의 互解現象 등이 기인한다는 것이다.

3. 셀른(T. Sellen)에 依하여 主張된 文化葛藤의 理論¹⁰⁾(Culture Conflict Theory)에서는 併合, 移民, 社會構造의 變化 등에서 오는 葛藤이 犯罪要因을 誘發한다는 것으로 特히 美國社會에서의 注目할 만한 理論이다.

以上과 같은 基礎理論에 의거 犯罪의 外因的 原因을 살펴보면 社會的 環境이 犯罪에 미치는 原因으로 重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다시 分析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政治的 原因으로, 政治體系와 政治家와 一般人과의 關係, 政治的 不安定, 信賴度 등을 들 수 있고,

둘째, 經濟的 原因으로, 貧富의 差, 景氣變動, 職業의 種類와 認識度 등이고

셋째, 文化的 原因으로, 都市化 傾向, 居

住者의 集團化, 家族制度, 思考方式 差異等.

네째, 宗教的 原因으로, 이것은 宗教가 追求하는 價值觀에 따라 既存秩序에 對한 挑戰이 될 수 있다는 前提로, 通俗的으로 似而非 宗教의 狂信者들의 自己本位 行動을 行하는 것 등이다.

다섯째, 家庭原因으로서, 家族制度, 父母의 離婚, 가족구성원의 職業 등에 대한 不滿等

여섯째, 學歷, 學校教育과 서클 活動 등에 依한 계층 구성원의 問題 등을 들 수 있으며,

일곱째, 異性問題 등이다. 이것도 學歷이 낮은 층에 더 많이 犯罪가 發生한다.

其他로 계절에 따른 犯罪와 居住地別 犯罪 要因 즉, 商業地帶, 工業機關地帶 등에 따른 犯罪 등으로, 이러한 犯罪 要因은 現代科學의 發達과 아울러 매스콤(Mass-Communication)의 發達로 한층 多變化되고 복잡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第3章 適応과 願望隔差

第1節 適応과 不適応

適応(Adjustment)이란 生物學的으로는 實在의 要求에 對한 順應(Adaption)이며, 心理學的으로는 個體의 欲求 解消過程으로서 欲求를 滿足시키기 위해 障礙物을 克服하려는 努力이 包含된 過程이다. 피아제(Pia-

get)는 「同化(Assimilation)에 調節(Accommodation)을 통해 適應을 해 나간다」고 하였다.

웬만한 障礙物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人性에 따라 各其 欲求挫折 忍耐性(Frustration Tolerance)이 다르기 때문이다. 適應이란 우리에게 賦課된 諸般 要求를 處理해 나가는 過程이며 人間의 重大한 外的 要求는 그의 社會環境에서 惹起된다고 하였다. 11)

軍集團 環境이 一般 社會集團 環境과 다른 特徵은 年齡 階層이 비슷하고 環境이 같으면서 命令의 服從, 規律의 遵守 등이 個人에 따라서 差異가 있을 수 없다는 硬直性이다. 12)

또한 프로이드(Freud)는 同一視의 過程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면 강한 自我(Ego)가 形成되어 原慾(Id)과 超自我(Super Ego)를 圓滿하게 統率함으로써 現實的인 欲求充足과 目標設定이 可能하여 適應된 生活을 할 수 있는데, 原慾(Id)이 自我(Ego)보다 강하면 每事를 衝動的으로 處理하여 자칫 犯罪行爲를 하는 不適應 行動을 하기 쉽고 超自我(Super Ego)가 自我(Ego)보다 강하면 障礙度を 誇張되게 느끼거나 강한 罪惡感 때문에 否定과 反抗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軍生活 不適應者라 하면 크게 볼 때 精神病 集團과 犯罪行爲를 저지른 性格 障礙者 集團으로 볼 수가 있다. 精神病은 人格의 崩壞와 行動의 障礙를 일으켜 自己 自

身을 돌볼 수 없을 뿐 아니라 他人과 軍集團에도 害를 끼치게 되기 때문이고, 性格 障礙者에 대하여 글라스(Glass)는 性格 障礙者들 中 戰爭時에 軍生活을 成功的으로 마친 경우가 80%라고 報告하였으나, 平時의 適應에는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第 2 節 願望隔差

現代 젊은이들의 독특한 行動과 態度, 특히 그들의 熱望과 挫折, 統合과 疎外意識, 그리고 同調와 逸脫行動을 理解하기 위하여 社會學者를 위시한 社會科學者들은 젊은이, 특히 자기 自身の 社會 經濟的 地位를 획득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未來地位에 대한 理想的 願望과 現實的 願望의 隔差, 즉 願望隔差(Aspiration Discrepancy)를 重要한 要因으로 研究하여 왔다.

願望隔差는 한 個人이 모든 條件이 理想的인 時에 그가 願望하는 社會的 地位와, 現實的 制約條件을 고려하여 그가 期待하는 社會的 地位 사이의 隔差를 지칭한다.

이같은 願望隔差의 개념은 많은 研究者(Stephenson, 1957; Gist & Bennet, 1963; Turner, 1964; 韓完相, 1966)들에 의해 그 개념이 제기되거나 研究되어 왔다.

스티븐슨(R. N. Stephenson)은 理想的인 未來職業 또는 未來職業을 理想的으로 願望하는 것을 「Wish」 現實的인 未來職業 또는 未來職業을 現實적으로 願望하는 것을 「Plan」이라고 구분하였으며, 13) 韓完相은 理想的인 願望을 「希求」, 現實的인 願望을

「期待」라고 定義하면서, 「願望隔差二希求一期待」라고 說明하고 있다. 14)

쇼트(J, F, Short)는 이 願望隔差를 「地位不滿」(Status Discontent)이라고 表現하면서 地位不滿은 靑少年의 集團的 非行을 유발시키는 要因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는 靑少年들의 理想的 職業과 現實的 職業間의 隔差를 平均해서 「地位不滿度」를 算出해 볼 때, 경찰기록에 나타나는 非行의 빈도와 이 地位不滿도와는 正的인 關係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15)

黃禎奎는 우리 나라의 中學生, 高等學生, 大學生의 願望隔差를 檢査하여 高校生의 願望隔差가 가장 높고, 다음이 中學生이며 가장 願望隔差가 낮은 것이 大學生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16)

高校生이 願望隔差의 갈등, 즉 理想과 現實의 地位隔差感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集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黃禎奎는 이와 같은 原因을 大學生은 이미 父母의 源泉地位¹⁷⁾도 高校生보다 높으며, 大學에 在學하고 있다는 事實이 理想的 狀況에서 도달할 수 있는 願望地位도 비교적 可能性 있게 지각하고 있으며, 中學生이 大學生보다 願望隔差가 높은 것은 아직 願望地位에 對한 知覺에 비해 자기가 期待하는 現實的 制約條件을 심각하게 知覺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發達段階의 特性에 기인한다고 해석하면서, 高校生의 意識構造가 극히 跛行的, 否定的, 逸脫的인 原因으로서 高校生의 願望隔差가 높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18)

社會가 開放化, 産業化 및 都市化 됨에 따라 既存의 억눌렸던 個人은 願望을 갖게 되며 더욱이 發達段階로 보아 가장 변화가 많고 또한 外部條件에 대한 저항이 많은 靑年期는 이같은 願望이 커지기 마련이다. 社會移動의 可能性이 큰 社會 속에 있으면서 靑年期의 發達의 特征까지 加勢하게 되는 靑年期는 언제나 자기의 父母가 차지한 源泉地位보다 더 높은 地位를 가지려는 願望이 커져서 이러한 終着地位¹⁹⁾에 對한 과대한 要求가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願望에도 불구하고 각 個人이 처한 여러 가지 現實的 상황은 制約條件으로 등장한다. 父母가 형성한 源泉的 地位가 制約條件일 수도 있고, 自己의 能力이나 기회 제공이 制約條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같은 願望隔差는 한 個人이 자기를 보는 自我概念이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現實的 制約을 認知하는 觀點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父母의 社會的 地位에 의해 결정된 源泉的 地位에 對한 個人의 해석이라는 象徵的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한 理想的 條件 아래서의 願望이 갖는 의미가 복합되어 있어서 靑少年의 意識構造를 보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軍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將兵들의 逸脫行動이라고 할 수 있는 犯罪를 分析함에 있어 主로 不適應의 측면에서만 解析을 하고 있는 實情이다.

軍도 이제는 軍犯罪의 發生原因을 適応과 不適応의 問題라고만 解析하는 한계를 탈피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차원인 願望隔差의 개념에서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必要함을 切感하면서 願望隔差의 軍隊 心理学 研究에의 도입을 主張하는 바이다.

第 4 章 空軍 防衛兵 軍務離脫 者에 對한 統計의 分析

第 1 節 軍務離脫罪의 意義

軍組織의 전형적 특징은 嚴格한 階層的 構造이다. 卽 軍은 上命下服의 嚴格한 位階 秩序를 形成하고 軍指揮權에 거의 絶對的인 權威가 保障되며 구성된 전원이 指揮者의 命令에 따라 혼연일체적으로 行動할 것을 要請한다.

軍組織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嚴格한 계층적 질서와 규율은 일상의 教育訓練을 通하여 공고히 되고 유지, 진작되는 것이나 그것을 維持하는 最後的이며 가장 強力한 手段은 刑罰이라고 하는 實際的 手段이다.

軍刑法은 이와 같은 刑罰의 制裁手段으로 하여 軍의 組織과 질서 및 기강을 維持, 보전함을 그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²⁰⁾

軍人이라 함은 戰時와 平時를 莫論 하고 軍에 服務하는 者를 달하고 있다.²¹⁾ 따라서 防衛兵도 軍人에 準하므로 당연히 軍刑法 被適用者로서 만약 犯罪行爲를 犯하였을 경우에는 軍刑法을 適用받게 되는 것이다.

軍務離脫이라 함은 軍人의 身分으로서 軍務(職務, 勤務, 用務 等を 包含한 一切의 軍에 對한 服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部隊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復歸하지 않음으로써 成立되는 罪이다.²²⁾

여기서 軍務忌避의 目的이란 兵役을 忌避하려는 目的은 勿論이고, 具體的 職務를 忌避하거나 特定任務를 回避하려는 意思를 包含하며, 一時的으로 忌避할 意思이든 永久的으로 忌避할 意思이든 이를 不問하게 되며, 特定 또는 不特定 期間內에 歸隊할 決心下에 離脫하여도 軍務忌避의 目的은 充足되는 것이다.

軍務離脫罪를 犯한 者는 다음과 같은 區別에 依하여 処罰된다.

1. 敵前인 경우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の 징역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일 경우는 5年 以上の 유기징역
3. 其他의 경우는 3年 以上 10年 以下의 징역
4. 本 罪의 未遂犯도 処罰한다²³⁾로 定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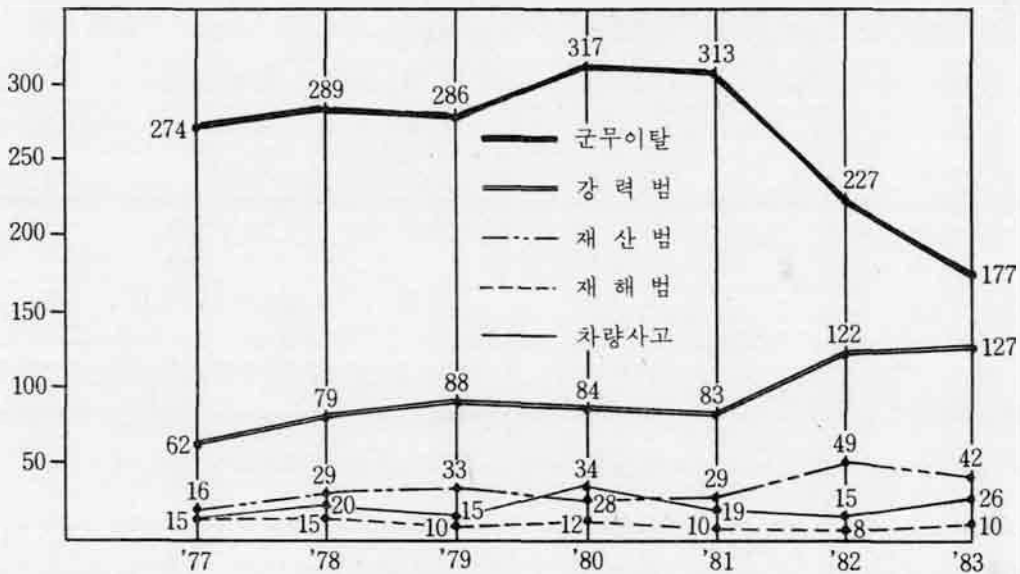
第 2 節 犯罪 發生 現況

空軍防衛兵(以下 防衛兵이라 호칭한다)의 年度別 犯罪發生 件數는 圖表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期間中(1977~1983) 계속 높은 率의 犯罪가 發生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最近 7年間 每年 平均 422名씩 犯罪가 發

〈圖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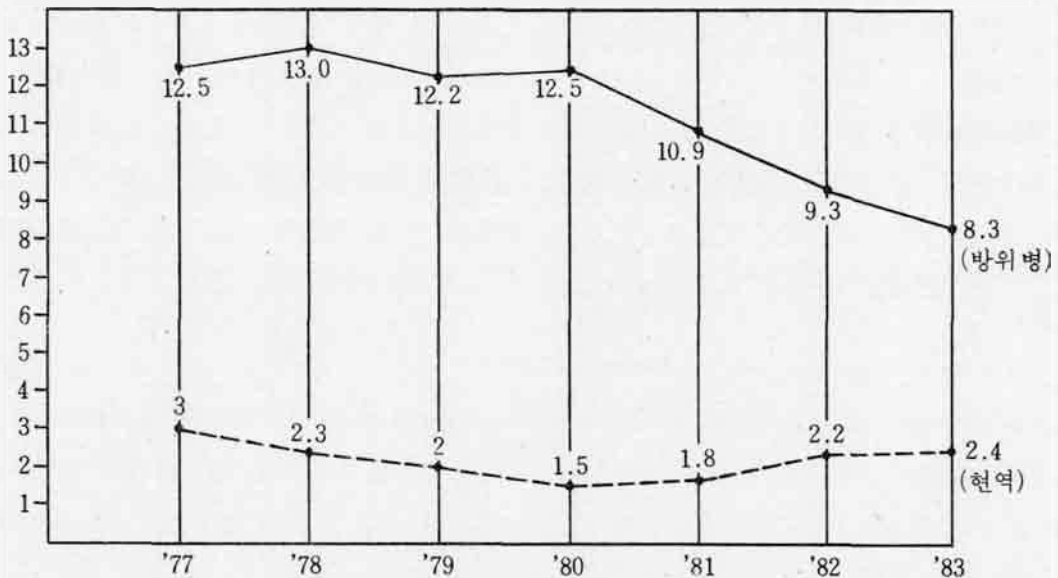
年度別 防衛兵 犯罪發生 現況



(資料：空本憲兵監室 犯罪分析誌 參照)

〈圖表 2〉

年度別 現役과 防衛兵 犯罪指數 比較



(資料：空本憲兵監室 犯罪分析誌 參照)

생되었으며 이는 '77년이래 '80年度까지 增加 추세를 보이다가, '80年度를 頂点 으로 下向趨勢를 나타내어 '83年度에는 '80年度에 비해 犯罪者 數가 93名, 범죄지수는 凶表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4.2나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犯罪指數(CI: Crime Index)는

$$\text{犯罪指數} = \frac{\text{犯罪人數} \times 100,000}{\text{單位部隊兵力} \times \text{期間日數}(365)}$$

의 공식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單位部隊 兵力을 10萬名으로 가정할 때 그 部隊에서 하루에 發生하는 犯罪人數를 表示한 數值이다. 24)

이와 같이 防衛兵의 犯罪가 '80年度부터 감소하게 된 原因을 「犯罪分析誌(1984)」에서는 「각급 指揮官들의 관심있는 勢力과 戰場병의 투철한 使命感, 靑任意識을 갖고 努力한 結果」라고 간략하게 分析하고 있으나, '74年度부터 소집되기 시작한 防衛兵들이 점차 強化되는 軍法教育과 선배 防衛兵들에 對한 처벌 사례를 보아옴으로써 스스로 自重한 結果라는 點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防衛兵들의 犯罪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凶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期間中 防衛兵의 犯罪가 現役兵의 7~8 倍에 달하는 높은 犯罪率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犯罪가 감소된 '83年度에도 凶表 1에 나타나듯이 총 382件의 犯罪件數

를 보임으로써 現役兵 犯罪件數의 약 3.5 倍, 空軍 全體 犯罪件數의 65.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軍務離脫은 期間中 가장 높은 發生率을 나타내고 있으며(平均 62.4%), '83年度에는 防衛兵 犯罪件數의 4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第 3 節 軍務離脫者의 原因別 分析

防衛兵의 軍務離脫에 對한 原因別 分析을 凶表 3에서 復歸者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지난 7年間 總 1,920名 中에 家庭事情이 783名(40.8%), 個人事情이 403名(21%), 部隊가 607名(31.6%)이며 其他 127名(6.6%)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시 細分하면 家庭事情에서도 貧困이 593名(75.7%) 個人事情에서는 身病이 187名(46.4%), 部隊生活에서 오는 問題中에는 근무 艱중이 362名(59.6%)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表面化되고 있는 것을 볼 때, 防衛兵들의 軍務離脫 動機는 表面的으로는 家庭에서의 貧困과 成長期에 充分한 營養供給의 不足에서 오는 個人 身病, 現役과는 다른 勤務形態(환경)와 劣等意識에서 惹起되는 勤務厭症에서 主로 起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動機를 통하여 表面的 解析에만 그치지 말고, 그들 스스로 防衛兵이라는 現實的 制約條件과 理想的 願望과의 乘離 속에서 느끼는 地位隔差感의 갈등에 의한 逸脫行動으로서의 解析도 並行하여야 할 것이다.

〈圖表 3〉

軍務離脫者 原因別 分析

원 인	가정사정			개인사정							부대				기타
	빈곤	불화	우환	금욕	신병	이성	부채	염세	명정	유홍	근무	처벌	인사	사적	
											근무	처벌	인사	사적	127
											염증	우려	불만	제재	
인	593	150	35	4	187	124	66	5	11	5	362	198	16	3	
계	783 (40.8%)			403 (21%)							607 (31.6%)				(6.6%)

(資料：空本 憲兵監室 犯罪分析誌 參照)

다시 말해서 願望隔差를 가진 젊은이들이 挫折感 속에서 주변인간화²⁴⁾하여 자기가 속해 있는 계층이나 家族에게 별로 愛着을 못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第 4 節 軍務離脫者 學歷別 分析

軍務離脫者에 對한 學歷別 發生 分布는 圖表 4에서와 같이 總 1,880名 中國卒이 813名으로 全體의 43.2%로서 가장 많은 比

〈圖表 4〉

軍務離脫者 學歷別 分析

구 분	대졸	대재	대퇴	전문대졸	전문대퇴	고졸	고퇴	중졸	중퇴	국졸	국퇴	계
인원	3	3	5	3	1	180	53	459	354	813	6	1,880
비율 (%)	0.16	0.16	0.27	0.16	0.05	9.6	2.8	24.4	18.8	43.2	0.32	100

(資料：空本 憲兵監室 犯罪分析誌 參照)

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中卒 459名 (24.4%), 中退 354名 (18.8%) 順으로 大部分 低學歷者에 많이 偏重되어 全体의 86.5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大都市에서 근무하는 空軍의 특성상 中卒 以下の 低學歷者는 全体 防衛兵의 20 %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勘案할 때 이러한 現狀은 個人들의 知的 水準 低下에서 오는 諸般 遵法精神의 缺如와 現實 適應能力과 判斷能力의 不足에서 起因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中卒, 中退의 順으로 偏重되어 있다는 것은 中卒, 中退의 學歷 소지자가 社會生活를 경험하는 청년기에는 대개 高等學校 在學生 정도의 知的 水準을 갖는다고 볼 때, 黃禎奎 교수의 우리나라 學生中 高校生이 가장 願望隔差가 높다는 보고와 연결되어 매우 흥미있는 연관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第5節 軍務離脫 發生 月別分析

防衛兵의 軍務離脫을 月別로 살펴보면 圖表 5에 나타나듯이 1月, 7月, 8月, 9月에 偏重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것은 酷寒 酷暑期 기후에 따른 結果로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피서철이란 점을 생각해 볼 때, 社會의 避暑 行樂에 처하여 相對的 貧困意識과 疎外意識에서 오는 地位隔差感에 의한 跛行的 行動으로 解析하는 것이 보다 精確한 分析일 것이다.

第6節 軍務離脫 發生 曜日別 分析

圖表 6에 의하면 軍務離脫이 月曜日에 제일 많고 週中에 점차 줄어들다가 週末이 지나면 다시 증가함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週末 휴무로 因하여 精神的 해이감에서 起因된다고 볼 수 있다.

〈圖表 5〉

軍務離脫 發生 月別分析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 원	202	74	106	64	169	149	244	223	234	127	169	119
비 율 (%)	10.7	3.9	5.6	3.4	8.9	8.0	12.9	11.9	12.4	6.7	8.9	6.4

(資料: 空本 憲兵監室 犯罪分析誌 參照)

〈圖表 6〉

軍務離脱 發生 曜日別 分析

요 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인 원	111	500	314	267	201	218	269
비율(%)	5.9	26.6	16.7	14.2	10.7	11.6	14.3

(資料：空本 憲兵監室 犯罪分析誌 参照)

〈圖表 7〉

軍務離脱者 특기별 分析

특 기	통신	무장	도장	전공	토목	운전	경비 (차량)	취사	인쇄	행정	경비	하역	이발	시설	기타
인 원	32	11	10	22	43	74	20	318	22	85	701	85	32	392	22
비 율 (%)	1.7	0.5	0.5	1.2	2.3	3.9	1.0	16.9	1.1	4.5	37.3	5.1	1.7	20.9	1.1

(資料：空本 憲兵監室 犯罪分析誌 参照)

第 7 節 軍務離脱者 특기별 分析

期間中 軍務離脱을 恣行한 防衛兵을 특기 별로 분류해 보면 圖表 7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15개 특기분야 중 경비, 시설, 취사의 3분야에 完全히 集中(75.1%)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勿論 防衛兵들의 특기별 人員 비율도 무시할 수 없는 變數가 되겠지만 반드시 소속원이 많은 集團에서 많은 犯罪가 發生하는 것은 아니라는 觀點에서 볼 때 人員의

비율보다는 특기의 特性이 보다 妥當性 있는 變數가 될 것이다.

경비 특기 防衛兵은 헌병대대에 소속되어 주로 夜間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바, 기지방어의 重要性과 근무시 實彈의 支給에 따른 높은 軍紀를 要求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氣合이 음성적으로 尚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夜間에 근무를 한다는 특수성과 높은 軍紀의 要求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이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圖表 8〉

軍務離脫者 離脫前 服務期間 分析

월	별	1월 이내	2월 이내	3월 이내	4월 이내	5월 이내	6월 이내	1년 이내	1년 이상
인	원	239	269	235	210	181	164	484	98
비	율(%)	12.7	14.3	12.5	11.2	10.4	8.7	25.7	5.2

(資料：空本 憲兵監室 犯罪分析誌 参照)

시설 특기 防衛兵은 주로 部隊의 모든 作業을 全擔하고 있는 바, 항상 계속되는 部隊 各 분야의 作業 要求에 따라, 遲延되지 않고 作業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過重한 作業량에 시달리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취사 특기 防衛兵은 새벽 食事준비 부터 밤 늦게 뒷처리까지 계속적으로 作業을 실시함으로써 他防衛兵에 비하여 근무 時間面에서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이 세 특기의 共通點은 過多한 作業量 또는 軍紀 確立을 위한 氣合에 따라 肉體的, 心理的으로 항상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點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軍務離脫을 恣行하는 防衛兵의 75%가 過多한 作業量과 또는 氣合에 시달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第 8 節 軍務離脫者 離脫前 服務期間 分析

圖表 8에서와 같이 軍務離脫者의 離脫前 軍服務期間을 살펴보면 服務 1年 以內가 總 1,880名 中 484名으로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軍에 入隊하여 2個月 以內가 27%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服務를 6個月 以上 해오면서 정신 자세가 解弛해지고 勤務厭症에서 오는 自己 갈등으로 因한 問題로 볼 수 있으며, 2個月 以內 많이 나타나는 것은 生活의 急變化에서 起因되는 犯罪 發生 動機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第 5 章 空軍 防衛兵 軍務離脫 諸要因 및 問題點

第 1 節 諸要因 및 問題點

前章에서 防衛兵 中 軍務離脫者에 對한

최근 7年間('77~'83)의 통계자료를 分析하여 본 結果 第2章「犯罪原因의 諸學說」, 第3章「適應과 願望隔差」에서 고찰하였던 것처럼, 家庭原因, 學力, 階級, 理性問題 등의 外部的 要因과, 욕구불만, 근무염증, 不適應 等 內在的 原因, 그리고 願望隔差 等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各 節別로 도출된 分析結果를 토대로 要約하면 防衛兵 軍務離脫의 諸要因 및 問題點을 다음과 같이 提示할 수 있다.

첫째, 불우한 家庭환경에 의한 情緒的 不安定과 反抗의 현상을 指摘할 수 있다.

防衛兵은 召集對象者의 選兵指針에서, 家庭환경은 財産이 없는 者 即, 生計維持가 困難한 者로 되어 있다.²⁵⁾ 이와 같이 防衛兵은 選定되는 條件부터가 가정환경이 貧困하므로 대다수의 防衛兵이 入隊前에 家族의 生計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와 같은 家庭의 貧困이 軍務離脫의 커다란 原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人間性格의 基本形成은 成長期에 형성되기 때문에 人間이 成長하는 過程에서 가정환경은 後天的인 性格形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重要한 要因이 된다 하겠다.

특히 幼年期에서 青年期에 접어들면서부터는 自我意識과 反抗의인 現狀이 나타나며 情緒的으로 자칫 不適應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또한 性格이란 個人의 環境에 對한 固有한 適應을 規定하고 있는 精神的, 物理的 組織으로서, 個人에 內在하는 역동적 體制

라고 한 點으로 이루어 性格은 어려서부터 그 基本的 양상은 形成되나, 青年期의 여러 가지 外的 자극조건의 特徵에 따라 結實한 다는 意味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⁶⁾

따라서 青年期의 感情的 生活 時代에 화기애애한 家庭에서 精神的인 家庭教育을 받고 勤實한 集團에서 圓만한 人間關係를 形成함으로써 安定된 性格으로 結實되어야만 健全한 人間으로 성숙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相對的 缺乏意識 속에서 나타나는 願望隔差의 問題는 性格形成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變數로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學歷水準이 낮을수록 軍生活의 使命感이 缺如되고 軍生活의 適應에 어렵다는 點을 들 수 있다.

軍務離脫者의 大部分이 低學力者로서 正常的인 教育을 받지 못함으로써, 社會에 對한 좌절감과 열등의식에서 오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生活習慣에 젖어서 特殊한 軍隊組織의 生活에 適應力이 缺如되어 自然히 자주 軍務에 厭症을 느끼게 되므로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一時的인 身上의 어려움이 닥치면 이를 克服할 수 있는 意志力이 상실되고 恒時 無知에서 오는 극단적인 생각과 自己 나름대로 不完全한 決定을 내리게 된다.

軍人이라는 身分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克服할 수 있는 강인한 精神力과 使命感으로 이를 能히 克服해야 함에도 不拘하고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고,

軍務離脱이라는 엄청난 犯法行為를 공공연하게 恣行함은 價值判斷 基準의 모호함에서 오는 結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低学力者가 느끼는 願望隔差는 모든 業務를 판단하고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認定하면서부터 始作된다는 점을 勘案할 때 단순한 가치판단 겉여보다는, 보다 심각한 心理的 挫折, 욕구불만에 서부터 惹起되는 願望隔差라는 점에서 보다 深刻性이 있다고 하겠다.

세째, 防衛兵의 服務形態에서 오는 問題점을 들 수 있다.

防衛兵은 現役과 달리 服務期間을 實勤務 365일로 하며 依家事인 者는 服務期間을 180일로 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27)

또한 防衛兵은 야간 또는 주간에 해당 勤務를 마치면 매일 退勤하게 되므로 無節制한 私生活 即, 飲酒行為와 不健全한 異性關係, 交友關係 등에서 오는 自由放任의인 解放感을 만끽할 수 있게 되어 規則的인 生活面에서 離脱할 수 있는 환경적인 誘惑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다.

勿論 國防予算을 별로 消費하지 않는다는 利點은 있겠으나, 營內에서 寄居하지 않으므로서 이에 따른 많은 복합적인 要因들이 犯罪를 發生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외에도 계절로는 酷寒酷暑期에, 作業量 및 氣合이 많은 分野에, 요일별로는 月曜日에, 服務期間으로는 6個月에서 1年 사이의 防衛兵이 軍務離脱을 많이 恣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80年 以後 犯罪率이 계속 강하 추세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계획된 각종 教育의 結果로서 매우 고무적인 結果라 하겠다.

軍內에서 實施되는 各種 教育에 대하여 教育의 效果를 立證해 주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結果라 확신하며 계속적인 教育의 必要性을 切感하는 바이다.

第6章 防衛兵 軍務離脱者 防止對策

前章에서 防衛兵 軍務離脱의 諸要因과 問題점을 考察하였는 바, 그와 같은 諸般 犯罪發生 要因의 問題점에 對한 實効性 있는 對策을 講究함으로써 軍務離脱者 發生을 최소로 억제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이 될 것이다.

이에 防衛兵의 軍務離脱 發生을 積極 防止하기 爲한 對策을 提示하고자 한다.

第1節 選兵時 非適格者의 과감한 除去

大部分 防衛兵으로 選兵되는 者는, 우선 풍부한 資源에서, 우수한 資源을 一次的으로 現役으로 選兵한 後에 잉여자원으로 選兵한다는 점을 勘案할 때 事故의 潛在要因이 많이 內包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生計維持에 決定的 支障을 받고 있는 환경에 있는 者, 社會에서 前科事實이 있거나 無節制한 私生活로 性格上 缺陷이 顯저한

者, 그리고 身體的으로 결함이 뚜렷한 資源은 防衛兵 選兵時 果敢하게 事前에 除去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各部隊別 所要資源에 따른 地域別 充員資源이 不足한 관계로 100%우수자원을 選兵할 수 없는 實情이다. 그렇지만 不適格者로 인정되는 資源을 充員했을 경우 오히려 犯罪發生으로 因한 많은 예산과 人力의 浪費를 招來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自明한 結果일 것이다.

따라서 選兵時 다소 充員이 덜 되더라도 非適格者를 과감히 除去하는 것을 主張하는 것이다.

非適格者를 찾아내는 方法으로서는 選兵時 人성검사를 實施하여 個人의 各種 不適應 要素와 願望隔差를 파악함으로써 事前에 軍生活 不適格者를 제거하는 方法을 권하고 싶다.

現在까지는 人員充員에 급급한 나머지 防衛兵 選兵時에는 전혀 人성검사를 實施하지 않고 있으나, 예전데 空軍 士兵 選拔時 實施하고 있는 MMPI(Minesota Maltipsychic Personality Inventory) 검사를 防衛兵에게도 擴大 實施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다.

다만 MMPI검사는 適性 및 人性檢査이지만 精神醫學的 側面에서 제작되었다는 點을 勘案하여 非適格者 判定은 반드시 檢査 후 面담을 통해서 精確히 해야 한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좋은 方法은 防衛兵 選拔에 맞는 새로운 人性檢査를 개발하여 不適應 要素와

願望隔差를 파악하는 것일 것이다.

第2節 계속적인 精神教育

精神教育의 重要性和 必要性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특히 防衛兵 軍務離脫은 大部分 犯罪者 自身の 불투명한 人生觀, 價值觀, 精神的인 취약성에 기인하므로 集團的 또는 個人的인 精神教育은 防衛兵의 올바른 精神姿勢 確立을 위하여 絶對적으로 必要하다고 본다.

따라서 基本軍事訓練時 철저한 精神教育과 軍法教育을 통하여 軍人으로서의 責任感과 자부심을 鼓吹하여 悤으로서, 동기를 부여하여 使命感을 가지고 軍務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특히 軍務離脫이 많이 發生하는 酷寒酷暑期에 作業量과 氣合이 많은 分野에, 그리고 週末에 집중적 반복적으로 實施하여, 6個月 경과 후 다시 한번 基本軍事訓練時와 같은 強力한 再教育을 시킨다면 새로운 각오로 軍務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第3節 圓滑한 人間關係 유도

오늘날 西歐文物의 流入에 따른 影響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 儒敎思想이 아직도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 韓國人은 精神的 유대관계에 의해 맺어진 非公式的 組織을 통하여 同質意識을 느끼면서 相互依存하고 있다.²⁸⁾

따라서 防衛兵 各自에 對한 철저한 身上 把握은 勿論, 防衛兵 集團內의 非公式集團

을 정확히 把握하고 적극적으로 活用함으로써 團結力을 強化시키고 犯罪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소속장과 감독관이 소속 防衛兵과 平素 人間的인 유대를 強化하고, 特히 기간 將兵과의 体育大會나 회식 등을 통하여 긴밀한 유대관계를 形成할 수 있다면 防衛兵들의 소외의식을 막아줄 수가 있을 것이다.

第 4 節 指揮管理 改善

防衛兵들은 軍隊組織社會에서 가장 낮은 階層에 屬해 있으면서 恒常 劣等意識이 充滿한데다 늘 人格的인 待遇를 갈망하고 있지만, 現實的으로는 그들의 欲求를 充足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不滿要因을 發산할 突破口가 自己의 苦悶事項과 結合되었을 때 事故를 予想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防衛兵을 指揮統率해야 하는 各級 指揮官과 監督官들은 問題解決을 위한 부단한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現役兵보다도 더 많은 關心과 指導力을 發揮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상 防衛兵들의 욕구불만 要因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해줌으로써 防衛兵들에게 安定感을 심어주고, 防衛兵 전담 相談室을 운영하고, 수시로 여론조사 및 願望隔差를 조사하여 그 結果를 人事官理에 반영시켜 주는 등의 指揮官理 改善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第 7 章 結 論

大韓民國의 國軍은 國家와 民族史의 正統性을 守護하기 爲한 國民의 軍隊이다.²⁹⁾ 故로 우리 軍은 國家와 民族을 爲하여 忠誠을 다하며, 國土를 防衛하고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함을 그 使命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³⁰⁾

그렇다면 이러한 目標아래 現役과 防衛兵의 区分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다같은 空軍의 一員으로서 防衛兵의 位置도 現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構成員으로 軍의 規範과 秩序를 파괴하는 諸般 犯法行爲는 國民總和에 해를 끼치게 되고 우리의 自主國防에도 逆行될 뿐 아니라, 軍의 戰鬥力과 士氣를 低下시키는 勿論 國民으로부터 不信感 招來와 前科者의 증가로 혼탁한 社會로 치달는 不幸한 結果가 發生될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1977년부터 1983년까지 7年間에 걸쳐 空軍에서 發生한 防衛兵의 各種 犯罪 中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軍務離脫 犯罪에 對해서 統計的 分析和 文献研究를 通하여 諸般 問題點을 導出키 爲하여 여러 方向으로 考察한 結果

첫째, 防衛兵 選兵時 人性檢事를 實施하여 不適應 要素와 願望隔差를 파악하고 非 適格者를 과감히 除去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基本軍事訓練時 철저한 精神教育과 軍法教育은 勿論이고 혹한 혹서기, 作業量

및 氣合이 많은 分野에, 週末에 집중적으로 精神教育을 實施하고 특히 6個月 경과 후 강력한 再教育을 시키는 등 지속적인 精神教育 實施와,

세째, 非公式集團의 파악과 活用, 그리고 소속장 감독관의 人間的 유대 강화를 통한 원활한 人間關係의 유도,

네째, 指揮管理의 改善으로, 現役兵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防衛兵 전담 相談室을 운영하며 수시로 여론조사 및 願望隔差를 조사하여 人事官理에 반영하는 중첩적인 管理方案을 提示하였다.

以上에서 提示한 네 가지 代案을 各級

指揮者들은 보다 積極的인 자세로 實行할 때, 空軍의 目標達成에 암적인 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는 防衛兵의 軍務離脫 發生率을 極少化시켜 有形的 無形的 戰力 損失을 最大限으로 抑制하여 必勝空軍의 目標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本 論文에서 提示한 代案을 보다 實質的으로 施行하기 爲하여는 防衛兵 전용의 人性檢事 개발 問題, 願望隔差를 정확히 檢査할 수 있는 軍의 실정에 맞는 檢査의 개발 問題 등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研究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관심있는 장병들의 보다 깊은 研究를 바란다.

註 解 釋

- 1) 理想的 願望과 現實的 願望의 隔差, 이 願望隔差에 對해서는 第2章에서 별도로 節을 편성하여 자세히 說明한다.
- 2) 空本현병감실, 犯罪分析誌, 1984. p. 39.
- 3) 韓聖東, 「軍犯罪의 特性과 그 予防에 관한 研究」, 1981.
- 4) 愼鎭撓, 刑事學, 法文社(서울), 1977. p. 83.
- 5) 上揭書, p. 84.
- 6) 鄭榮錫, 刑事政策, 法文社(서울), 1979. p. 41.
- 7) 현병감실, 予防憲兵, 陸軍本部, 1980. p. 65.
- 8) 愼鎭撓, 前揭書, p. 85.
- 9) 上揭書, p. 84.
- 10) 金箕斗, 刑事學原理, 민중서관(서울), 1957. p. 63.
- 11) 서봉연, 性格과 適応, 益文社(서울), 1976. p. 13.
- 12) 김광일 外, 「陸軍 精神分裂症 要因에 對한 몇 가지 통계적 관찰」 現代醫學, Vol. 6. 1967. p7.
- 13) 韓完相, 現代社會와 青年文化, 法文社(서울), 1973. p. 125.
- 14) 上揭書, pp. 127~128.

-
- 15) 上掲書, p. 126.
 - 16) 黃禎奎, 「韓國學生의 意識構造」, 고려대, 1979. pp. 27~28.
 - 17) 父母의 地位.
 - 18) 黃禎奎, 前掲論文, pp. 30~66.
 - 19) 젊은이 自身이 願望하는 地位, 이 終着地位의 兩面性(理想的, 現實的), 즉 願望의 兩面性에
서 願望隔差가 나타난다.
 - 20) 曹斗鉉外, 軍法概說, 日新社(서울), 1977. p. 27.
 - 21) 國軍組織法, 第4條 1項.
 - 22) 軍刑法, 第30條.
 - 23) 曹斗鉉 外, 前掲書, p. 126.
 - 24) 空本헌병감실, 犯罪分析誌(第16号), p. 8.
 - 24) 두 集團 이상에 自己 存在의 근거를 두면서도 어느 집단에서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을 뜻하며, 파크(R. E. Park)가 처음 使用한 이래 많은 '社會學者들이 역할갈등, 정신착란
사회적 개혁 등의 현상을 다루면서 이 개념을 活用하고 있다.
 - 25) 兵役法, 第1條.
 - 26) 大檢察庁, 犯罪自書, 1969. p. 86.
 - 27) 空規 39-18, 空軍防衛召集兵 人事管理, 第31條 1項. 1978.
 - 28) 鄭載學, 「軍隊組織에서의 人間關係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1983. p. 2.
 - 29) 軍人服務規律, 法曲出版社(서울), 1982. p. 2127.
 - 30) 前掲書, p. 2127.

参 考 文 献

1. 김광일 外, 「육군 精神分裂症 要因에 對한 몇 가지 통계적 관찰」, 現代醫學, Vol. 6. 1967.
2. 金箕斗 訳, 刑事學 原理, 민중서관(서울), 1957.
3. 慎鎭撓, 刑事學, 法文社(서울), 1977.
4. 서봉연, 性格과 適応, 益文社(서울), 1976.
5. 鄭榮錫, 刑事政策, 法文社(서울), 1979.
6. 鄭載學, 「軍隊組織에서의 人間關係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서울), 1983.
7. 曹斗鉉 外, 軍法概說, 日新社(서울), 1977.
8. 韓聖東, 「軍法罪의 特性과 그 預防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서울), 1981.
9. 韓完相, 現代社會와 青年文化, 法文社(서울), 1973.
10. 黃禎奎, 「韓國學生의 意識構造」, 고려대학교(서울), 1979.

-
11. 国防部, 国軍精神教育教本, 国防部, 1981.
 12. 軍人服務規律 및 国軍組織法, 법전출판사(서울), 1982.
 13. 空軍憲兵監室, 犯罪分析誌(1977~1983)
 14. 大檢察庁, 犯罪白書, 1976.
 15. 空規 39-18, 空軍防衛召集兵 人事官理, 1978.
 16. 兵務庁, 防衛選兵指針, 1979.

軍 精神戰力の 強化方案



崔 正 石

(在郷軍人会 安保指導委員)

1. 軍 精神戰力 強化의 必要性

軍의 存立價值는 한 마디로 国土防衛와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함에 있다. 이를 위해서 軍은 現代科学化된 武器體系의 최대 활용과 이를 管理運營하는 人的 資源의 확보를 위해 온갖 탐구적인 노력과 경제적인 투자를 경주하고 있으나 고도무기체계의 발명과 그 운용관리도 궁극적으로는 「人間」의 專門의 技術과 精

神이 그것을 다루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수반되는 軍人精神, 軍 精神戰力 문제야말로 軍의 궁극적 목적인 「戰爭에서의 勝利」라는 면에서 극히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戰爭의 勝敗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人間이며, 또 人間の 行動은 精神力에 의하여 지배되는 만큼 戰爭에서 강인한 精神力의 重要性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기에 불란서 「나폴레옹」은 “戰爭에 있어서 精神力과 物質力의 比率은 3 : 1로 精神力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프리시아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도 “物質戰力이 나무로 만든 칼집이라고 한다면, 戰神戰力은 그 칼집 속에 들어 있는 날선 칼날과 같은 것이다”라고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人的 要素이며 이 人的 要素는 곧 精神여하에 따라 優劣이나 強弱이 左右되기 때문이다.

軍 組織의 強한 힘은 外面의 整合性에 의해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軍 組織 內面에 흐르고 있는 精神力 - 上官은 部下를 위해

서 自己의 生命을 버리고, 部下는 上官의 命令에 복종하여 자기의 生命을 바쳐 忠誠하고, 동료 상호간에는 生死苦樂을 같이 하는 運命共同體의 戰友愛를 바탕으로 人間 結束을 이루는 精神力 - 인 것이며, 이 精神力이야 말로 軍 組織의 참된 生命이며, 이 生命을 통해 軍 組織은 成長 發展하고 軍事力은 向上되는 것이다.

이러한 精神力이 戰友를 하나로 만들고, 나아가서 軍 組織의 一體的 概念에 도달시키는 全體的 連帶意識인 것이다. 여기서 진정으로 고립했던 여러 분자들이 교류하고 하나로 이루어져 軍隊의인 것의 強함이 정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精神武裝, 精神的 結束없는 軍隊를 생각할 수 없고 軍隊없는 國防과 戰爭의 勝利를 생각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하고 촉진할 精神戰力의 強化活動 없는 軍隊의 存立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軍人精神의 涵養과 戰爭의 勝利를 위해서는 軍 戰力의 源泉의 活力素인 軍 精神戰力 向上을 위해 모든 活動을 體系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2. 精神戰力의 意義

일반적으로 戰力의 構成要素로서 ①物質的 要素, ②人的 要素, ③指揮管理的 要素, ④技術體制的 要素, ⑤精神的 要素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이는 物質戰力, 人的 戰力, 技術戰力, 精神戰力 네 개의 범주로 대별

할 수 있고 이들 요소는 相補的 關係에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一點에 求心의 合一을 이룰 때 최대의 戰力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戰力構成의 要素 중, 물질적 요소를 육체에 비유한다면, 精神戰力은 육체에 깃든 생명과 같은 것으로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인 바 戰勝要因으로서의 精神戰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孫子は 兵法 「始計」편에서 精神戰力을 「道」라고 정의하고, 그 뜻은 「百姓(또는 兵士)들로 하여금 웃사람과 뜻을 함께하여 그와 더불어 生死를 같이 함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는 것」(道者令民與上同意 可與之死可與之生而 不畏危也)이라고 하였다. 즉 指揮官을 中心으로 上下가 一致 團結해서 戰爭에 임하는 軍의 團結力과 죽음을 超克하는 死生觀을 궁극적인 精神戰力으로 보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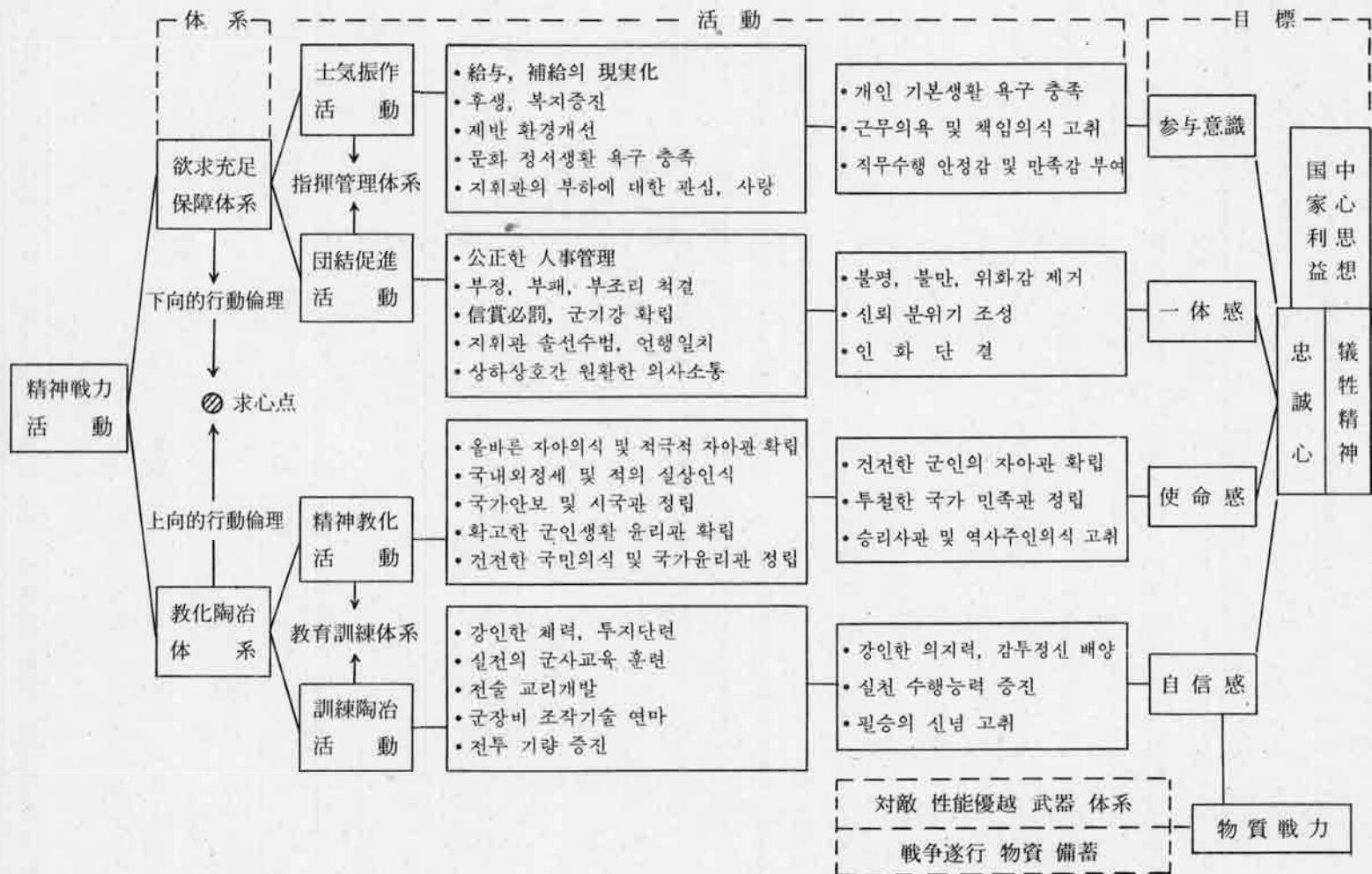
따라서 精神戰力이란, 全 將兵이 指揮官을 求心點으로 生死를 같이하는 運命共同體의 結束을 이루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軍人精神을 바탕으로 왕성한 士氣와 必勝의 信念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를 完全無缺하게 完遂할 수 있는 戰勝目標 指向的인 精神活動의 總和로서 組織化된 無形戰力이다.

3. 精神戰力의 活動體系 및 內容

精神戰力은 휘하장병이 지휘관의 의도를 받들고 부대 임무완수를 위하여 지휘관을

精神戦力 活動体系

도표



비롯한 全將兵이 共同運命體 意識을 가지고 生死苦樂을 함께할 수 있는 信賴와 사랑의 마음으로 결집되어 있을 때 최고도로 발휘되는 것인데, 이러한 精神戰力의 活動領域과 活動體系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도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士氣振作活動을 통한 個人 基本生活 安定感 充足 및 積極 參與意識 鼓吹

둘째로, 團結促進活動을 통한 信賴霧困氣造成 및 一體感 形成

셋째로, 精神教化活動을 통한 軍人의 健全한 自我觀 및 國家觀 確立과 使命感 增進

넷째로, 訓練陶冶活動을 통한 必勝의 信念 및 自信感 堅持 등으로 이 네 가지 活動이 서로 相補的 關係에서 調和와 均衡을 이루었을 때 精神戰力은 效率的으로 強化, 維持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活動 中에서 士氣振作活動과 團結促進活動은 國家나 軍 當局에서 將兵들에게, 또는 軍內에서 指揮官, 上級者가 部下에게 베풀어 주는 下向的 欲求充足 保障 行動倫理體系로서 指揮管理의 側面에서 力點을 두어야 할 活動이고, 精神教化活動과 訓練陶冶活動은 將兵 個個人이 個人的 欲求와 利益을 초월하여 國家利益 中心에 最高의 價值를 설정하고 國家와 軍에 대해서 使命感을 가지고 自發的으로 忠誠心을 발휘하는 上向的 誠實奉仕, 適應 行動倫理體系로서 教育訓練의 側面에서 力點을 두어야 할 活動이다.

도표에 제시한 活動과 目標는 各 個別活

動과 그에 연결된 目標에만 單一 直線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活動이 여러 개의 目標에 또는 한 개의 目標가 여러 개의 活動에 연계되어 複合的으로 또는 總體的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團結促進活動을 통해 一體感 形成 뿐만이 아니라 參與意識과 使命感, 自信感을 일깨워 줄 수 있고, 使命感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도 精神教化活動 뿐만이 아니라 사기진작활동, 단결촉진활동, 훈련도야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다. 다만 도표에 제시한 精神戰力活動과 目標 연결체계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活動이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因果的 相關關係가 가장 깊은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各 活動에 포함된 구체적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 士氣振作活動은

(1) 봉급, 수당, 연금 등 개인 기본 생계 수단이 되는 제반 급여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제반 軍事補給品의 質과 量의 수준을 현실화하고

(2) 장병 개인 및 가족들에 대한 병원진료, 교육, 면세점 운영, 관사건립 등 후생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하고

(3) 내무반 및 근무현장 등 제반 생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업무능률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兵營內 제반 환경의 개선에 힘써야 하고

(4) 장병의 취미, 오락, 관심, 희망사항을

軍 組織生活과 目標에 융화할 수 있도록 하고 文化, 情緒生活 欲求를 充足할 수 있는 제반 여건조성 정비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5) 指揮官이 部下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部下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겪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하여 장병 개개인에게 기본생활 욕구 및 여건을 충족시켜 安定된 生活을 영위케 하고, 軍人으로서 國土防衛의 名譽心과 귀속 감을 고취함과 동시에 部隊勤務意慾 및 責任意識을 증진시켜 직무수행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부여하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軍 組織에 대한 積極的 參與意識을 발휘할 수 있도록 積極적 活動을 전개하여야 하고

나. 團結促進活動은

(1) 進급, 보직, 전속, 전역, 포상, 직업 보도 등 公正한 人事管理를 통하여 불평, 불만, 자학적 열등감, 무관심, 위화감을 제거하여야 하고

(2) 軍 運營 全般에 걸쳐 부정, 부패, 부 조리를 단호히 척결해 나가야 하고

(3) 성실하고 충직한 근무자세로 자기 직 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자기 발 전의 최선의 길이요, 보상을 받는 첩경이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信賞必罰을 공 정히 함과 동시에 軍 秩序, 命令體系를 확 고히 하여 軍 紀綱을 확립해야 하고

(4) 지휘관이 부하 장병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고 어려운 일, 지시한 일은 솔선수범

하고 言行一致의 行動倫理를 실천하여 부 하 장병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5) 상급자 또는 동료 상호간에 어떠한 문 제도 상의하고 면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 성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명령지시, 건의, 진언 등 上意下達, 下意上達의 意思傳達이 일상분란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 반 조치를 취하여 軍에 대한 불평, 불만, 위화감을 제거하고 상하 상호간 신뢰분위 기를 조성하고 人和團結을 이룩하여 軍 組織에 대한 一體感을 전지할 수 있도록 積 극적 活動을 전개하여야 하고

다. 精神教化活動은

(1) 장병 개개인이 自己 人間存在의 價値 와 尊嚴意識을 느끼게 하여 올바른 自我意 識을 전지케 하고 「하면 된다」는 信念과 「나도 할 수 있다」는 積極的 自我觀을 확 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2) 한반도 주변정세와 적의 기본전술, 전 략 및 실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에 대비 한 우리의 각오와 정신자세를 확립하도록 하여야하고

(3) 國內외의 현실적 상황 하에서 國家生 存權 主体者로서의 國家安保의 必然性 인 식과 時局觀을 정립하여 국가시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도적 실천을 결행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고

(4) 「爲國獻身 軍人本分」의 軍人의 責任 倫理를 자각하고 선현, 애국지사, 명장들의 忠義精神을 전승함과 동시에 퇴폐한 사회

윤리 질서를 작성 제도하여 軍生活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케 하고 祖国守護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여 軍人의 生活倫理觀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5) 祖国의 勝利史觀과 發展 未來指向의 인 위대한 조국건설 의지를 고양하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견지토록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가건설에 스스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健全한 國民意識 및 國家倫理觀을 정립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교화활동을 전개하여, 國家와 民族을 위하여 身命을 바칠 수 있는 國家生存權 主体者로서의 歷史的 主人意識을 고취하고, 國家安保에 대한 責任的 使命感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라. 訓練陶冶活動은

(1) 體鍊, 운동경기 등을 통하여 강인한 체력, 투지를 단련하고 단체 연대의식과 협동심, 전우애를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2) 實戰과 같은 피나는 軍事教育訓練을 강화하여 임전태세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3)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전술교리를 개발하여 어떠한 전쟁양상에도 적응하고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戰爭遂行能力을 증진시켜 주어야 하고

(4) 兵器를 포함한 군 장비의 조작기술을 연마하여 장비의 성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5)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對敵優位의 戰鬥技術을 배양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 강한 의지력과 감투정신을 배양하고 實戰遂行能力을 증진하여 百戰百勝 必勝의 信念을 고취함과 동시에, 어떠한 전쟁상황 하에서도 敵을 패배시키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自信心을 견지할 수 있도록 부단히 훈련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自信心 견지에 관련된 또 하나의 요소로서 敵에 대해서 성능이 월등히 우월한 무기체계의 확보와 전쟁물자를 풍부하게 비축하고 있을 때 自信心을 더욱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다.

4. 精神戰力 活動의 強化方向

精神戰力強化를 위한 네 가지 활동은 個別 獨立的으로 전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서로 相補的 關係에서만 效率性과 能率性을 提高할 수 있으므로 綜合的으로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精神戰力強化를 기대할 수 있다.

위 네 가지 활동 중 어느 하나의 활동만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다른 활동을 소홀히 하면 精神戰力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지 아니하며, 戰勝의 결정적 요소로서의 精神戰力의 全人的 發揮은 기대하기 곤란하게 된다.

예를 들면 士氣振作活動에 치중하여 개인의 급여, 후생,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 정서생활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근무의욕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직무수행의 안정감 및 만족감을 부여하여 軍組織에 대한 參與意識을 높였다 하더라도 도표에서 제시된 단결촉진활동, 정신교화활동, 훈련도야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배려를 하지 않으면, 人和團結을 통한 軍組織에 대한 一體感 形成, 軍人으로서의 國家民族的 使命感, 戰場에서의 必勝의 信念과 自信感을 일깨워 줄 수 없기 때문에 精神戰力의 效率的인 強化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精神教化活動과 訓練陶冶活動을 최대로 전개하여 健全한 軍人の 自我觀과 透徹한 國家·民族觀을 확립하여 軍人으로서의 使命感과 忠誠心을 제고하고 自信感을 일깨워 주었다 하더라도 사기진작활동, 단결촉진활동을 소홀히 하여 개인적인 기본생활 욕구와 안정감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軍에 대한 불평, 불만, 위화감을 제거하지 못하고 인화단결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정신전력의 강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精神戰力強化 活動은 사기진작활동, 단결촉진활동, 정신교화활동, 훈련도야활동을 동시에 유기적 상관관계에서 調和와 均衡을 이루면서 全軍的 次元에서 統合的으로 전개되어야 實効性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軍 精神戰力活動의 核心은 어디까지나 指揮官이고, 指揮官

을 求心點으로 정신전력활동이 体系的으로 展開되어야 한다.

그러나 精神戰力活動은 指揮官이나 上級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軍組織員 全員에게 같은 強度의 責任과 役割이 동시에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계층과 직위에 따라 精神戰力活動의 質과 量, 범위와 영역이 다소 다를지라도 統合的 體系에 따라 指揮官을 求心點으로 自己의 役割과 責任을 誠實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精神戰力活動은 통합적 실효성 보장의 相補的, 同時的 展開活動과 相互求心的 作用, 行動倫理의 必要性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精神戰力活動」 하면 「精神教化活動」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精神戰力活動=精神教化活動」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의 국가적 현실에서 사기진작활동, 단결촉진활동 등은 국가재정과 물질적 조건, 부대임무 및 목표의 우선순위, 군 지휘관리상의 어려움, 각 계층간의 이해와 갈등, 관심과 욕구의 차이 등 많은 제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정신교화활동 및 훈련도야활동은 다른 정신전력활동보다 비교적 제한 요소를 받지 않고 노력만 하면 인간의 잠재적 정신능력과 기술, 자신감, 사명감을 최대로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精神教化 및 訓練陶冶活動을 통해 國家的 使命感과 透徹한 精神力, 自信感을 갖게 되면 사기진작 및 단결촉진활동의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上向的 誠實, 奉仕適応 行動倫理에 우선적 가치를 설정하고 個人的, 物質的, 環境的, 社會的 條件의 결핍

과 불만을 극복하고 個人的 私的인 欲求와 利益을 초월하여 公的이고 國家的인 利益과 發展을 위해 희생심과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精神戰力活動」하면 「精神教化 및 訓練陶冶活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현실적 제약조건에 따라 운위되는 것이고, 효율적인 精神戰力 強化活動은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활동, 즉 士氣振作活動, 團結促進活動, 精神教化活動, 訓練陶冶活動 등이 동시에 統合的, 求心的으로 이루어졌을 때 戰勝의 要

素로서의 精神戰力の 實効性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적 현실과 軍의 현실을 살펴 볼 때, 사기진작활동과 단결촉진활동에 포함된 내용과 여건들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많은 시간과 제약조건이 따르므로 이들 조건의 충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精神教化 및 訓練陶冶活動에 보다 力點을 두어 軍人精神을 일깨워 주고 軍 精神戰力을 強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強力한 对戰車 Helicopter

— AH-64A Apache 对 Mi-28 Havoc —

黄 正 和 訳

(4급 공군본부)

世界 最強의 对戰車 Helicopter로서 登場한 AH-64A Apache 生産이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다.

美陸軍의 主力이 될 機種이며, 여기에 對抗하듯이 蘇聯도 MI-28 Havoc 를 生産하고 있다. 이와 같이 最強의 Heli란 어떤 Helicopter 인지 美蘇 兩機種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AH-64A 開發 경위

AH-64A의 Maker인 Hughes社は 1985年 8月, McDonnell Douglas社에 併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McDonnell Douglas AH-64A라는 名称이 부여되어 있다.

1973년에 提出된 美陸軍의 AAH計劃(Ad-

vanced Attack Helicopter)에 의거 Bell 및 Hughes 兩會社가 開發契約을 締結한 후 計劃 1段階 開發에 着手하였다. Hughes社は Y-AH-64를 1975年 9月 30일에, Bell社は Y-AH-63을 同年 11月 22일에 各各 처음으로 飛行시켰다.

Hughes社は 1段階에서 3台的 原型을 製作 開發한 結果 1976年 12月 10日 Hughes社의

YAH-64가 選定되었다. 그러는동안 1976年 2月, 그때까지 予定되어 있던 Tow 對 戰車 Missile을 바꾸어서 Rockwell社가 開發하고 있던 Hellfire를 採用하였던 것이다.

AH-64 採用을 決定한 1976年 12月부터 予算 3億 9,000万 Dollar로 56個月에 걸친 第二段階 開發計劃에 옮겨져서, Weapon System, 機體開發 및 改修를 하게 되었다. 實用段階에 이르자 1982年 3月 26日에 量産을 決定, 生産計劃이 樹立되었다. 4月 15日 제일 처음 割當量 11台的 生産契約이 우선 체결, 初号機가 1984年 1月 26日에 納品되었다.

当初 모두 472台的 計劃이 536台로 增加되어 그것이 444台로 減量되었다가, 1982年末 다시 515台로 增加되었으나 最終的으로 는 1984년에 675台로 決定한 것이다,

1982年 11台, 1983年 48台,

1984年 112台, 1985年 138台,

1986年 144台, 1987年 144台,

1988年 78台로 契約할 予定으로 되어 있다.

美陸軍 외에 美海兵隊도 採用을 檢討하고 있고, NATO諸國과 사우디 아라비아,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購入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特히 이스라엘에서는 空軍 操縱士로 하여금 3週間동안 이 機種에 對해서 評價를 進行하고 있다. 輸出을 하게 되면 1,000台는 무난히 超過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強力한 Helicopter 란

AH-64A는 最強의 對戰車 Helicopter 라고 부르고 있으나, 強力한 Heli란 무엇인지 對戰車 攻擊 Heli에 限해서 考察해 보자. 攻擊 火器가 強力해지면 同時에 防禦도 強力해지며, 火器의 運搬手段, 즉 Helicopter에 對한 攻擊力도 強力해진다는 것은 槍과 방패의 理論으로서 過去도 現在도 變하지 않고 있다. 對戰車砲에서 有線誘導 Rocket로 바뀌고, 지금은 雷射誘導를 하며, 地上發射에서 空中發射로 發展되고 있다. 第二次大戰 當時와는 달라서 戰車의 装甲을 어느 程度 두껍게 하여도 Rocket의 火力에 견딜 수 있는 装甲을 만든다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에,

- 實彈은 装甲을 貫通할 必要없이 爆發된 集中火焰으로 적은 구멍을 뚫어 그 속의 搭乘員을 燒死해 버리면 된다.

- 戰車의 車體는 그대로 두고 對空防禦 / 攻擊火器를 強化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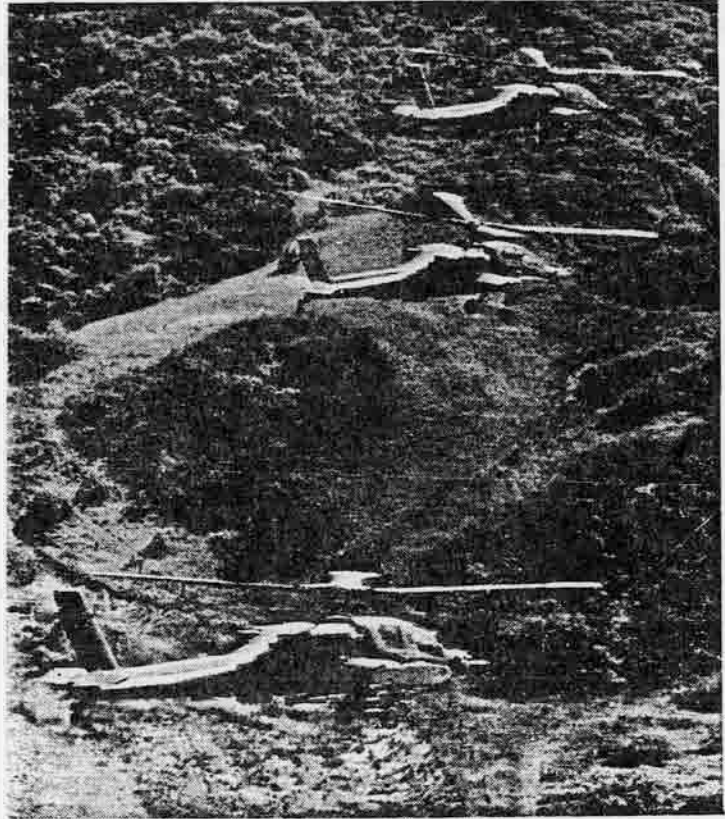
每分마다 4,000發로 發射하는 Radar 照準 多聯裝 對空自走砲, 歩兵이 어깨에 메고 發射하는 對空 Missile 등이 出現하고 있다. 이와 같은 戰場에서 對 戰車 Heli에는 다음과 같은 性能이 要求된다.

◎ “先手必勝의 原則” 敵보다 먼저 相對를 發見하여 축자이라도 빨리 必殺의 先制攻擊을 하는 것.

◎ Survivability (生存性)

先制攻擊：對戰車戰에서는 戰場까지 飛行

Apache는 地形을 따라
(追從) 飛行할 수 있으
며 사진은 低空飛行 Te-
st中인 原型機 YAH-64



하여 主로 사람의 肉眼으로서 敵을 探索하
게 된다. 따라서 發見되지 않고 敵 探索이
可能할 것과, Radar를 避하기 위해서 低空
飛行.

- NoE(Nap of Earth) / 地形追從飛行,
小型, 高速, 잉여馬力の 効力으로서의 急速
한 上昇, 急速한 運動性이 優秀할 것.

또 火器에 있어서는 命中率이 좋고 發射
率 및 回避性이 좋을 것, 迅速하게 할 수 있
다면 自動照準 및 迅速한 發射, 敵의 火器
의 射程圈밖에서 攻撃(Survivability) 등 그
와 같은 点에서 조금이라도 優秀한 Heli가強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爲해서는 自動化, 表示手段의 研

究와 Pilot의 負擔輕減을 위한 手段이 講究
되어야 할 것이다.

Survivability : 약간 被彈되어도 破壞되지
않는 튼튼한 機體構造로서 Pilot 保護와, 敵
에게 쉽사리 發見되지 않을 것(앞에서 말한
諸條件 및 赤外線의 放出이 적을 것) 등이
要求된다.

● Mission 要求

想定하고 있는 戰場은 Europe에서 地上戰
을 主로하고 있으나 中東에서의 用途로서도
假想하고 있다.

그래서 要求되는 Mission 要求性能은 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夜間 및 暴風雨를 포함한 全天候性, 前方視程 1/2哩(800m), Ceiling(視程高度) 200ft(61m), 극히 限定된 視界에서 戰場으로 飛行하여 攻擊 후 歸還이 可能할 것.

◎ 降雨中 結氷狀態下에서도 運用이 可能할 것.

◎ Hellfire 對戰 Missile 8發, 30mm彈320發을 積載한 狀態에서 高度 4,000ft(1,220m) 氣溫 95°F(35°C)에서 450ft/分(229m/秒)의 垂直 上昇率이 있을 것, 巡航速度는 145kt(269/h), 作戰時間 1時間 50分.

◎ 42ft/秒(12.8m/秒)의 垂直落下 速度에서 地面에 衝突하였을 境遇 Pilot의 安全이 95%를 確保할 수 있을 것(이 速度는 8.35m의 높이에서 自由落下에 該當된다.)

◎ 機體構造는 12.7m彈이 命中되어도 Mission 稼動이 不可能해서는 아니되며 最大 23mm彈에도 견디어야 할 것.

◎ 疲勞寿命은 4,500時間 以上 모래바람이 부는 環境下에서도 450時間의 運用이 可能할 것.

● 性能과 裝備

그와 같은 要求 Mission에서 實際의 機體는 다음과 같은 性能과 裝備의 機體가 되었다.

性能 : Europe 戰線을 假定한 Hellfire 16發과 30mm彈 1,200發을 積載한 狀態에서 垂直 上昇率 850ft/分(4.32m/秒), 巡航速度 142kt(263km/h, 作戰時間 2.5時間.

앞에서 要求한 條件은 — 4,000ft/95°F는 中東戰線을 假定한 것이지만 垂直 上昇率은 450ft/分인데 反하여 1,300ft/分(6.6m/秒)으로 約 3배의 上昇率을 가지고 있다. 巡航速度는 要求한대로 145kt, 作戰時間은 1時間 50分이다.

높은 上昇率은 이 機體의 큰 長点이며 標準大氣(海面上 15°C)에서는 2,500ft/分(12.7m/秒)에 達하여 Turbo Prop機와 對等하다.

機敏한 運動性을 賦與하기 위해 機體 Rotor System도 튼튼하게 製作되어 있으며 +3G~-1G의 運動을 할 수 있다. -G의 運動性은 本機體의 큰 長点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옆 方向(橫側) 및 後方으로 45kt(83km/h)의 飛行을 할 수 있다.

攻擊火器 :

◎ Rockwell社製 AGM-114A Hellfire Laser 誘導式 對戰車 Rocket彈 最大 16發.

◎ Hughes(McDonnell Douglas)社製 M230 E1 30mm Chain Gun, 發射速度 625發/分, 最大 携帶彈數 1,200發.

◎ 2.75in(70mm) 伸長翼式 Rocket彈, 19發 Pod 最大 4個 計 76發.

◎ Martin-Marietta社製 TADS/PNVIS Target Acquisition and Designation Sight(目標捕捉識別 Sight)/Pilot Night Vision Sencer(夜間透視 Sencer))

◎ Survivability 裝置(Passive Radar 警報 Receiver, 赤外線 Jammer, Chaff Dispenser, Radar Jammer)

空對空 Missile 등의 對空 防禦火器는 積



強力한 火力으로서 先制 攻撃을 할 수 있으며 또 生存性이 높은 것이 Apache 의 長点이다.

載하고 있지 않으나 날개 끝에 Sidewinder 를 裝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機體, 構造

胴體 길이 14.68m, Rotor 直徑 14.63m, Mission 重量 6,552kg의 약간 큰 中型 Helicopter로서 Engine은 1,696shp Turbo Shaft 2基, 約 3,400馬力이다. Cockpit는 前後 Tandem의 複座로서 앞 席이 Copilot, 뒷 席이 正 Pilot席이다.

前後席은 Canopy와 같은 透明 “아크릴” 板의 “플라스틱” Barrier로서 칸막이로 되어 있다.

側面 Canopy는 처음에는 平面으로 되어 있었으나 二段階에서 둥글게 하였다.

胴體 兩側으로부터 이어나온 Sponson 같은 것은 電子機器의 收容 Bay와 같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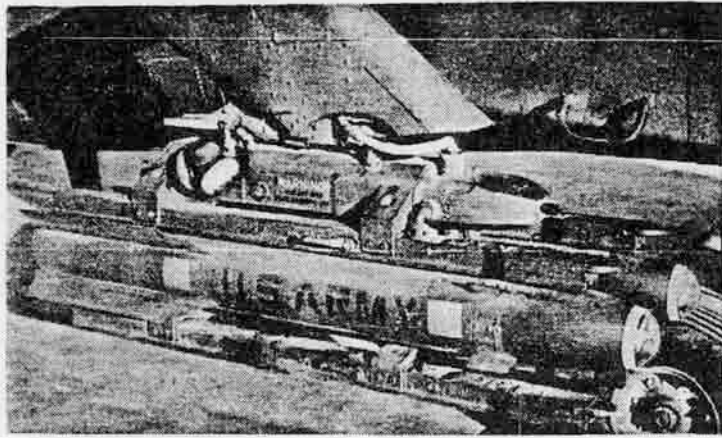
있으며, 二段階에서 延長되어 졌다.

機首 先端에 있는 Senser는 機體左側이 TADS Scanner, 右側에 PNVS Senser Scanner, 上部에 PNVS 赤外線 Scanner 등의 Senser가 集中的으로 裝備되어 있다.

Main Gear는 42ft/秒(12.8m/秒)의 接地衝擊에 견딜 수 있는 強度가 있으나, 이것은 要求條件에 부합되어, 乘務員의 安全을 確保할 수 있는 接地速度로서 8.35m 높이에서 떨어지는 衝擊에 該當된다.

Main Gear 사이에는 30m Chain Gun이 裝着되어 있고 彈倉은 胴體內에 있다. 胴體着陸時에는 앞뒤席 中間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胴體에서 붙어 나온 짧은 날개는 附着式으로 되어 있으며 輸送時에는 除去하도록 되어 있다. 한쪽 날개에 2箇所의 Hard Point 가 있고, 어느 Pylon에도 4發의 Hellfire



Apache의 날개밑 Pylon에 装着된 Rockwell AGM-114A Hellfire 対戰車 Missile, Laser 誘導로서 最大 射程 6,000m

Rockets Pod, 아니면 230g/L(871l)의 Ferry 用 Tank가 附着된다. 翼端(날개끝)에는 Sidewinder 1發을 装着할 수 있는 餘裕가 있으며, 美海兵隊用으로 보인다.

꼬리部分(尾翼部)의 水平尾翼=Stabilator는 第一段階에서 T形을 包含한 여러 가지 形態 및 形式을 試圖하여 보았으나 最終的으로 單一構造의 全遊動式인 現在의 形으로

되었다.

本機는 NOE(地形을 따라 飛行)時에 機首가 올라가는 傾向이 있음으로 特히 火器發射時 前方視界를 좋도록 하기 爲해서 機首를 내리는 作業이 必要하였다.

또 全 Flight Mode에 있어서 機體를 水平으로 維持하기 爲해 講究된 것이 Stabilator이다. Rotor의 操縱系統과 Link하여



機動性이 優秀한 Apache는 一線基地에서 反復 攻撃도 可能하다.

作動한다. 30~197kt의 速度範圍에서 +5°~
-35°의 範圍로 움직이며, 自動적으로 機體
를 水平으로 維持한다.

形狀은 前緣은 直線, 後緣은 Deep로 된
平面形으로 되어있다. 同時에 Tail Rotor의
直徑도 10in(25cm) 크게 되었다. 이 形態는
Proto Type 6号機로서 1980年 3월에 飛行
Test에 依해서 決定되었다.

Tail Rotor는 네 개의 날개로 되어 있으
나 直角으로 交叉되는 十字形이 아니라 55°
/125°로 交叉되어 있다.

이것은 騒音의 輕減을 企圖한 設計이다.
垂直尾翼은 Bolt로 固定시켜서 輸送時에는
접어 겠다든가 除去할 수 있다.

主 Rotor는 幅이 53cm로서 이것도 輸送時
에는 除去 또는 접는 것이 可能하다. 다섯
개의 Stainless製 Spur를 Glass fiber로서 덮
어 씌우고, 積層構造에 Stainless板을 外
皮로 하였으며, 뒤 翼端은 複合材이다. 先
端 約 51cm部分은 20°의 後退角을 하고 있
으나 高速回轉時에 抵抗을 完化토록 하
였다.

AH-64A Apache 諸元

[寸 度]

主 Rotor 直徑	14.63m (48ft 0 in)
Tail Rotor 直徑	2.79m (9ft 2 in)
全長 (Tail Rotor 回轉)	14.68m (48ft 2 in)
(主 Tail Rotor 回轉)	17.76m (58ft 3 1/8 in)
翼 幅	5.23m (17ft 2 in)
全高 (主 Rotor Head 上端까지)	3.84m (12ft 7 in)
尾翼翼幅	3.56m (11ft 8 in)

[面 積]

主 Rotor Disk (回轉円板面積)	168.11m ² (1,809.5ft ²)
Tail Rotor Disk	6.13m ² (66.0ft ²)

[重 量]

空虛重量	4,881kg (10,760lb)
構造設計重量	6,650kg (14,660lb)
Primary Mission 重量	6,552kg (14,445lb)
最大離陸重量	9,525kg (21,000lb)
燃料 Tank 容積	1,108kg (1,422ℓ)

Engine

General Electric T700-GE-701 1,696shp×2基

[性能]

最大水平 / 巡航速度	296km/h (160kt)
最大垂直上昇率(海面上)	762m/min (2,500ft/min)
実用上昇限度(兩 Engine)	6,400m (21,000ft)
(# Engine)	3,290 (10,800ft)
Hovering 限度(IGE 地面効果 有)	4,570m (15,000ft)
(OGE 地面効果 無)	3,505m (11,500ft)
最大航続距離(機内燃料 Tank)	482km (260nm)
最大滯空時間(機内燃料 Tank)	3 時間 9分
Feery距離(機内 Tank 및 最大 Drop Tank)	1,701km (918nm)

● 生存성을 위한 対策

Survivability를 위해서는 어떠한 設計가 되어있는지 具體的인 例를 몇 가지 열거해 보자.

◎ 機體構造는 基本的으로는 Aluminium合金의 Monocoque 構造이나, 12.7mm 및 23mm 彈이 命中되었을 境遇에도 破壞率을 最小限度로 줄이도록 Fuel Save構造를 다시 發展시킨 構造, 잘 破壞되지 않는(금가지 않는) 材料, 必要 以上の 強度를 가진 材料 등을 使用하고 있다.

◎ Engine을 左右로 分離해서 配置하고兩 Engine이 同時에 被彈될 可能性을 적게 해 놓고 있다.

◎ Engine의 排氣口에 赤外線 Suppressor를 裝置, 排氣 Gas의 溫度를 낮추어 赤外線의 放出을 大幅的으로 減少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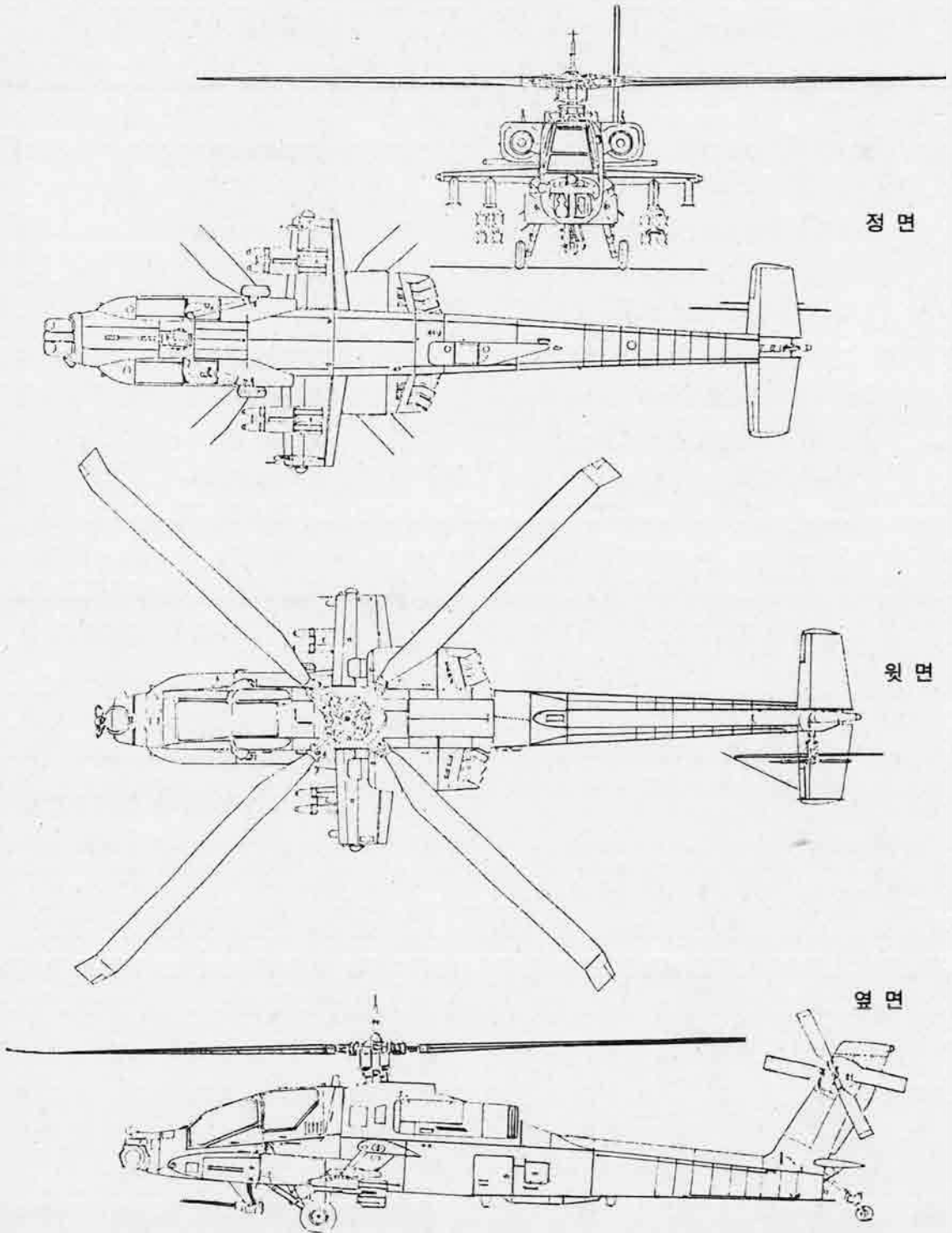
◎ 主 Transmission의 主要部分은 ESR (Electro-Slag Remelt 鋼)로서 製作되어 있으며 Bearing 등의 主要部分은 ESR 鋼鉄製 Collar 석워놓고 있으며 12.7mm 彈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있다.

Transmission의 Case가 破損되어 Oil Loss되었을 境遇에도 1시간의 運轉을 繼續할 수 있다.

◎ 中間 Gear Box 및 Tail Rotor Gear Box는 Gear의 潤滑에 grease를 使用하고 있으며, 被彈時에도 Oil Loss로 인하여 타서 붙어버리는 일은 發生하지 않는다.

◎ 油壓系統의 Actuator Cylinder 등은

AH-64A Apache 4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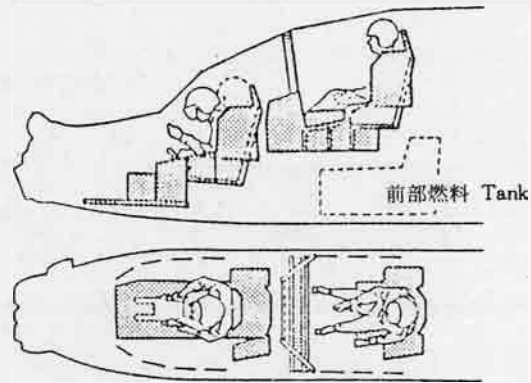


정면

위면

후면

**AH-64A의 Cockpit座席
주변의 耐彈裝置**



- 乘員區畫裝甲板(輕量 Boron裝甲板)
- 防彈板
- ▨ 透明 Acryl Plastic Barrier

12.7mm彈에 견딜 수 있는 強度를 가지고 있다.

◎ 主 Rotor 및 Tailrotor의 操縱系統에는 FBW (Fly-By-Wire) System이 Back up System으로서 設計되어 있으며, Mechanical System이 被彈됨으로써 作動되지 않을 境遇와, 油壓 손실의 境遇에는 FBW System으로 自動적으로 바뀌게 된다.

◎ Cockpit의 座席은 前後席의 周圍와 前後席의 사이를 輕量の Bron製 裝甲板으로서 에워 싸놓고 있으며 23mm 徹甲彈 및 高 Energy彈에도 견딜 수 있다.

● **攻擊 火器**

AH-64A의 攻擊火器는, Hellfire 對戰車 Missile, 30mm Chain Gun 및 Rockets 彈과 目標 捕捉 System이다. 이와 같은 火器에 對해서 살펴보자.

★ **Rockwell社製 AGM-114A Hellfire
對戰車 Missile**

Hellfire는 Helicopter Launched Fire and Forget, 攻擊하는 것인데 “地獄의 불”이라고도 말하는 Module構造의 단단한 形態인 火藥推進 Rocket彈이다.

誘導는 Laser誘導式으로 되어있으나, 影像式 赤外線 Homing方式(IR), Radio Frequency (RF) 방식과 조합하여 RF/IR方式 등의 Terminal Seeker Module을 使用할 수 있도록 設計되어 있다. 地上 또는 機上에서 Laser光線을 目標에 照射하여 그 反射 Laser를 받아서 反射源(目標)으로 向하는 方法이다. Laser의 Code를 합쳐 놓으면 發射된 Missile은 地上 또는 다른 Helicopter로부터의 Laser 照射에 따라 誘導되기 때문에 半 Fire and Forget式이라고 할 수 있다.

AH-64 외에 Sikorsky UH-60 Black



- 앞 30mm彈 1,200發
- 後方 2.75in Rocket彈 76發
- 外側 各 2個(計 4) 燃料 Tank(1개 230G/L)
- 內側 各 2個(計 4) Rocket Pod 19發
- 機体裝備는 Hellfire 對 戰車 Missile 16發

Apache의 모든 火器(機外 Store 最大 771kg)

Hawk, 英國의 Lynx 등에 裝備되어 있으며 AH-1 Sea Cobra(美海兵隊)에도 裝備될 予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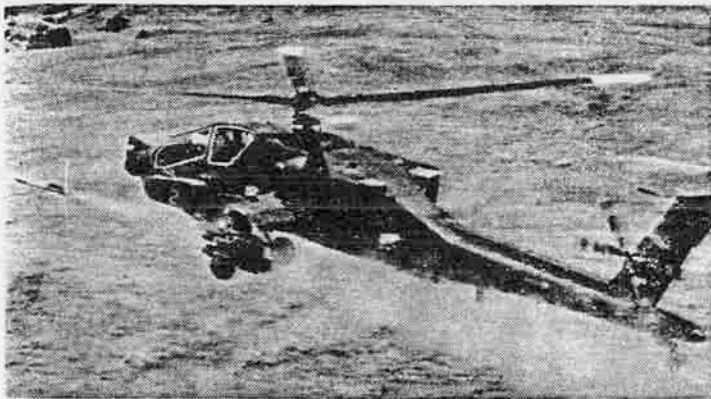
AGM-114A는 길이 1,625mm, 直徑 17.8cm, 翼幅 33cm, 重量 45.7kg, 最大射程 約 6,000 m이다. 炸藥部分은 178mm(7in)이다.

發射方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Line of Sight方式은 發射母機가 直接 目標를 보면서 發射誘導한다. 이것을 LOBL (Lock-on Befor Launch)라고 부른다.

② 準直接 照準·發射方式은 Missile을 目標方向으로 發射해 놓고부터 目標를 捕捉하여, Laser를 發射한 후 誘導한다.

③ 間接照準 發射方式은 發射母機가 숨어



Hellfire Missile를 發射한 Apache

서(隱蔽) Missile을 發射하고, 다른 Helicopter 또는 地上에서, 目標에 Laser 照射하여 誘導하는 方式으로서 準間接 및 間接方式을 包含 LOAL(Lock on After Launch)라고 부른다.

LOAL은 Survivability를 높이기(增加) 위해서 必要하다.

Hellfire의 試驗射擊은 1985년까지 75發以上 實施하였으나, 命中率은 90% 以上이라고 한다.

目標對象中에는 時速 50km 以上の 高速으로 走行하는 車輛도 있었다고 한다. 量産型의 單價는 1982年度 1發에 16萬 8,235 Dollar를 하였으나, 1983年度에는 6萬 2,755 dollar로 下落되었다.

☆ Hughes(McDonnell Dauglas)
M230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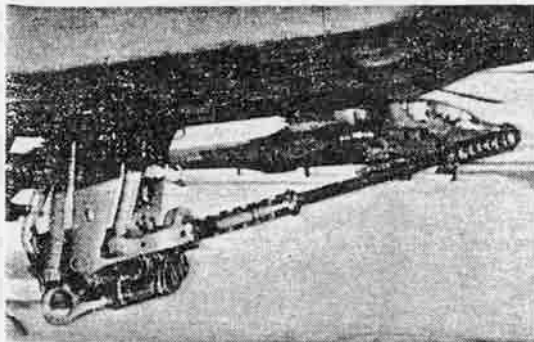
이 機關砲는 回轉 Volt 機構의 Motor 에

Chain을 使用해서 作動을 하고 있기 때문에 Chain Gun이라고 부르고 있다. 길이는 65in (1,650mm)이며, 重量은 118lb(54kg)로서 극히 輕量化되어 있다.

機軸에서 左右로 各 110°, 上方으로 10°, 下方으로 60°로 움직인다. 彈藥은 Alumi 製의 藥莢으로서 Link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輕量化 및 簡素化를 기하고 있다. 彈倉은 胴体内에 있으며 Belt Conveyor로서 彈을 供給한다. 彈倉의 容量은 1,092發, Conveyor에 108發이 들어있다.

發射速度는 每分 625發, 砲口速度 760~800m/秒, 射程은 200~2,500m이다. 輕裝甲 車輛이면 쉽게 破壞할 수 있다.

照準發射는 앞 席의 砲手가 TADS 를 使用해서 發射하나, 뒷席의 Pilot는 Helmet에 裝着用인 照準裝置를 利用해서 發射할 수 있다.



AH-64A의 胴体 밑에 裝着된 Hughes M230 30mm Chain Gun



날개 밑 Pod에 裝填되는 2.75in Rocket彈

☆ 2.75in Rocket彈

非誘導式의 Rocket彈으로서, Pod 內에서는 날개가 접어져 있으며 發射되면 날개가 퍼진다. FFAR (Folded Fin Aerial Rocket/ 접는式 Fin 空中發射 Rocket)이라고 부르고 있다. 19發이 들어가는 Pod에 收容된다. Pod는 모두 4個를 Pylon에 裝着할 수 있기 때문에 76發을 積載할 수 있다.

Pod는 Hughes社에서 開發한 輕量의 Pod

로서 길이가 1,651mm, 直径 406mm, 空中重量은 35.9kg이다. 信管의 時限設定을 Cockpit 內에서도 할 수 있다.

Pylon은 裝着角이 +5° ~ -28°의 範圍에서 上下로 움직이기 때문에 機體의 Pitch姿勢를 仔細하게 調整하지 않아도 精密하게 發射할 수 있다. 發射는 前後方席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으나, 前方席 射手의 境遇에는 TADS를 使用하고, 後方席의 Pilot는 Helmet의 照準裝置를 利用하나 이 境遇에

AH-64A의 Mission別 火器積載 例

任 務	攻 擊 火 器			燃 料 (kg)	離陸重量 (kg)	作戰時間 (時間-分)
	Hell fire	Rocket彈	30mm Chain Gun			
對戰車攻擊作戰 1,220m/35°C (中東戰線)	4 發	-	320 ^發	727	6,552	1-50
"	4	-	1,200	1,029	7,158	2-40
"	6	-	540	902	7,158	1-17
對戰車攻擊作戰 610m/21°C (Europe戰線)	8	-	1,200	1,063	7,728	2-30
空中機動援護 1,220m/35°C (中東戰線)	4	-	1,200	745	6,874	1-50
空中機動援護 610m/21°C (Europe戰線)	4	19	1,200	1,086	7,813	2-30
Escort 1,220m/35°C (中東戰線)	-	19	1,200	741	6,932	1-50
Escort 610m/21°C (Europe戰線)	-	38	1,200	1,077	7,867	2-30

發射 精密度는 TADS 보다는 不正確하다.

Rocket 發射의 最低間隔은 0.06秒이기 때문에 거의 同時發射가 可能하며 1發式 또는 2發, 4, 8, 12, 24, 76發로, 連續發射를 임의로 選擇할 수 있다. 彈頭는 7種類가 있으며, 火器管制 System에 依하여 彈頭에 最適의 發射制御를 하도록 되어 있다.

☆ 積載 能力 및 機體重量

機體重量 4,881kg(10,760lb), Primary Mission 重量 6,552kg(14,445lb), 設計構造 全重量 6,650kg(14,660lb)이므로 燃料과 火器의 餘裕는 1,671~1,769kg가 된다. Full Tank時의 燃料는 1,108kg(1,422l)이기 때문에 Full Tank時(最大航統距離 260mm/ 482 km) 火器는 563~661kg이 되며, Hellfire 로서는 12~14發이 된다.

Mission과 積載火器에는 8種類의 標準을 想定할 수 있으며 그리고 最大離陸重量은 9,525kg이나 된다.

☆ 火器管制 照準 System

基本이 되는 것은 TADS (目標 捕捉, 識別 Sight)와 PNVS (Pilot 夜間透視 Sencer)이며, 다음과 같은 Component로 構成되어 있다.

TADS : 目標探索, 識別, 距離測定 / 方向決定을 行한다.

LRF/D : Laser 距離測定 / 識別

FLIR : 前方透視 赤外線 裝置

DVO : Direct View (直視) Option,

DT : 주간 Televi, Lesor Spot Tracker

이들 Component는 機首의 Barrel型 Rad dome 內에 收容되어 있다.

PNVS 赤外線 Back up에 依한 夜間透視 - FLIR. FLIR Sensor는 機首의 Barrel Radome 上部에 附着되어 있다. TADS의 FLIR Sensor는 必要에 따라서 PNVS를 Back up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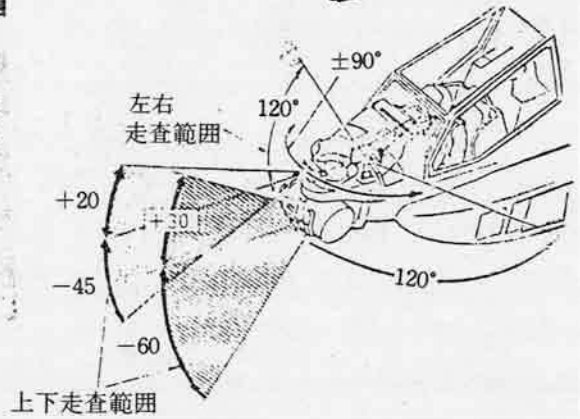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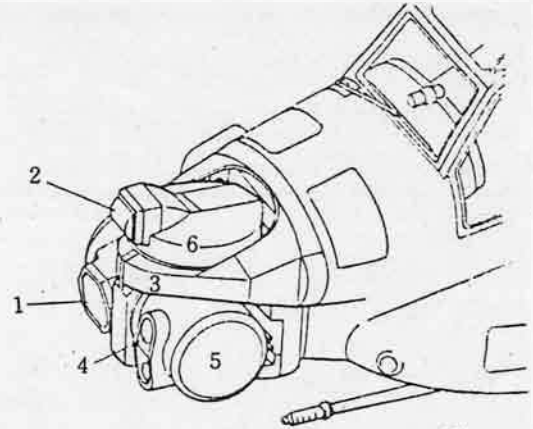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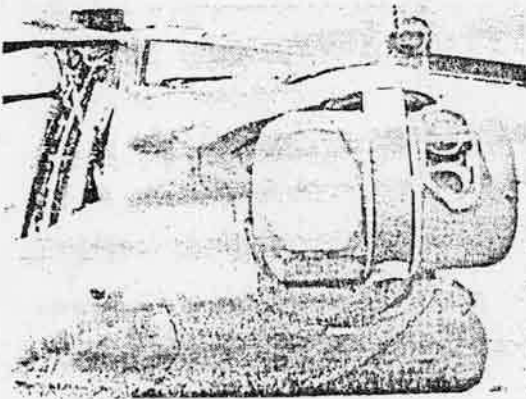
Barrel Radome의 TADS Sensor는 機軸에서 左右로 120°, 上方으로 30°, 下向으로 60°의 範圍에서 Scanning을 한다. 前方席의 Copilot / Gunner 左측의 Control Grip에 依하여 操作된다.

上部에 있는 PNVS Sensor는 機軸에서 左右로 90°, 上方 20°, 下向 45°의 Scanning 範圍를 갖는다. Pilot 및 Copilot / Gunner의 Helmet와 DNVS Sensor는 電氣光學的 追從 System으로 連結되어 있으며, Pilot의 머리(頭) 움직임에 맞추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主로 航法과 目標捕捉에 使用한다.

TADS의 Data는 Cockpit의 ORT(Optical Relay Tube)에 비쳐 나타낸다.

PNVS와 TADS의 Data는 乘務員의 Helmet에 붙어있는 單眼鏡에 直接 비쳐 시현된다. 이 System을 IHAVSS(Integrated Helmet and Display Sighting System)라고 부르며, 目標를 肉眼으로 보면서 Data를 주시, 火器의 照準을 맞추고 前後方席의 Line of Sight를 맞추어, TADS / PNVS가 目標捕捉을 위해서 目標를 向한다. TADS로 目標를 捕捉하면 目標 追從은 自動 또는 수동 어느 것이든지 可能하며 Hellfire, Rocket, 30

1. 夜間透視 Sensor Scanner
2. PNVIS 赤外線 Scanner
3. 電気光学式目標 識別・夜間 Sencer Turret
4. TADS 昼間 Scanner
5. 左右 Scanning Motor Housing
6. TADS/PNVIS Swivel Turret



TADS/PNVIS Scannig 範圍

mm砲의 세 종류를 同時에 照準 및 發射할 수 있다.

TADS의 주간 Sensor는 Telecamera로서 視野 0.9°의 좁은 視野와 4°의 넓은 視野의 두 가지 視野가 있다. Direct View(直視)는 4° 및 18°의 視野이다.

航法, 飛行 System

Apache의 航行은 NOE(地形追從飛行)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航法 飛行 System이 完備하게 되어 있다.

우선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機動性을 가

지게 하였으며 그리고 Pilot의 負擔을 輕減하기 爲해서 DASE(Digital 自動安全裝置)를 使用하고 있다. 飛行, 大氣 Data를 各 Sensor로부터 받아드려 Main Data Bus를 通하여 Pilot의 操縱을 最適化 할 수 있도록 補充하여 주는 System이며 戰術的인 運動을 主体로 Program이 짜여져 있다.

航法 System의 主体는 AN/ASN-128 Doppler 航法 System과 AN/ASN-143 AHRs(機體姿勢, 方向制御 System) 두 System으로서, 이것에 依하여 NOE航法 및 飛行이 Pilot의 負擔을 輕減하는데 可能하도록 하고 있다. Air Data, 低速時의 對氣速度, 風向

등의 Data는 꼭대기(Mast)에 튀어나온 Pa-
cer System에 의해서測定된다.

以上과 같이 必須條件이 되고 있는 攻撃
性能과 Survivability를 重要視하기 때문에
극히 限定된 Mission만을 使用할 수 없는 專
用機材가 되었으나, 더 以上の 必要를 하지
않는 設計가 되어버렸다. Hellfire를 裝備한
Helicopter는 Black Hawk와 Lynx도 있으나
Weapon System으로서, 종합적으로 發射
및 攻撃能力은 AH-64가 우수할 것이다.

先制攻撃 및 Survivability는 期待한대로
能力을 發揮하여 最強의 對 戰車攻撃 Heli-
copter가 될지 아니될 것인지는 実績으로서
만이 알 수 있겠으나, 하나의 目的을 위해서
導出된 機體인 것은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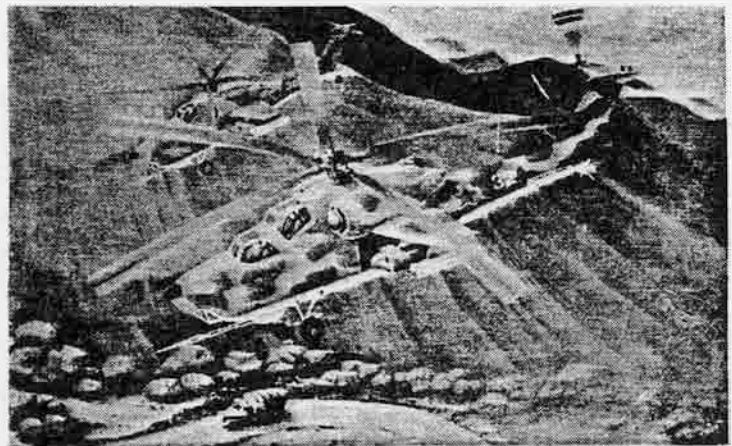
蘇聯의 對戰車 Helicopter

소련의 地上攻撃 Helicopter라고 하면 MI-
24 Hind를 생각할 수 있다. 強力한 武裝과
兵力輸送도 可能的 이룬바 大型 Helicopter이

나, 그다지 機敏한 運動性은 期待할 수 없
으며, 또 NOE 飛行은 不可能한 것으로 보
고 있다. Down-Wash가 지나치게 強한 한
편 Hovering 性能이 그렇게 좋지않으며, 또
Hovering時에 燃料消費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Europe 및 美国에서도 앞으로 對地
및 對戰車 攻撃에는 NOE 特性과 機敏한 運
動性이 要求되는 点에서는 一致하고 있으며,
MI-24는 이 要求에 該當된다고는 할 수 없
다. 西方側에 對抗하기 爲해서는 AH-64와
同等한 多用途 Heli가 아닌 專門 Helicopter
가 必要하다는데 結論을 내리고 있는듯 하
다. 美国의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誌, 1985年 10月 号에 처음으로 MI-28 Havoc
의 存在가 紹介되었다.

予想圖와 性能面에서 보면 AH-64와 同等
한 Size 및 形態이나, 큰 差異点이라고 하
면; 主 Rotor가 5枚라는 것과, 水平安定板
이 垂直尾翼의 先端에 附着된 片翼型이라
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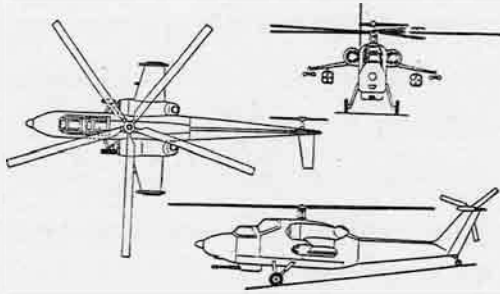


MI-28 Havoc 對戰車 攻撃
Heli의 想像圖

(美国防省 發刊 “소련의 軍事力 '85”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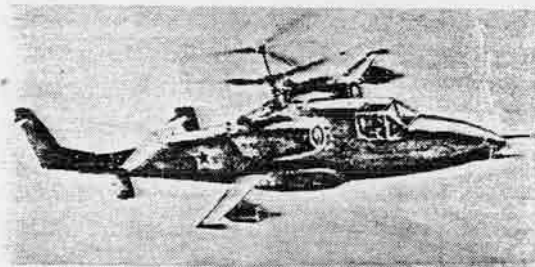
“予想(予測)되는 諸元은 다음과 같다.

- 戦闘重量.....7,100kg
- 機体重量.....4,700kg
- 燃料容量.....1,200kg (1,540ℓ)
- Payload.....1,200kg
- AT6 对戦車 Missile.....16發 (1,000kg)
- 機関砲 彈 (23mm)200kg
- Engine.....1,340shp (?) × 2
- Rotor 直径15m



Mi-28 Havoc

Engine 出力을 除外하고는 AH-64 보다도 全般的으로 좀 크고, 그외 다른 予測値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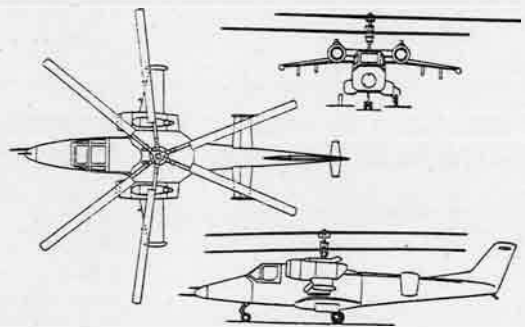


二重反轉 Rotor 式의 蘇聯 最新銳 Helicopter Hokum의 想像圖

区 分	MI-28	AH-64
巡航速度	250km/h	268km/h
燃料消費量	524kg/h	408kg/h
잉여馬力	111%	119%
Hovering 限度 (地面效果内)	3,657m	4,085m

目標捕捉 및 火器管制은 다음과 같은 System이라고 予測하고 있다. 基本이 되는 것은 Direct Uptake(直視用光学 System), 34~40 GHz, Pulse Radar 및 FLIR(前方透視 赤外線 System)이다. Radar는 目標距離 測定, 目標捕捉에 使用된다. AT-6 Spiral 对戦車 Missile은 “미리”波 Radar誘導方式이 나, 近接하여온 2個의 目標區別은 할 수 있어도 廣範圍한 Searching을 하여 自己 Lock-on은 不可能한 것으로 보고 있다. Laser Beam에 올려 놓고 誘導하는 것은 可能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赤外線 抑止裝置, 赤外線 Decoy Dispenser를 갖추고 있다. 火器는 对戦車 Rocket 外에 空对空 Missile도 翼端에 裝備하고 있



三 面 圖

다. 運動性은 AH-64보다는 劣等하다고 判斷된다.

AH-64의 旋回에서는 120~140kt 사이 10°/秒의 旋回가 可能하고, 또 1G의 運動을 할 수 있으나 MI-28은 40°/秒 程度이고 또 -G의 運動은 不可能한 것으로 보고 있다.

MI-28 外에도 最近에 出現한 機體, "HOKUM"이 있다. 거의 同一한 Size이나 二重 反轉 Rotor式의 機體로서 Mi-28과의 Mission上 区分이 疑問視되어 왔다. MI-28은 AH-64에 對抗할 對戰車 攻擊을 專門으로 하는 機體로서 機關砲, 對地, 對空 Missile 을 積載한다.

現在 소련에서 第一가는 高速 Heli(巡航 350km/h)라고 하고 있으며 Tail도 길게 뻗어서 旋回性을 良好하게 하고 있다. 胴體의 容積을 볼 때 對潛 Helicopter라고는 볼 수 없으며, 지금으로서는 보다 더 妥當한 推測은 對 Helicopter Heli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MI-28과 HOKUM과의 공동(Combination) 使用을 생각할 수 있다.

詳細한 Data는 不明確하나 MI-28은 Apache에 對抗할 對戰車 Heli이며 機體의 運動性은 약간 劣等한 것으로 보이며 對戰車 Missile의 技術은 높은 水準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核 抑制戰略의 二律背反性

— 核時代에 있어서의 政治와 戰爭



張 鈞 和

〈소령·공군본부〉

1. 序 論

가. 問題의 提起

20C 후반에 들어온 이후, 전쟁발달 과정을 살펴볼 때 全 世界는 하나의 커다란 戰術的 戰區(One Large Tactical Theater)로 變해 버렸으며, 이러한 지구는 核武器의 급속한 개발과 운반수단의 정확성 및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핵공포 속에서 살게 되었고 핵절대주의와 핵도피주의

의 상반된 흐름 속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Henry Kissinger는 이와 같은 核의 공포에 처해 “우리는 神의 불을 훔치는데 成功하였으나 그 결과 공포에 떨며 살아가도록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언급하여 核時代의 고민을 프로메테우스의 神話에 비유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核에 依한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에 있어서 核戰略의 가장 기본적인 課題는 抑制

(Deterrence)이어야 하며 抑制가 실패했을 경우의 실제전쟁과 전략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즉 최선의 抑制는 최대의 파괴력을 포함한 최소의 위험 및 비용을 바탕으로한 戰略概念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核戰略이란 抑制戰略이라는用語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주요 기능도 평화유지와 전쟁방지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戰略의 방향도 폭력을 사용하는 術이 아닌, 폭력의 사용을 위협하는 術이라고 할 수 있는 抑制의 術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反面에 抑制란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이 상호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성공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막강한 Power와 강한 의지가 교차하는 點에서는 강한 抑制力이 발휘될 것이란 데 對해서는 反論의 여지가 없으나 어디까지나 抑制力이란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는 상대방의 知覺(Perception)과 心象(Self Image)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核抑制 戰略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는 본 전략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二律背反性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一 예를 들자면 분명히 抑制者의 위협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에 따른 抑制效果는 더 크게 산출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협 수준이 일정한계를 넘을 때는 被抑制者의 인식상태는 위협의 신뢰성에 對한 비현실성을 인지하고 抑制者의 의사에 反하는 행

동을 取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核抑制의 二律背反性이란 위협형태로 加해지는 폭력의 크기와 그 위협의 신뢰성 간의 모순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核戰略의 또 다른 성격 중의 하나는 전쟁양상의 二元성을 모두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아이로니칼하게도 核時代에 살면서 제한전쟁, 또는 재래식 비핵전쟁의 중요성이 재도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증거로서는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벌어진 모든 전쟁들은 제한전쟁이었고 재래식 전쟁이었다는 사실이며, Kennedy시대 이래 채택된 신축대응 전략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는 전면 핵전에 對한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핵무기의 위력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Issue 中の 하나는 核抑制戰略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二律背反性的 모순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추구하고 있는 억제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며 또 한편으로는 현대에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전쟁양상이 지역, 규모 수단에 있어서 제한전, 재래식 전쟁일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할 때, 전술한 핵억제 이론이 이러한 재래식 비핵전쟁에서도 과연 유효할 것인가? 그리고 전쟁이 정치의 연속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나. 연구방법과 범위

이에 本稿에서는 먼저 군사력의 역할(Role of Military Power)에 있어서 抑制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재검토하여 抑制에 대한 개념을 再定立한 후에 억제제의 이중성(Duality)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분석순서는 核抑制理論의 양대 주류라 할 수 있는 Finality School과 Credibility School을 기준으로 논의한 후에 이들과 같은 맥락에 서 있는 Minimalist와 Maximalist, 그리고 Counter City와 Counter Force의 견해에 대해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 後 核抑制戰略의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한전쟁 및 재래식 전쟁에 있어서 이러한 핵억제 전략의 Idea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Clausewitz의 사상을 근간으로 論하도록 하겠다.

2. 軍事力の 役割에 있어서 抑制란 무엇인가?

가. 抑制理論의 대두원인

E. H. Carr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현실을 무시한 정치는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여 국제체제에 있어서의 현실성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보수적이고 이상론적 원칙에 치중하고 있는 Idealism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편, 국제관계에 있어서 각국 간의 관계를 낙관적이기 보다는 비관적 시각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의 팽배현상은 2차대전 이 후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주의에 대한 Reaction으로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理論보다는 힘을, 그리고 이러한 힘에 의한 자국의 이익을 강조한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외교활동에 뒷받침이 될만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던 것이다.

특히 집단안보기구인 UN이 조직상의 구조적 모순과 기능의 약화에 의해 국가 간의 갈등(Conflict)과 분쟁(Dispute)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부재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군사력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 각국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은 커지고 국제구조의 국제체제 간의 한계설정이 분명하지 못한 현대 국제관계는 외적 환경이 국가의 정책수립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군사력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 기본전략 개념은 상호의존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도 역시 비결정적(Indeterminate)이므로 승리보다는 결정적 패배의 회피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핵시대에 있어서 군사력의 사용방향은 非決定性, 상호공멸 등의 공포에 의해 적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력의 운용보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을 통한 평화적 사용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억제에 대한 전략적 사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나. 抑制(Deterrence)란 무엇인가?

Deterrence란 말의 語源은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Terrere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抑制란 잠재적 침략국에 처해서 그들이 만일 침략행동을 시작한다면 그들에게 전될 수 없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침략행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자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억제개념은 전쟁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이 국가의 Grand Strategy에 있어서 중요 요소로 부각된 것은 全面核戰爭의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후였다. 이러한 억제 목적이란 전쟁을 위한 전략이 아니며, 승리를 위한 전략도 아니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든 代案 중에서 我側에 처한 침략이 가장 비경제적이라는 사실을 認知시키고 확신시키는 평화를 위한 전략이며, 적 군사력의 물리적 사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심리적 과정을 통해 제지시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에 있어서 필수 요소는 신뢰성인 것이며, 근거없는 위협은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위협은 능력과 의지의 혼합물인 신뢰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즉 신뢰성이란 자국의 의지를 자국의 군사적 능력에 의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수행능력이며, 실행에 옮기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상대방에게 인식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위협이 비록 논리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신뢰성의 수준을 높여주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Herman Kahn에 의해 언급되어진 “설명하기 힘든 전쟁에 대한 공포심” 또는 Kissinger가 설명한 “불확실성에 의한 억제현상”, Thomas Schelling의 “운에 맡긴 위협에 의한 전쟁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처해서 증명할 수도 없고 計量化시킬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갈등이익에 걸려있는 국가의 가치정도, 군사력정도 Leader의 Personality 또는 국민적 특성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같은 요소에 의해 인지되고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개념화시킬 수 없는 상호간의 Perception의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一例로서 비록 군사력의 불균형이 극심한 상태이며 상대국이 신뢰성 있는 위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국의 갈등이익에 대한 가치수준이 높으면 군사력의 강약에 무관하게 군사력의 물리적 사용의 기회는 오히려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효과적인 억제전략에 대한 논의는 논쟁의 合一点을 찾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학자마다 조금씩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군사력의 불균형	양국의 가치정도	군사력의 물리적 사용	군사력의 폭력적 사용
小	大	증 대	감 소
	小	감 소	증 대
大	大	증 대	감 소
	小	감 소	증 대

3. 抑制의 二重性(Duality) 과 諸學派의 見解

가. 抑制의 二重性이란 무엇인가?

前述한 바와 같이 核抑制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 작용인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작용을 S-R Model로 설명하면 자극이 크면 이에 따른 반응도 커지며 역으로 자극이 작으면 반응 역시 작게 산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External Environment)과 Self Image, Perception, Gain-Loss관계, Value 등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방적 상호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억제와 신뢰도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억제력과 신뢰성의 관계는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위협의 정도가 필요 이상 증대되면 오히려 신뢰성은 떨어지고 억제효과와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위협에는 신뢰성이 필요하지만 신뢰성 있는 위협

이라고 반드시 억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대립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면 위협을 감수하려 하기 때문에 억제는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협의 강도는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억제되어야 하며 신뢰성으로 억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협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억제전략에 있어서 Output의 결정은 억제강도와 신뢰성의 상호관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이 바로 억제전략의 이중성의 핵심이며 핵억제전략을 위한 기본모형이어야 할 것이다.

나. 諸學派의 見解

이러한 核의 二重性에 대한 논쟁은 상반된 두 쌍의 3가지 견해로 대별되어지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열핵무기의 폭발력 크기에 따라 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낙관적 사고방식을 전제로 한 Finality School과 비이성적 판단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비관적 결과를 고려한 Credibility School, 수행능력

수준에 의한 Minimalist와 Maximalist, 핵억제전략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그 대상의 차이에 따른 Counter City와 Counter Force 등이 그것이다.

(1) Finality School Vs Credibility School

Finality School의 전제는 “억제를 위해서는 위협 당사국의 의도가 강할수록 억제는 보다 용이하게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본 학파는 위협자의 의도의 강도에 비례해서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절대적 억제사상을 보이고 있으며, 위협의 강도를 강하게 할수록, 폭력을 수행하지 않고 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핵무기 자체를 혁명적인 개척으로 보아 핵억제 자체는 절대적이라는 핵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 反面 Credibility School은 “억제를 위해서는 신뢰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로서 위협의 신뢰성이 손상된다면 공격자는 억제자가 보이고 있는 위협의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침략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핵정책은 결코 억제가 운명적으로 성공된다는 가정에 입각해서는 안 되며, 예기치 않은 이유로 인한 억제의 실패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두 학파의 근본적인 견해 차이는 역사적 연속성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前者는 핵무기란 혁명적인 무기로서 절대적으로 전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後者는 역사적 연속성이란 파괴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戰爭史를 볼 때 억제는 실패되었고 전쟁은 계속 발생되었기 때문에 핵전쟁의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이 변화될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Minimalist Vs Maximalist 견해의 비교분석

Minimalist의 견해는 전면핵전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관련국이 상호공멸할 것이라는데 前提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몇 개 안 되는 단일형의 열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인구 밀집지역과 같은 대규모 피해예상지역에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최소억제의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본 견해는 전면전쟁 수준에서의 상호 억제상태가 현실적으로는 제한전쟁을 고무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인간이나 기술상의 과오로 일어날 수 있는 Accidental War, 운반체계의 정밀도, 신뢰성, 조기경보망의 과실이나 거짓경보에 의한 충돌사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다. 그리고 보다 우세한 적의 기술적인 일격으로 한정된 수의 핵무기는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술한 최소억제를 지지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제권을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되어 지고 있다.

그 反面 Maximalist들의 견해는 소량의 핵무기에 의한 억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비

관적 사실을 前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배경은 ① 적의 공격에 의한 피해를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적의 핵 전력에 타격을 가할 충분한 무기가 필요하며 ② 감당할 수 없는 피해량이란 적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합리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대 억제전략에도 불구하고 본 견해는 “① 제 1 가격능력은 Preventive War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② 적의 기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잔존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군비경쟁이 불가피하며 ③ 소규모 도발에 대처할 현실적 방안이 없다면 위협의 신뢰성은 손상될 것이며 그 결과 제한 국지전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Counter City Vs Counter Force에 대한 비교분석

核武器的 표적 선택에 관한 문제에 대해 Counter City를 주장하는 견해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상호억제의 안정된 균형이 존속하는 한 핵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前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기는 반드시 비취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취약한 처도시 공격용 핵무기는 선제공격의 자극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도시(인구 밀집지역)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적은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상호 전면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이익추구의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견해는 핵전의 가능성이 제거

될 경우 제한된 재래전이나 전술핵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도 다양한 형태의 제한전을 억제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전술한 것과 같은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며 제한전이 전면 핵전으로 Escalation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反面 Counter Force의 견해는 전면핵전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만약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적의 핵공격으로부터 피해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대국의 도시에 대한 공격은 상호파멸을 수반하며 확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핵기지에만 공격을 한정하는 것이 적의 공격능력도 제거하고 전면전으로서의 확대도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질적 양적인 핵우위와 제 1 가격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전술한 6가지 견해에 대해서 상호 연계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2가지로 분류 가능할 것이다. 즉 Counter City 견해의 이론적 출발점은 Finality School의 억제개념을 취하고 있는 한편 무기체계 면에서는 Minimalist 접근방법을 반영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Counter Force의 견해는 Credibility School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양과 질적 측면에서는 Maximalist들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兩大學派에 대한 評價

(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前者는 핵에 의한 억제가 전쟁을 예방

할 것이며 핵무기의 실제적 사용은 불필요할 것이라는 객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反面 後者は 비관적 입장으로서 핵전쟁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러 요소에 의해 발생되며 이에 따라 무기는 억제 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 군비경쟁 측면에서 볼 때, 前者는 군비경쟁 자체가 연쇄적 상호작용으로 Escalation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 재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험한 사고라고 판단하는데 反해, 後者は 군비경쟁이 위험하기는 하나 군비경쟁에 처진다는 것은 상대에게 Initiative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은 군비경쟁 자체의 위험보다 더 위험스런 것으로 보고 있다.

(다) 안정적 측면에서 보면 前者는 전략적 상황을 靜態的 安定的으로 보며 상호억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한편, 後者は 핵억제전략이란 불안정한 것이며 動態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라) 상대방에 대한 認識에 관해 볼 때 前者는 적을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보고 군비경쟁이 보다 위험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보는 한편 後者は 적을 믿지 않고 적이 군사력의 격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경쟁의 후퇴는 결국 패배를 가져 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核抑制戰略에 있어서 신뢰성과 위협수준의 적정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확립

적인 대답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핵시대 이후 계속된 핵무기 “논쟁”(Nuclear Debate)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핵사용에 따른 전략개념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William R Van Cleave의 Horse-Shoe Model에서 잘 보여주고 있음). 즉 하나의 Paradigm이 시대적 변천과 인간사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Paradigm으로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핵전략 개념도 인간의 인식에 따라 발전되고 변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을 이용한 억제전략 자체도 하나의 原案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핵시대에 있어서 오늘날 보다 강하게 부각 되어지고 있는 견해는 Credibility School의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각 국가의 国力과 지리적 특성, 그리고 국제체제에서의 위치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핵전략의 수용태도가 결정되어진다는 점이다.

4. 在來式 非核戰爭에 있어서의 核抑制 理論의 타당성 검토

Clausewitz의 전쟁관을 기준으로 재래식 비핵전쟁에 있어서의 핵억제 이론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 2가지 명제에 의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핵무기 출현 이후에도 Clausewitz가 언급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일 것이며, 만약 이러한 命題가 참(True)이라면 그 다음 문제는 핵

억제의 이중성에 대한 Idea가 재래식 비핵 전쟁에서도 적용 가능한가? 적용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가. 核 時代에 있어서도 戰爭은 政治의 連續인가?

Clausewitz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은 그 자신이 文法을 갖고 있되 論理는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전쟁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티볼트는 이러한 Clausewitz 사상에 대해 “핵무기 등장 이후 전쟁은 정치의 연속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핵전쟁이 발발된 경우에는 상호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목적 자체가 소멸됨에 따라 결국 전쟁은 정책의 계속일 수 없으며, 정책의 붕괴로써 봐야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Clausewitz의 전쟁과 정치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 그가 본 전쟁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왜냐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견해는 전쟁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므로) ② Clausewitz 당시의 철학적 사상의 배경지식과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만 그에 처한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며, 과연 전쟁은 핵시대에 있어서 정책의 붕괴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생길 것이다.

(1) 戰爭의 本質은 變化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방적 대답은 “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자체는 “목

적”과 “현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War”와 “Warfare”는 구하기 때문이다.

戰爭의 一般性은 결코 變化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War” 자체는 불변인 것이다. 그러나 수단적 측면에서 볼 때 전쟁(Warfare)이란 時空의 개념에서 실천적 분석시각이므로 상황에 따른 특수성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과학문명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War의 본질은 불변하는 것이며 Warfare의 수단적 도구성은 변화가능할 것이라는 Basic Assumption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認識論的 次元에서의 再分析

전쟁의 목적론적 성격은 불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수단적 성격은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Clausewitz의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命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핵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명제는 “참”일까?

물론 核戰에 의한 상호공멸은 정치목적 자체를 소멸시키므로 이러한 命題는 “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Clausewitz에 처한 비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Clausewitz의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命題는 전쟁의 수단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당시 철학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당위 명령적 사고는 Clausewitz의 命題에 많은 오해를 가져 오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命題를 認識論的 次元에서 分析할 경우에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그의 命題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전쟁을 함부로 유발하면 안 된다는 전쟁의 통제(Control)개념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핵무기 등장 이후에도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命題는 “참”인 것이다.

나. 核抑制의 二重性은 재래식 비핵전쟁에서도 수용가능한가?

한편 Clausewitz는 전쟁형태를 絶對戰爭과 現實戰爭으로 분류 설명하고 있다. 즉 절대전쟁이란 상대방의 군사력, 영토, 그리고 전쟁의 의미마저 말살해야 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극한적 전쟁형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전쟁 개념은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적 정치적 마찰(Friction) 요소에 의해 실행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現實戰爭 개념을 대두시켰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핵무기 등장 이후에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핵무기에 의한 극단적 폭력수준 현상은 絶對戰爭 개념의 현실화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현실적 마찰요소(상호공멸의 위협인지, 상호간의 Perception, Self-

Image)에 의한 신뢰성 감소현상은 재래식 제한전쟁의 필요성과 정당성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이것은 Clausewitz의 현실전쟁 개념으로 수용되게 되었던 것이다.

核에 의한 抑制理論 역시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을 통해 억제를 달성하려는 All or Nothing의 사고방식의 Finality School과 이러한 극단적 억제방식의 신뢰성 문제를 고려한 보다 현실적 억제개념인 Credibility School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를 Clausewitz의 전쟁형태와 비교해 본다면 前者는 絶對戰爭 概念이며, 後者는 現實戰爭 概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견해의 재래식 비핵전쟁에 대한 적용태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일방적 대답의 요구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핵무기 출현자체를 하나의 혁명으로 보는가? 아니면 발전 과정에 의한 일부분으로 보는가? 하는 핵무기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처한 筆者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전쟁본질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統制概念에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지 모르나 억제의 본질 역시 변화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즉 핵무기의 등장은 전쟁본질에 단층적 현상을 가져다 주지 못했으며 전쟁에 대한 Rule이나 국제관계에 형성된 Rule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던 것

이다. 단지 같은 Rule 內에서 약간의 변화된 Game에 불과한 것이다(차이가 있다면 재래식 전쟁의 戰略이 승리목적을 추구했다면 핵등장 이후의 전략은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정도일 것이다). 또한 억제란 핵무기 등장에 따른 新造物이 아니며, 인간의 歷史와 그 유래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무기는 국제정치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나 무정부 상태의 국제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억제에 대한 “Cost + Risk) Benefit” 형식의 논리는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핵억제의 이중성 문제는 재래식 비핵전쟁에서도 수용되어 진다는 結論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5. 結 論

오늘날 핵전략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抑制戰略과 抑制가 실패했을 경우의 실제전쟁과 戰略 間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일 것이며, 최선의 억제는 최대의 파괴력을 포함한 최소의 위험과 비용을 바탕으로 한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핵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전략가들은 많은 “핵무기 논쟁”을 하였으며, 끊임 없는 연구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 초기 핵전략에 대한 억제개념은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과 이에 따른 공포심에 의해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전쟁가피론”을 주장하게 되었고 핵무기 등장 자체를 하나의

혁명, 또는 절대적 전쟁무기로 간주하여 Finality School, Minimalist Counter - City 의 전략사상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 등장 이후에도 수단적 지역적 규모에 있어서 제한된 비핵전쟁은 끊임없이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전쟁의 Escalation 가능성은 전면핵전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따라 핵억제 전략사상은 이러한 모순점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위협의 신뢰성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Credibility School, Maximalist, Counter Force 등의 견해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Maximalist的 견해가 핵보유국 모두에게 수용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각 국가가 어떠한 견해를 수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각국의 국력, 지리적 특성 국제적 외교관계에 의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 출현이 비핵군사력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을 감소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현실주의의 국제관계에서는 재래식 제한전쟁의 중요성이 재도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래식 비핵전쟁에서도 핵억제의 이중성 문제는 적용되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방적 대답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統制概念, 또는 認識論的 次元에서 分析해 본다면 억제형식의 論理는 변화될 수 없는 것

이므로 적용수준의 차이는 부정할 수 없으 문제는 수용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나 재래식 비핵전쟁에서도 핵억제의 이중성 이다.

참 고 문 헌

1. Y. Harkabi,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Jerusalem : Israel Program for Scientific Translation, 1966).
2. B. Thomas Trout and James E. Harf, National Security Affairs(N. Y : National Strategy Information Center, 1982).
3. Bernard Brodie, "The Anatomy of Deterrence", World Politics, Jan. 1959.
4. John M. Collins, Grand Strategy, 大戰略論,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역(서울 : 국방대학원, 1979).
5. Herman Kahn, Thinking About Unthinkable(N. Y : Horizon Press, 1962).
6.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1960).
7. William R. Van Cleave, "The Nuclear Weapon Debate in Richard G. Head and Ervin J. Rokke ed, American Defense Policy III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3).
8. Lawrence Freedom,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London : MacMillian Press, 1981).
9. Ian Clark, Limited Nuclear War : Political Theory and War Conventions(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82).
10. Geoffery Blainey, The Causes of War(London : MacMillian Press LTD, 1973).
11. A. L. George and R.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 Theory and Practice(N. Y : Colombia Univ' Press, 1974).

반도체와 IC에 관한 상식

고 봉 홍

(대위·공군본부)

어느 날 KBS TV 아나운서가 서울 도심지에서 길가는 몇몇에게 IC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응답들은 아주 동떨어져 근처에서 조차 맴돌지 못하는 무관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다음은 '86년 9월 9일자 조선일보 경제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256K램 국내 첫 개발
· 삼성반도체 세계 3번째로」

최첨단 반도체인 256K램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D램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S램 수준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들어서게 된다. 중략……

어떻게 지나치셨습니까?

그냥 K램이나 S램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지나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군은 기술군입니다. 그것도 수 많은 IC가 내장된 고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항공기와 전자장비를 직접 다루는 기술군인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이 정도의 상식은 알아 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차후 유사내용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도체와 IC란 무엇이며 IC의 종류와 용도 및 특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반도체란 무엇인가?

반도체(半導體)란 한자의 의미가 말하여 주듯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도체와 그 반대인 부도체와의 중간 물질이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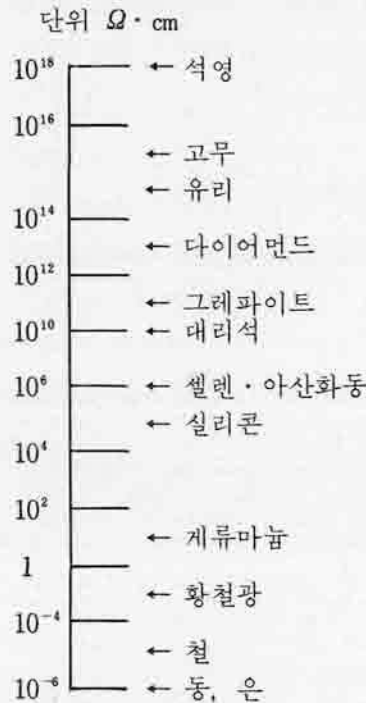
전기전도의 현상은 전하를 가진 캐리어(전기를 운반하는 운반체)인 전자가 고체 내를 이동함으로써 일어난다. 그래서 고체 내에 이동 가능한 전자, 즉 캐리어가 많이 있으면 저항이 작아져서 도체가 되는데 금속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대로 캐리어가 희박할 경우에는 부도체 또는 절연체가 되는 것이다. 반도체란 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저항을 가진 것으로 비저항 수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대략 $10^{-4} \sim 10^8 \Omega \text{cm}$ 의 범위에 분포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도체의 범위에 속하는 대표적인 광물은 게르마늄(Ge)과 실리콘(Si)으로 이것에 특성의 불순물(5가불순물:인, 비소, 안티몬, 3가불순물:칼륨, 알루미늄, 인듐, 보론 등)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전혀 다른 반도체들을 다시 결합시켜 반도체 소자를 만든다. 우리가 흔하게 들어오고 있는 트랜지스터(TR)나 다이오드(Diode) 등 모든 반도체 소자들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전자소자(Electronic Device)는 스스로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능동소자인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과 그렇지 않은 저항,

각종 물질의 비저항의 분포



콘덴서, 코일 등과 같은 수동소자로 구분된다. 이러한 소자들을 금속선을 이용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대신에 일단의 공정으로 이러한 소자의 연결이 한꺼번에 하나의 반도체 판위에 다른 반도체 등을 접착 혹은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똑같은 성능의 마이크로 전자회로를 만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좁은 면적에 다수의 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집적이라 하고 그 회로를 IC(Integrated Circuit)라고 한다.

1950년에 처음으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진 이래로 좁은 면적에 많이 모아 놓으려는 집적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는 1cm^2 이내의 면적에 약 백만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게 되었다.

'70년대 이후에는 불순물 제거능력과 공

정상의 청결유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여 반도체 표면에 실리콘산화막(SiO₂)을 형성하고 그 위에 금속을 붙이는 MOS (Metal Oxide Semiconductor) 반도체의 양

산이 가능하자 '80년대에 와서는 적은 소비 전력, 간단한 공정, 크기가 작다는 장점들 때문에 집적회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집적도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연 대	집 적 수 준	Chip당 부품수
1950	SSI (Small Scale Integration)	2 ~ 50
1960	MSI (Middle Scale Integration)	50 ~ 5,000
1970	LSI (Large Scale Integration)	5,000 ~ 100,000
1980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십만 ~ 백만
1990	ULSI (Ultra Large Scale Integration)	백만이상

다음은 IC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주개발을 위한 로켓과 인공위성 혹은 비행기와 미사일에 실리는 전자기기는 작고 가벼운 동시에 신뢰성이 높은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전자계산기는 수백 수십만의 부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품의 소형화 및 신뢰도가 필연적이다. 이런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하여 계속 발전되어 오는 IC의 종류를 분류하면 크게 반도체 IC, 박막(薄膜) IC 및 이를 혼합한 혼성(Hybrid) IC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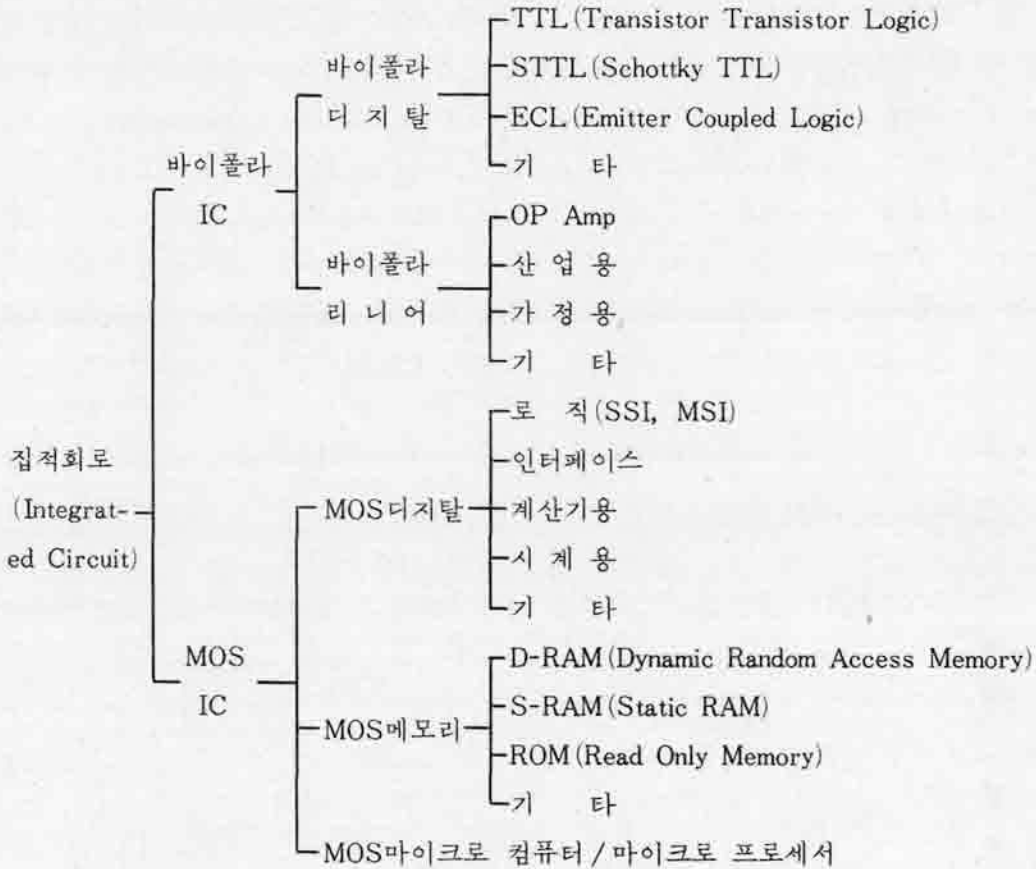
박막 IC는 절연물기판 위에 도체, 저항체, 유전체의 박막을 증착(蒸着)시켜 저항 및 콘덴서를 만든 회로이다. 트랜지스터 및 다이오드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으나 기타 IC 만큼 실용화 되지는 못하였다.

반도체 IC란 실리콘 결정기판(단면 1.5 × 1.5mm, 두께 0.3mm 정도의 조각으로 칩

이라고 부름) 안에 다른 반도체를 침투 및 접속시켜 일정한 기능을 가진 전자회로를 구성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IC란 이 반도체 IC를 의미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현재 사용하는 IC을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된 트랜지스터의 종류에 따라 IC종류는 구분되는데 전기를 운반하는 캐리어가 둘인 바이폴라(Bipolar) 트랜지스터로 만들면 바이폴라 IC라고 하나짜리인 유니폴라(Unipolar) 트랜지스터로 만들면 유니폴라 IC가 된다(MOS는 유니폴라임). 현 추세는 MOS IC가 주종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저소비전력, 간편한 공정 및 고집적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며 이런 장점으로 인하여 컴퓨터의 부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IC의 생산은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가까운 것을 요구한다. 가령 작업실은 30cm 입방의 공기 속에 0.5미크론(직경 1만분의 5cm) 이하의 먼지가 100개 이하의 상태인 "클래스100"을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의 정밀도에서는 9자가 11개 늘어선 "일레븐 나인"이라는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IC는 장점 그대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전자제품의 신뢰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전자부품의 신뢰도는 0.01% / 1,000시간 정도이다. 다시말하면 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을 천시간 동작시키면

거의 고장이 발생한다는 셈이다. IC 경우는 그 속에 수만 부품이 들어 있지만 금속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 등이 없으므로 IC하나 그 자체를 부품하나와 동일하게 되므로 고장확률은 거의 없게 되어 신뢰성은 높아진다.

다음은 여러 종류의 IC들 중에서도 서론에서 언급했던 메모리용 IC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하겠다.

컴퓨터에 있어 3대 요소라면 연산, 기억, 콘트롤이라 하는 만큼 메모리용 IC는 컴퓨터의 소형화 및 그 특성에 따라 입출력 속도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므로 그 중요도의 비중은 대단하다.

그럼 기억하는 대상이 무엇이며 그 단위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2진수 "0"과 "1" 두 개의 수만 가능하다. 즉 있다와 없다는 조합들로만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0"과 "1"을 각각 Bit라고 함). 예를 들어 신호등처럼 빨강, 초록, 주황, 좌회전용 색깔만을 표시해야 한다면 2개 비트만 있으면 전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2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이므로 표현해야 될 신호 전부를 표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면상에 표현 가능한 모든 부호를 보면 아라비아 숫자 0에서 9까지 10가지와 알파벳 대소문자 52개를 그리고 특수문자 및 기타를 100가지라고 하더라도 총 200가지가 채 못된다. 즉 여덟개 비트($2^8=256$)만 있으면 256가지 경우를 표현 가능하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던 경우를 표현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기억용량을 바이트(Byte)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이 Byte란 8비트라는 하나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컴퓨터 기억용량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 컴퓨터의 기억용량이 256K Byte일 때 몇 매의 200자 원고지 내용을 기억 가능한지 계산해 보면 $256 \times 1K (K = 10^3 \text{이 아니라 } 2^{10} \text{ 즉 } 1,024 \text{임}) \div 200 = 131,072$ 약 13만매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엇인가 기억하는 컴퓨터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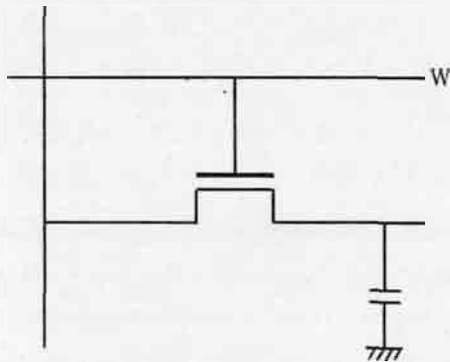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IC 메모리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것 두가지는 RAM(Random Access Memory)과 ROM(Read Only Memory)이다. RAM은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써 넣기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읽어낼 수도 있는 반면 ROM은 조각된 대리석과 같은 것으로 컴퓨터의 일반적인 동작에 필요한 정보를 고정적으로 써 넣어 읽히기만 하고 다시 다른 내용을 써 넣을 수 없는 것으로 하드웨어의 일부인 펌웨어(Firmware)는 거의 이 ROM에 기억되고 자주 바뀌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RAM 속에 기억된다. RAM의 종류는 크게 다이내믹(Dynamic)형과 스테틱(Static)형 두가지로 구분하며 각 DRAM, SRAM이라 부른다.

다이내믹형은 MOS 회로의 높은 임피던스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기생용량에 전하를 축적시킴으로써 정보를 기억시킨다. 이 기생용량 중의 전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방전하여 없어지므로 이전에 다시 축적시키는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이런 행위를 리플레시(Refresh)라고 하며 이렇게 일정 시간(약 2ms~4ms) 간격으로 충전행위를 해주어야 한다는데서 다이내믹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다음 그림과 같이 DRAM은 하나의 MOS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용량(Capacitance)으로 셀(Cell: 기억의 단위)을 구성하므로 구조가 간단하고 부피가 작아 대용화에 적합한 메모리 IC이다.

'86년 5월 「고도정보화 사회의 주역 마

DRAM의 메모리셀은 트랜지스터 1개와 콘덴서 1개의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대용량화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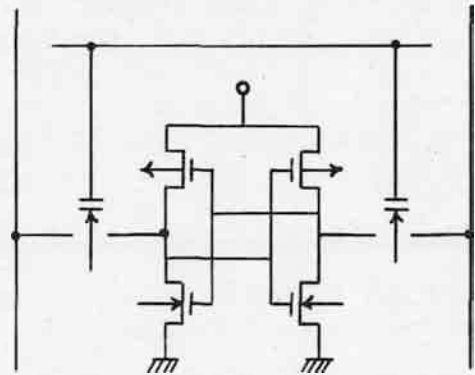
DRAM 메모리셀

이컴이라는 테마로 동경유통센터에서 열린 「마이크로컴퓨터 쇼 '86」에서는 16M 비트 DRAM의 메모리셀 시뮬레이션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1970년에 1K 비트 DRAM이 실용화된지 약 17년 만에 4M비트까지 발전했으며 향후 차세대 IC 메모리의 주역으로서 위치할 것이 확실하다.

한편 Static형은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이용, 메모리셀이 구성되어 리프레시가 필요치 않으며 전원이 끊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지한다. 그래서 고정이라는 의미의 Static 첨자 S를 붙여 SRAM이라고 부른다.

SRAM은 리프레시해주는 별도 회로가 없어 사용하기 쉬우나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로서 메모리셀을 구성하므로 부피가 커서 고집적화에 불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RAM보다 읽어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형전자계산기 등의 버퍼메모리 혹은 고속 미니컴의 주메모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

SRAM의 메모리셀은 6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



SRAM메모리셀

다음은 읽어내기 전용의 기억장치인 ROM이다. 일단 정보를 써넣으면 변경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대신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정보는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RAM처럼 정보를 자유로이 써 넣을 수 있는 EPROM (Erasable Programmable ROM)도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산업기구나 정밀기기 등의 제어용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수요도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반도체 산업은 '60~'70년대에는 줄곧 트랜지스터 위주의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여 오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연구발전면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마법의 돌 또는 산업의 원유 등으로 표현되는 반도체를 한편으로는 “돈잡아 먹는 소자” 또 “밀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반도체산업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반도체라 함은 거의 대부분 IC를 일컫는 것이 되었을 정도로 IC의 비중이 커지면서 집적도가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다.

둘째, 반도체응용은 전자산업 뿐 아니라 거의 전산업에 확산되어 각종 기기의 자동화, 다기능화, 고급화, 소형화, 경량화 등을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셋째, 두뇌집약적 산업으로 종합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소자는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으며 그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조속한 양산체제를 위한 시설투자가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반도체산업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풀어 세계 수준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 우리의 통신전자장비는 물론 모든 무기체계도 우리의 IC로 만들어져 자주국방의 기틀을 튼튼히 마련하여 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반도체와 IC 특히 최근 최첨단 기술로서 지상에서도 접해오고 있는 IC 메모리를 중심으로 비교적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유사내용들을 접하실 때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통신, 전자 그리고 전산(하드웨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저희 통신감실을 노크하여 주십시오.

空軍敎理考察 <II>

徐 聖 道

(소령 공군본부)

I. 國家安保와 軍事의 手段

大韓民國이 軍事力을 保有하는 窮極的인 目的은 國內外的 威脅으로부터 基本的인 制度和 價值를 維持하면서 自由民主主義 國家로 保全하는 것이다.

- 空軍基本敎理 第I章 序文中 -

軍事敎理의 出發概念은 安保目標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國家安保政策은 國家安保目標를 追求하는 政府에 의해서 채택된 廣範圍한 行動方策을 말

한다. 國家政策은 國力의 主要手段 즉 政治, 經濟, 社會心理, 科學技術, 軍事 등을 使用함으로써 수행한다.

國家統帥權者는 이러한 手段이 國家安保目標를 최대로 奇與할 수 있는 方法에 대한 決定權限을 法律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國力의 이러한 手段들은 相互補完해 주고, 統合·調整된 方法으로 使用되고 있다. 國家安保나 國益에 直接的으로 威脅을 주는 狀況일수록 統合된 努力의 일환으로서 軍事力 手段에 대한 影響과 依存度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國家安保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軍事力의 使用은 國力의 諸手段과 統合하게 되며, 結果적으로 軍事目標와 軍事力에 의하여 이러한 構造를 지탱시켜야 한다.

따라서 空軍敎理에서는 國家安保를 위한 軍事의 手段을 다음과 같이 導出 連結시켜 주고 있다.

國家安保는 國內外的 威協으로부터 恐怖, 不安을 除去하여 自國의 安全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軍事의 手段을 포함한 國力의 諸手段을 相互補完, 調整, 統合함으로써 이루어지나, 國家安保나 國家利益에 直接的으로

로 威脅을 주는 狀況일수록 軍事의 手段에 依存하는 傾向이 增大된다.

軍事의 手段의 使用은 다른 手段에 의해서 成就될 수 없는 國家目標 達成의 最後 手段이기 때문에 國家의 生存과 直結되는 國家安保에 重要한 役割을 한다. 따라서 敵의 侵攻을 격멸할 수 있는 軍事力과 필요시 이를 使用할 意志를 檢비하여야 戰爭을 抑制할 수 있으며, 抑制 失敗時 戰爭遂行을 통해 勝利를 爭取할 수 있다.

따라서 空軍基本敎理의 概念은 軍事力을 통하여 大韓民國의 國是를 追求하는 理念에서 出發한다고 보아야 한다.

II. 空軍의 目標

大韓民國 空軍은 國家防衛의 核心戰力으로서

첫째, 戰爭을 抑制하고

둘째, 領空을 防衛하며

셋째, 戰爭에서 勝利하고

넷째, 國益을 增進함을 目標로 한다.

- 空軍基本敎理 第I章 第1節 -

目標란 그 定義에서 “軍事적인 任務 및 課業에 密接한 關連性은 갖고 있으며, 觀念上 의미로는 「要求되는 效果」이며, 具體적인 면으로는 「取해야 할 措置에 대한 實質적인 對象이다.” 따라서 空軍目標란 空軍의 任務나 課業과 관련되어 要求되는 效果

로서 空軍이 行動을 取하여 達成해야 할 實質적인 對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空軍의 全 構成員은 空軍目標가 지니는 意味를 敎理的인 側面에서 깊이 考察할 必要가 있다.

1. 戰爭 抑制

抑制란 軍事의 侵略과 行動을 計劃하고 있는 敵에 대하여 堪當할 수 없는 反擊을 가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충분히 誇示할 때 發生되는 敵의 心理狀態이다. 즉, 敵으로 하여금 그들의 行動이 招來할 結果가 두려워서 그 行動을 미리 斷念하게 하거나, 우리가 受諾할 수 있는 어떤 措置를 취하게 하는 우리의 힘과 意志를 認識시키는 過程이다.

신속한 展開 및 浸透能力을 가지고 막강한 火力을 驅使할 수 있는 空軍은 軍事의 威脅이 增大될 때 非常待機 戰力의 增加, 部隊의 移動展開, 偵察飛行의 強化 등으로 敵이 挑發하는 軍事行動을 단호히 擊退, 懲懲, 報復하겠다는 國家意志를 誇示함으로써 戰爭勃發을 事前에 抑制한다.

따라서 空軍은 現代戰의 特性에 비추어 戰爭勃發 以後의 空軍力 確保가 극히 制限되므로 平時에 適正水準의 戰力을 確保 維持해야 한다.

2. 領空 防衛

空軍力은 敵機의 領空侵入을 防衛하는 核心的 役割을 담당한다. 空軍力에 의한 領空防衛는 敵의 領空侵入을 거부하고 領空에

侵入한 敵을 探知, 識別, 邀擊, 擊破함으로써 敵의 奇襲攻擊 效果를 減少시키며 우리의 軍事力量, 社會, 産業構造의 有機的 機能과 國民의 戰意를 保全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空軍은 다음과 같은 能力을 具備하여 維持해야 한다.

- 平時 領空에 대한 監視 및 統制
- 敵의 攻擊에 대한 早期警報
- 攻擊에 대한 防衛
- 民防衛体制 支援

3. 戰爭 勝利

勝利한 敵을 對象으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거나 戰爭意志를 분쇄하여 平和를 強要하도록 決定的으로 敗北시키는 것으로서 優勢한 戰鬥力과 健全한 作戰概念에 의한 軍事作戰이 必須의이며, 또한 作戰環境에 符合된 指揮官의 指導力에 달려 있다. 戰爭은 人員, 裝備, 環境 등 基本的인 要素의 相互作用 關係에 의해서 遂行되므로, 어느 한 가지 要素만으로는 勝利할 수 없다.

그러므로 空軍은 戰爭에서 勝利하기 위하여 人員, 裝備, 環境을 相互 有機적으로 結合하여 戰力發揮가 極大化 될 수 있도록 空軍力을 準備 및 運用하여야 하며, 戰時에 空中優勢確保, 支援作戰의 遂行, 戰爭遂行 潜在力을 破塊시킴으로써 戰爭을 勝利로 이끄는 데 核心的인 役割을 遂行한다.

4. 國益 增進

空軍力 運用을 통한 軍事作戰은 필요시

國家政策을 遂行하는 手段으로써 國家目標 達成을 支援하는데 지대한 效果와 影響이 있다.

空軍力은 國家間的 紛爭에서 武力示威를 통해 國家의 意志를 誇示할 수 있으며 또한 敵國에 대한 戰爭終了나 平和를 強要하여 유리한 條件을 造成하는데 核心戰力으로서 國家利益에 기여한다.

또한 空軍은 尖端科學 技術軍으로서 다음과 같이 國家發展에 기여한다.

○ 科學技術 要員을 養成, 活用後 社會에 輩出한다.

○ 空軍力 運用을 통한 航空科學技術 및 知識을 開發하여 航空産業 發展에 기여한다.

○ 災難救助, 被害復舊 등 對民支援을 통하여 國民福祉增進에 기여한다.

Ⅲ. 空軍力의 意義

空軍力은 戰爭抑制力, 戰鬥力, 支援戰力으로서 意義가 지대하며, 모든 戰爭에서 勝敗의 關鍵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國土가 狹小하며 防禦縱深이 淺을 수록 空軍力의 役割은 더욱 增大된다.

- 空軍基本敎理 第Ⅲ章 第1節 -

指揮官이 空軍을 運用하는 軍事行動의 類型에는 小規模 戰鬥로부터 國家의 生存과 直結되는 戰略的 戰爭까지 廣範한 戰爭 스

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空軍은 이러한 多様な 軍社行動의 挑戰에 대처하고, 敵과 交戰하며, 敵을 敗北시키기 위하여 空軍力を 準備하고 있다. 空軍力은 國家를 防衛하고 侵略을 抑制하며, 他戰力과 統合된 戰力を 견지하여 國家政策과 國家目標를 支援하는 戰爭指導에 공헌한다.

따라서 空軍基本敎理에서는 空軍力의 意義를 敵의 侵略에 대한 抑制, 敵을 敗北시키는 戰鬥力, 統合戰力を 견지하는 支援戰力を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空軍力 運用을 통한 軍事作戰은 國家間의 紛爭을 抑制하고, 抑制失敗時 自國이 受諾 가능한 條件下에 戰爭을 終熄시킬 수 있는 与件을 造成시킨다. 空軍力은 이러한 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 固有의 特性和 能力을 가지고 있다. 空軍力은 空中空間을 媒介로 하는 固有의 特性을 가지기 때문에 政治, 軍事的으로 복합된 狀況下에서도 敵挑發行爲에 대하여 迅速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目標地域까지 多様な 武器體系를 運搬하여 正確하게 破壞시킬 수 있으므로 軍事

行動의 效果와 影響力을 極大化시킬 수 있는 廣範圍한 能力을 가지고 있다.

空軍力은 戰·平時를 莫論하고 國家의 關心地域에서 武力示威를 통하여 敵의 軍事行動을 制限할 수 있으며, 또한 敵挑發에 대한 倍加의 膺懲報復力을 행사하려는 國家의 意志를 實現함으로써 敵의 挑發을 저지하는 抑制力을 갖는다.

空軍力은 固有의 特性和 能力을 利用하여 戰場地域 全域에 걸쳐 敵의 軍事力量을 無力化 및 破壞시킴으로써 敵의 軍事目標 達成을 거부하고, 友軍의 活動을 보호하며, 時·空間을 초월하여 戰鬥力을 集中하여 敵의 心臟部に 위치한 標的을 強打함으로써 友軍의 勝利에 決定的인 役割을 한다.

또한 空軍力은 全般的인 軍事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合同作戰 戰力의 一部로서 地·海上軍 支援作戰은 友軍과 대치하고 있는 敵의 標的은 물론 戰場地域內的 敵의 軍事力 增強 및 再補給을 차단하여 敵의 機動性を 制限함으로써 友軍에게 主導權을 掌握하게 한다.」

丁卯 · 丙子胡亂의

歷史的 意義

I. 緒：戰史理解를 위한 前提

個의 歷史的 事實이 다 그러하듯이 특히 戰爭史는 勝敗를 통한 敎訓의 導出에 그 목적이 주어진다. 하겠다. 그러나 敎訓을 얻기 위한 것 그 자체가 科學的이고 構造的인 당시 歷史의 이해와 反對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戰爭은 그 사회의 諸般 矛盾이 表出된 구체적 형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인 兩國의 政治, 社會經濟的 狀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國際情勢에서의 力学관계가 정밀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존의 戰史理解의 몇 가지 잘못된 방향을 지적하고 그것의 根源을 살펴보겠다.

우선 가장 만연되어 있는 것은 英雄史觀이라 하겠다. 즉 전쟁에 이긴 까닭은 한 영웅이 훌륭히 잘 싸웠기 때문이고 패한

成 周 鐸

〈문박 · 충남대 교수〉

한국고대사(백제사) 전공

충남대 사학과 졸업

동국대 대학원 수료(문학박사)

충남대 백제연구소 소장 역임

원인은 당시의 政治와 外交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단순한 해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영웅은 神話的이고 超人的인물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전략 전술을 구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웅사관'은 때때로 일반인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기도 하는데 영웅은 超人이라는 것보다는 그도 우리와 같은 人間인 만큼 우리도 노력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경향은 결과만을 중시하여 관념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전쟁침입의 不當性이나 전쟁을 통한 피해와 파괴만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國難史觀이다. 日帝가 식민지 침탈을 合法化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半島的 宿命論, 停滯性論을 주장했던 것은 널리 認知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國難史 중심의 역사서술의 배경은 기묘하게도 식민지 사관과 연결되어 있다. 日人들은 壬亂史나 胡亂史를 우리측의 일방적 패배로 기술하고 있으며 수 많은 史料를 脱落 내지는 造作시켰던 것이다. 여타의 문헌에 보이는 史料는 且置하고라도 丁卯·丙子胡亂에 있어서도 王朝實錄에 보이는 중요기사 중 특히 朝鮮側의 義兵의 활동에 관한 기록, 또는 後金軍의 非行에 관한 기록 등이 日帝가 펴낸 朝鮮史研究会編의 「朝鮮史(第 5編 2卷)」에는 脱落¹⁾되어 있는 것이다. 戰史는 國難史가 아니라 國難克服史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슬기롭게 국난에

대처하여 나갔는가 하는 점이 중점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非科學的 認識 역시 止揚되어져야 한다. 오직 죽음으로서만 抗戰한 것이 가장 愛國이며 전술적 후퇴나 敵의 후미에서 교란시키는 게릴라식 전법에 대한 무시의 경향이 그것이다. 이는 胡亂의 이해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本論에서 기술하겠지만 斥和·主和派에 대한 재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전쟁의 최종 목표는 最後 勝利이며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生命의 존중이다. 싸움에 임하지도 않고 自決하는 것 등에 대한 평가는 개인주의적 애국심의 견지에서 내려져야 할 것이다.

위의 몇 가지 경향들을 前提로 하여 본론에서는 丁卯·丙子胡亂의 歷史的 背景을 國際情勢와 國內狀況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전쟁에서의 敎訓을 導出해 내기 위하여 戰爭의 原因과 推移, 政治勢力들의 朝廷에서의 論議, 官軍이 失敗할 수 밖에 없었던 戰略·戰術의 내용, 그리고 一般百姓들의 戰爭에 임하는 자세 등을 살펴봄으로써 丁卯·丙子 兩次胡亂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歷史的 敎訓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丁卯·丙子胡亂의 歷史的 背景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東亞細亞情勢는 커다란 변동기였다. 14세기에 있어서의 동아시아는 다 같이 政權担当者가 바뀌

거나 또는 새로운 國家가 출현하는 등 興亡盛衰가 거듭된 끝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다가 약 2세기만인 16세기에 이르러 소용돌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6세기 말에는 大戰亂으로 폭발되었다. 즉 日本의 明에 대한 도전으로 일어났던 壬辰倭亂(1592)이 바로 그것이며 이로 인하여 朝鮮과 明의 国力이 결정적으로 피폐하기에 이르자 이러한 틈을 타서 세력을 확장시킨 女真族이 다시 明에 대항하게 되었던 것이다.

明의 세력권 밖에서 성장한 여진족은 원래 建州, 海西, 野人의 세 부류가 있었다. 그 중 建州衛에서 누루하치가 나타나 1589년(宣祖 16년)부터 인근부락을 점령하고 武力과 혼인정책 등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여 1615년에는 八旗라고 불리워지는 軍事制度의 통일을 보고 1616년 1월에 헤투알라(興京老城)에서 帝位에 올라 後金을 建國했다.

그러나 당시 후금의 경제적 기반은 매우 약하였다. 그리하여 경제적 자급자족을 위하여 遼東의 農土를 개간하려고 하였으나 명은 만주족과 경제선을 근거로 그 개간을 방해하고 있었다. 결국 후금은 1618년에 명에 정면도전하여 요동으로 진군, 撫順을 점령하고 淸河를 함락시켰다. 후금의 진격에 대하여 명은 다음 해에 본거지를 요양에 두고 10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4路로 나누어 누르하치의 본거지인 헤투알라를 공략하려고 하였다.

한편 명은 조선에 대하여 원병을 요청하

였는데 조선의 조정에서는 그 출병에 대하여 논의가 많았으나 드디어 출병기로 결정하여 姜弘立을 원수로 삼아 13,000의 병력을 이끌고 명군을 돕게 하였다. 그러나 光海君은 후금의 흥기와 명의 쇠운을 간파하고 임진왜란 후의 피폐한 국력을 감안, 강홍립에게 형세를 판단하여 후금에의 투항도 주저치 말 것을 지시하고 몰래 사람을 시켜서 이 출병이 조선측의 본의가 아님을 누루하치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당시의 국제정세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였다.

사르후戰을 비롯한 일대 접전에서 명의 참패는 명의 만주에 있어서의 세력이 크게 꺾이는 明清交替의 시발점이 되었으나 1621년(광해군 13년) 명의 毛文龍軍이 단도(楸島)에 來抛하여 요동방면의 명군과 후금에의 협공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으므로 후금과 조선과의 사이는 점차 악화되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당시 朝鮮의 국내 정치상황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종래에는 주로 당시의 爲政者들이 黨爭만을 일삼아 國政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되어 왔지만 이 시기 우리의 정치적 상황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었다.

조선왕조는 14세기 말에 開創된 이후 약 한 세기 동안 강력한 中央集權體制를 추구하여 통치체제 확립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 그러한 강력한 집권체제의 추구는 官人의 職權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았다. 즉 개개의 官人들의 職權이 최대한 보장된 것을 기화로 그것을 私利의 도모에 남용하는 예가 때때로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集權體制가 身分制 아래서 營為될 때는 어느 시기에서나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15세기 말엽부터 高潮한 조선왕조에서의 그것은 지금까지의 집권체제의 추구 強度가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 폐단의 정도가 常時的인 것이 아니었다. 이 시기 官人層의 職權의 남용은 국가적 차원의 人力과 財源을 私的인 것으로 돌리는 형태였으므로 그 결과는 지금까지 닦아 온 통치체제의 기반을 흔들여 놓는 것이었다. 16세기 전반기 일대동안 계속된 이른바 威臣政治란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아래서 私利 도모의 제일차 수단인 관직에 대한 人事權을 왕실의 外戚系가 장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치형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왕조는 자체 내에서 士林派라는 새로운 정치적 비판세력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士林派란 대개 지금까지 중앙의 관직체계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던 지방 중소지주 출신의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非理가 公道에 입각한 治人의 실현을 위해 心性的 陶冶 곧 「修己」를 前提로 하는 性理學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

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16세기 전반기에 잇따라 일어난 士禍는 바로 이러한 입장의 士林派와 威臣系와의 대립의 구체적 표출형태였던 것이다.²⁾

그러나 이러한 수차의 士禍를 거치면서 士林派는 점차 그들의 학문적, 정치적 입장에서 共感帶를 넓혀 나가게 되고 宣祖 이후에는 지금까지 억제된 사림계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士林系가 중앙 진출 이후 宣祖 8년부터 자체 分黨이 일어나게 된다. 즉 어디까지나 更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사림의 기본입장이었지만 政局의 현실에 따라 대응의 모색에서 強·穩 兩論이 갈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세력의 입장은 後述하게 될 胡亂時의 主戰論과 主和論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宣祖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光海君이 後金과의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융통성 있는 外交政策을 전개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는 즉위하자 일대 혁신정치를 단행했는데 이는 그가 士林政治에 한계를 느꼈음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친형과 永昌大君 母子 등 政敵을 대거 숙청하였으며 壬亂 이후의 피폐된 産業과 재정기반을 재건하고 國防을 강화하기 위하여 量田事業, 戶籍事業을 실시하고 城池와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光海君의 혁신정치는 전후의 복구사업에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 왔으나 名分과 義

리를 중시하는 사람들로부터는 큰 반발을 낳았다. 그의 즉위 자체가 不義였는데, 그는 嫡子가 아닐 뿐 아니라 大妃를 폐위시키고 永昌大君을 살해함으로써 綱常의 倫理에 크게 저촉된다고 士林들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光海君은 결국 士林의 지지를 받는 西人에 의하여 쫓겨나고 仁祖가 대신 즉위하였다(仁祖反正 1623).

西人政權은 '崇用士林'의 기치를 걸고 士林朋黨政治를 재현하는 한편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親明排金政策을 밀고나가 멸망해가는 명에 친선을 표하고 후금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상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대륙에서는 明과 清이 교체하는 시기였음에 反하여 조선 내부에서는 仁祖反正으로 인하여 崇明事大主義자들이 득세함으로써 多變하는 國際情勢에 정확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배경하에서 일어난 丁卯·丙子胡亂의 내용 역시 위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戰爭은 그 時代, 그 社會와 遊離되어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며 전쟁 자체는 인간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사용되는 武器 및 기타 道具와 裝備은 그 時代의 社會적 산물³⁾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같은 兩次胡亂의 배경과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教訓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胡亂의 진행과정과 처

應形態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Ⅲ. 戰爭의 進行過程과 対応樣狀

1. 戰爭의 原因과 經過

親明排金政策을 표방한 西人이 정권을 장악한 仁祖反正 뒤에 反正 후의 論功行賞에 불만을 품은 西人系였던 李适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後金으로 도망가 仁祖 即位의 부당성을 호소한 사건이 당시 조선과 후금사이에 일어나게 된다. 이 때 후금에서는 太祖인 누르하치와는 달리 主戰論을 취하고 있는 太宗이 즉위하고 있었는데 그는 光海君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名分을 내걸고 1627년(仁祖 5년) 1월에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平安道 義州를 거쳐 黃海道 平山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丁卯胡亂이다.

그러나 후금은 본래 우리 나라를 정복하려는 뜻이 없었으므로 곧 和平을 제의하였다⁴⁾. 조선 조정에서는 和議에 응할 용의는 있었으나 국가적 체면문제나 明과의 事大관계, 姜弘立에 관한 문제로 和約이 성립되기에는 약 50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⁵⁾. 그러나 후금군이 完全 撤兵하기까지는 약 6개월이 걸렸으며 明의 援軍이 압록강에 이르렀지만 이미 화의가 성립된 뒤였다.

정묘호란으로 맺어진 兄弟之國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目前의 화급을 구하기 위한 것

이지 후금의 武力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조선이 후금과 화약을 맺어도 明에 적대하지 않는다는 조약은 이제까지의 對外政策에 변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⁶⁾.

仁祖 14년 후금의 태종은 稱帝하여 국호를 淸으로 바꾸었다. 春信使 羅德憲 등은 즉위식에 참여하였으나 구타를 당하면서도 끝내 허리를 굽히지 않았으며 청은 이에 王子의 人質과 斥和主唱者의 압송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묵살하였다.

그동안 椶島를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親明排金의 노선으로 인한 청과의 관계악화와 관련하여 조선 내의 主和論者의 동정을 관망하던 청은 主和論이 열세에 몰리자 청 태종은 1636년(仁祖 14년) 12월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질풍같이 내려와 5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이에 仁祖는 南漢山城으로 들어가 항전을 피하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仁祖의 宣戰교서가 내려졌다. 그러나 山城의 戰時準備는 식량 조차도 부족하였으므로 지구력이 없을 수 밖에 없었다.

各道의 병력이 남한산성으로 지원하러 왔으나 적에게 격퇴될 뿐이었으므로 江華의 함락소식이 전해오자 淸이 제시한 모든 항복조건은 수락되고 正月 30日 仁祖는 몸소 三田浦에 나가서 청태종 앞에 굴욕적인 항복의 의식을 行하고 世子는 그대로 淸陳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 맺어진 丁丑和盟⁷⁾은 조선과 청과의 君臣關係 유지와 명과의 외교단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12개 조항의 和約으로서 主戰派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

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같은 經路를 거친 丁卯·丙子胡亂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光海君을 위한 보복(丁卯胡亂)이나 단순한 親明排金政策에 대한 보복(丙子胡亂)이라고만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

첫째, 전쟁의 內的 要因으로 西人勢力의 名分論이 피할 수 있는 戰亂을 자초한 것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東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에서 조선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로 인하여 淸건설의 安全性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明과의 友好關係를 맺고 있는 朝鮮을 굴복시키는 일이 기초적인 작업이었다는 점도 빠질 수 없는 戰爭原因 중의 하나였다. 이는 조선의 完敗가 朝·明·淸 3국 간의 세력균형과 당시 정세의 諸局面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한 것이다.

셋째, 戰爭의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후금측의 經濟的 요구에 의한 것을 말할 수 있다. 前述했듯이 후금의 경제적 기반은 매우 미약했다. 이는 兩次胡亂이 끝난 후 被擄人을 刷·贖還하는 과정과 淸에게 무수히 바쳐야 했던 朝貢에서 나타나고 있다. 金側에서는 조선에서의 경제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被擄들을 무역상품으로 하여 贖還開市 및 逃人刷送을 강요함으로⁹⁾ 경제적인 곤란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丙子胡亂時에도 그대로 나타나 贖價의 실제 거래액은 一人價가 거의 150兩에서 250兩이 보통이었고 비쌀 때에는 1,500兩

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즉 청측에서는 포로를 不時에 소용되는 비용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財源으로 삼았던 것¹⁰⁾이며 이는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본래의 의도와 경제적인 타격으로 조선을 服屬시키려는 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兩次 胡亂의 원인은 다각도로 分析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論旨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호란의 원인이 黨爭만을 일삼은 정권담당자의 탓으로 돌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만 지적하도록 하겠다.

2. 戰爭에의 対応樣狀

2차례에 걸친 胡亂으로 전쟁상태에 들어간 조선에서의 對戰樣狀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제 主戰·主和論으로 나뉘어졌던 執權勢力들의 대응입장과 官軍에서의 戰略·戰術的 대응형태, 그리고 一般百姓들의 國亂克服意志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었는가의 세 가지 부면으로 나누어 考察해 보겠다.

淸 이전에 朝鮮과 明과의 관계는 사실 明에 事大하였으나 그 관계는 형식적인 朝聘禮文에 그치었고 明의 朝鮮에 대한 내정간섭은 全無한 독자적 입장에서의 交隣關係였으며 實利的 關係였다. 그러나 壬亂 중의 明援兵으로 일본군이 격퇴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再活藩邦의 恩'으로서 明을 事大하게 되어 이 때부터 사대관계의 質

이 변하게 된 것이다¹¹⁾.

淸과의 抗爭에서 조정에서의 대응입장이 구체적으로 표면화 된 것은 淸이 君臣關係를 요구하면서부터였다. 즉 조정에서는 즉시 武力으로 淸을 응징하자는 斥和主戰派와 외교담판으로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內政改革을 통해서 국력을 키우자는 主和派로 나뉘어졌고 前者는 名分을 중시하는 性理學者들이, 後者는 陽明學에 관심을 가졌던 性理學者들이 가담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對戰 입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였던 양명학자와의 사이에 내재되어 온 갈등이 전쟁이라는 것을 계기로 표면화 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斥和人들은 무슨 이유로 斥和를 주장했는가?

대표적 척화론자인 吳達濟를 변호한 侍講院說書 俞樾의 상소에 의하면

…… 殿下於癸亥 反正之初 歷數光海之罪與虜相通 實居其一 此乃今日立國之本也 惟彼斥和之輩 赤豈為自身計哉 只知天地之常經 欲扶不易之大義而已 有何誤國之罪乎……

라고 論하였고

'비록 나라를 들어 쓰러진다 해도 向明의 大義는 저버릴 수 없다'

고 하였다. 이에 대해 후금에서는 '朝鮮은 兒女國'이며 무엇을 믿고 그러느냐고 조소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動機만 순수하면 結果를 돌보지 않는 주자학적 명분론자였고 禮儀와 大義名分을 외치는 소리는 仁祖反正

으로 그들에게 더욱 큰 합법성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러한 主戰論이 우세했고 이것만이 愛國하는 방법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강경했던 당시의 斥和論者에게 직접적으로 반발한 것은 城을 지키는 軍士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산성을 지킬 수 없다 하여 성을 버리고 關門 앞에 모여 斥和臣의 淸으로의 縛送을 요구하였다. 당시 남한산성을 지키는 병사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입으로만 싸움을 외치는 斥和人들을 仇讐와 같이 보았으며 상황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을 大聲絶叫하였다 한다¹³⁾.

여기에 일반 백성들의 마음도 다름이 아니었다. 남한산성에서 下城한 仁祖가 포로가 된 백성들을 버려둔 채 그대로 上京하는 것을 보자 王을 바라보고 「吾君吾君 捨我而去乎」¹⁴⁾라고 통곡하며 길을 메었다 하니 당시 백성들의 戰爭에 대한 심정이 어떠한지 간접적으로나마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今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애국자로 꼽혔던 三學士(洪翼漢, 尹集, 吳達濟)는 朱子學的인 理想論者였을 뿐이며 그들의 애국의 대상은 조선이 아니라 명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崔鳴吉이나 李敏求 등의 主和派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日帝에 의하여 삭제된 義兵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丁卯·丙子の 亂으로 官軍의 피해는 매우 커서 그 재정비가 거

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한다. 이 때 義兵은 平安·黃海의 곳곳에서 기습하여 후금군의 배후를 치는 게릴라식 戰法으로 被擄人을 구출하고 敵을 괴롭혔으며 특히 前 靈山縣監 鄭鳳壽¹⁵⁾의 龍骨山城과 義州地方에서의 李立¹⁶⁾의 활약은 매우 뛰어났다 한다. 이 밖에도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抗戰들은 國難克服에의 강한 意志를 그대로 표현해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官軍의 대응면에서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후금군이 침입할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의 전통적 戰略과 武器를 살펴보고 이를 官軍의 無能 혹은 不在라고만 정의할 수 있는지를 再考해 보겠다.

官軍이 어떠한 戰略으로 대항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胡亂 이전의 준비태세와 朝鮮時代 全般에 걸친 武器狀況 등을 살펴 봄으로 당시의 대응을 유추해 보는 방식을 택하기로 하자.

朝鮮時代に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전술은 흔히 「長兵」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즉 騎兵, 歩兵 두 가지 부류가 다같이 弓矢, 火器 등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主武器로 삼아 遠隔戰에서부터 적을 제압하여 드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에 비하여 전술적 우세를 획득하고 있었지만 倭가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한 鳥銃으로 인하여 그 우세가 깨져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조선은 전통적으로 火器

가 우세했었다. 이는 倭를 가상적으로 하여 전술을 구사했던 데에서 유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로 인하여 발달한 海軍의 裝備와 戰功은 麗末 鮮初期에는 유럽보다도 1~2 세기를 앞서가고¹⁷⁾ 있었다. 壬亂 이후에는 海軍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光海君 때에는 舟師庁을 두어 水軍의 복구를 꾀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東亞細亞에서는 두 가지의 전술이 있었다. 즉 주로 北方에서 유목민족의 침입에 대응하던 이른바 北兵과 남부 해안지역에서 잦게 출몰하는 왜구에 대비하여 독특한 전술을 달리 개발한 南兵 등 두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騎兵을 常用하는 유목민족을 상대하는 입장의 北兵은 마찬가지로 騎兵을 주로 하여 長兵戰術에 의존한 반면 南兵은 倭의 短兵戰術에 대응하는 것으로 壬亂 이후에는 槍, 劍을 제압하는 새로운 무기(篋, 箆)를 개발하는 한편 그들이 소지한 鳥銃에 대해서도 그 탄환을 막을 수 있는 옷을 개발하기까지 하였다. 흔히 「浙江兵法」 또는 「戚法」이라고 불리워진 이 새로운 전술은 援軍으로 온 明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소대가 모두 방패를 착용하면서 騎兵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壬亂 후 이 전술은 訓練都監에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조선 후기, 즉 胡亂前에는 이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胡亂 때에 와서 일대 수난을 겪는

데 유목민족인 여진족은 南兵아닌 北兵이었으며 騎兵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볼 때 胡亂에서의 참패원인은 政治的 이유, 國家의 經濟的 궁핍도 주가 되겠지만 전술적으로 南兵 중심으로 하여 倭를 가상적으로 여겨 발전시킨 兵法이 北兵인 여진족에게 대응하기에는 중과부적일 수 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丁卯胡亂 이후의 軍備의 재정비도 南漢山城의 수비강화에만 그쳤을 뿐 斥和論者들의 宣戰에 대한 강한 주장만이 朝野에 들끓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이다.

IV. 結 : 丁卯·丙子胡亂은 우리에게 어떤 教訓을 주는가?

戰爭이란 戰士들만의 戰鬪가 아니라 外交戰이며 國內外的 政治戰이며 一般 百姓들의 지지도와 함께 戰法에서의 科學的인 戰略, 戰術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戰史에 대한 構造的인 研究, 특히 兩次的 胡亂의 원인이나 경과 등에 대해서조차도 學界에서 체계적인 研究가 된 것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非專功者인 筆者의 考察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적하면서 위에서 考究한 것을 토대로 胡亂을 통한 몇 가지 教訓的 意味를 제시함으로써 結에 대신하도록 하겠다.

먼저 호란의 결과를 論하기에 앞서 호란

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 요인은 東아시아의 국제정세의 力学關係에 朝鮮이 차지하고 있었던 중요한 위치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精確한 分析이 恒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는 傳統的인 戰略的 武器의 우수성을 살려 다각도로 대처할 수 있는 戰略·戰術

을 항상 開發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네째는 具體的 代案이 없는 空理 空論이 가지는 觀念的 非現實性을 止揚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戰史에서도 은연 중에 배어 있는 植民地史觀을 拂拭해야 한다는 것이다. 構造的이고 科學的인 戰史 研究야말로 無限한 歷史的 敎訓의 寶庫인 것이다.

註 解 釈

- 1)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一潮閣, 1983) p. 114.
- 2) 李泰鎭 「壬辰倭亂에 대한 理解의 몇 가지 문제」 p. p. 144~146.
『軍史』 創刊号,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0
- 3) 「戰史와 敎訓」(『戰史』 創刊号, 國防部 戰史編委, 1980.) p. 25.
- 4) 「仁祖實錄」 1627년 1월 丙戌의 記事에 화평을 곧 제의한 것이 나와 있으나 日帝時 朝鮮史 研究會編의 「朝鮮史」(第 5編 2卷)에서는 탈락되어 있다(全海宗 『韓·中關係史 연구』, 一 潮閣, 1983. p. 114에서 재인용). 이 記事의 탈락으로 인하여 아직도 火平의 제의를 朝鮮측 에서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논문이 다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5) 註 1). p. p. 114~123.
- 6) 李泰鎭 「丁卯·丙子胡亂과 軍營制 變遷」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연구원, 1985. p. p. 127~128.
- 7) 『仁祖實錄』 卷 34 仁祖 15년 正月 28 條.
- 8) 金龍德 「昭顯世子研究」 『史學研究』 18号, 韓國史學會, 1964. p. 435.
姜周鎭 「統制使 申瀏將軍과 北方出兵」 『軍史 創刊号』 1980. p. 167.
- 9) 朴容玉 「丁卯亂 朝鮮被擄人 刷·贖還考」 『史學研究』 18号, 韓國史學會, 1964. p. 388.
- 10) 朴容玉 「丙子亂 被擄人贖還考」, 『史叢』 9輯, 高麗大 史學會, 1964. p. p. 52~53.
淸軍이 항복 후 漢江을 건널 때 포로수가 「無慮 50여만」이었다 한다.
- 11) 崔永禧 「壬辰倭亂 中の 對明事大에 대해서」 『史學研究』 18号, 1964. p. 432.
- 12) 『仁祖實錄』 卷 34. 15年 正月 癸亥條.
- 13) 註 8). p. 435.
- 14) 『仁祖實錄』 卷 34. 仁祖 15년 正月 30日條(朴容玉 「丙子亂 被擄人贖還考」, p. 52에서 재인용).

-
- 15) 「仁祖實錄」卷 16. 5年 4月 己亥條.
16) 「仁祖實錄」卷 16. 5年 6月 乙卯條.
17) 金在瑾「朝鮮王朝의 水軍」『軍史』創刊號, 1980. p. 94.

〈참 고 문 헌〉

『仁祖實錄』

- 李泰鎮「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韓國研究院, 1985.
全海宗「韓·中關係史研究」一潮閣, 1983.
國史編委「韓國史論 7. -朝鮮前期, 國防体制의 諸問題-」, 1983.
“ 『 “ 9. 朝鮮後期 “ -」, 1983.
朴容玉「丁卯亂 朝鮮被擄人 刷·贖還考」『史學研究』18號, 韓國史學會, 1964.
金龍德「昭顯世子研究」『史學研究』18號, 韓國史學會, 1964.
朴容玉「丙子亂 被擄人 贖還考」『史叢』9輯, 高大史學會, 1964.
李丙壽「光海君의 對後金政策」국사상의 제문제, 1959.
『軍史』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史編纂委「韓國史 12」探究堂, 1981.

丁茶山の生涯와思想

安 晋 吾
(全南大 教授)

茶山 丁若鏞(1762~1836:英祖 38
년~憲宗 2년)은 조선 후기 實
學의 集大成者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조선왕조 체제의 모순을 직시하고 孔孟思
想에 기초하여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대
결하고자 했던 진보적 유학자요 사회사상가
였다. 이 글은 茶山의 生涯와 思想을 그가
처했던 時代의 背景과 밀접히 연관지어 살
펴보고자 한다.

社會思想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항상 歷
史的·知的 背景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그 사상가가 처한 시대에 얼마나 치열하게
대결하고자 했던가에 따라 思想의 眞價가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茶山이 儒學이라
는 틀 안에서 思想의 실마리를 풀어내고 있
지만, 그것이 社會思想으로 발전할 수 있
었던 것은 그가 다른 어떤 儒學者보다도 당
시의 社會에 대한 문제의식이 치열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茶山
의 思想을 이해하기에 앞서 그가 처했던 조
선 후기의 社會를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1. 歷史的·知的 背景

茶山時代는 조선조(1392~1910)의 몰락
70여년 전으로 前近代의인 모순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출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
환의 움직임이 부분적으로나마 일어나고 있
던 시기이다. 이 새로운 시대가 이른바 近

代인말끔, 이 시기는 결국 한국에서의 「近代의 黎明期」에 해당하는 셈이다. 당시의 近代指向의 움직임은 그 후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런 뜻에서는 당시의 봉건적 모순들이 한낱 조선조의 末期現象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茶山은 그 모순들의 克服策을 때로는 대중적으로 때로는 근원적으로 마련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대적 전환과 진보에 一助를 더하였다. 그러면 우선 그 시대에 노정되고 있었던 모순들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기로 한다.

첫째로, 壬辰·丙子の 兩難을 거치면서 조선왕조 체제는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숙종조에 본격화된 党争은 이 시대에 들어와 英祖·正祖의 蕩平策으로 의견상 일단 진정된 듯이 보였으나, 그것은 의견상의 현상일 뿐 내면적으로는 더욱 첨예화한 상태에서 무자비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英正 이후에 특히 逆謀罪名分の 獄事가 많아진 사실이라든가, 正祖期에 이르러 老論이나 南人들이 다 時派·僻派로 양분된 사실이 그 증거이다. 茶山 자신도 이러한 당쟁의 희생물이 되어 18년간이라는 장기간의 유배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당쟁의 격화는 당시 支配權力은 한정되었던 데 반하여 그것을 점유하는 양반의 수는 갈수록 늘어남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그런데 純祖 즉위(1800년) 이후에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茶山 생애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이 때에는 당쟁의

여지마저 없어지고 外戚의 위치를 이용한 독점적 權力의 專橫이 자행되었다. 그리하여 유교 본래의 이상정치인 民本·為民의 정치는 물론 王權조차 유명무실한 형편이었다.

둘째로, 중앙정치가 기강이 해이해짐에 따라, 지방정치는 더욱 문란해지게 되었다. 특히 三政(田政·軍政·還穀)의 문란을 기화로 한 지방관과 서리들의 부정·부패·착취가 대부분의 中小農民들을 파산과 기아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茶山은 유배생활 동안 지방행정이 이러한 문란상을 체험하고 그 유명한 「牧民心書」를 저술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째로,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사회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던 신분제도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양반도 失勢 몰락하면 小作農으로 전락하였고 良人도 경제력 여하에 따라 買官·買職으로 양반이 되었으며, 公私奴婢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奴婢案마저 국책으로 소각(1801)하여 신분제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도탄에 빠진 당시 良人으로서의 農民들은 극소수의 富農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劣惡한 처지에 있었다. 조선왕조체제를 경제적으로 받쳐주던 양인 공급이 이와 같이 궁핍화되어 지방·중앙의 행정으로부터 이반되자 왕조체제는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규모 농민반란인 洪景來亂(1811)이 발발한 것은 이와 같은 왕조체제의 모순을 단적으로

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네째로, 天主教의 전래와 확산은 조선 왕조의 윤리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었다. 「天主實義」로 16세기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여 18세기 李瀼·安鼎福 등의 학구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던 天主教는 茶山 당시부터 信者를 얻어가는 종교로서의 본격적인 역할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天主教야말로 性理學을 비롯한 傳統思想과는 사상의 내용과 체계가 전혀 다르며 더우기 서구의 과학기술과 위협적인 武力을 동반하였던 까닭에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인 동시에 위협적인 것이었다. 조정에서 이것을 邪教로 규정하고 탄압한 사실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天主教와 茶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당시 南人系의 최초의 천주교신자들인 李承薰, 李家煥, 丁若銓, 丁若鍾 등은 모두 茶山 주변의 친지·친척 심지어兄弟 관계였으며 茶山 자신도 초기에 상당한 정도로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었다.

조선후기에 노정된 이상과 같은 모순들에 대처하기 위해 나온 사상의 한 조류가 바로 實學이었다. 實學은 조선왕조를 지배하던 유학인 性理學의 약점과 非理에 비판적 성찰을 가하고 改革의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종전의 儒學과 다른 方法·內容·性格의 학문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일련의 실학자들이 역설한 經世致用·利用厚生實·事求是의 구호는, 바로 名分위주의 性理學의 風土가 빚어낸 無實과 폐단들을 시정하려한 實証精神의 발로였다. 茶山은 이러한 정

신을 드높인 李晬光·柳馨遠·李瀼·安鼎福·朴趾源·朴齊家·洪大容 등의 뒤를 이어, 이들의 학문적 성과 위에서 자신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茶山學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2. 人物과 生涯

茶山의 본명은 若鏞이고, 자는 美庸 또는 頌甫며(어려서의 이름은 婦農), 호는 俟菴, 茶山(젊어서의 호는 三眉子), 당호는 與猶, 성은 押海 丁氏이다.

그는 英祖 38년(1762) 현재의 경기도 楊州郡 瓦阜面 陵內里(당시의 廣州 草阜面 馬峴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蔭仕로 晋州牧使를 지냈으나 高祖 이후 三世가 布衣로 세상을 떠났으니, 비록 양반이지만 그의 집안은 당시로서는 권세와 별로 가까운 처지는 아니었다.

茶山의 일생은 크게 세 시기로 구획지워진다. 제1기는 正祖朝 때 정조의 총애를 받아 벼슬한 得意의 시절이고, 제2기는 40세에서 57세에 이르는 康津 유배 시절이오, 제3기는 解配 후 鄉里에서 학문에 전념하여 悠悠自適하던 시절이라 할 수 있다.

茶山은 4세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여 10세 때에는 부친으로부터 經書와 史書를 배우고 16세 때에는 星湖 李瀼의 遺稿를 보았다. 이 때 그는 文學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던 李家煥과 학문의 정도가 상당하던 妹夫인 李承薰이 모두 星湖의 학문을 祖述

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자신도 그 영향으로 이를 준직으로 삼아 학문에 뜻을 두게 되었다. 22세가 되어 茶山은 進士가 되어 成均館에 들어가 正祖의 총애를 받게 되는 바 그것은 그의 재능과 학문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듬해(23세) 茶山은 李檠과 함께 여가를 즐기다가 天主教의 圖書를 보게 되어 그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된다.

이후 그는 한 때 天主教의 信者가 되기도 하고 背敎도 하며, 자신도 예상 못한 파랑과 탄압의 시련을 받게 된다. 28세 되던 해(1789)에 그는 마침내 大科에 합격, 禧陵直長을 시발로 벼슬길에 올라 芸文館 檢閱, 司諫院 正言, 司憲府 持平, 弘文館 修撰, 同副承旨, 谷山府使, 兵曹參知, 刑曹參議 등을 10년동안 역임하다가 正祖의 승하(1799)를 맞는다.

茶山이 39세 되던 해 正祖가 승화하자 茶山은 반대파로부터의 誣斥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어린(11살) 純祖의 즉위와 大妃의 수렴청정을 기화로 한 老論系의 집권은 곧 茶山이 속한 南人系의 失權을 가져 왔던 바, 특히 그 중에서도 天主教徒의 낙인을 받은 南人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발발한 것이 「辛酉邪獄」으로 李家煥·李承薰과 茶山の 두 형 丁若銓, 丁若鍾 및 權哲身·李基讓과 함께 그도 체포되어 長鬚도 유배되었다가, 때마침 「黃嗣永帛書」 사건이 일어나자 또 다시 康津으로 유배되었다. 이 때 시작된 그의 康津流配 生

活이 57세(1818) 때까지 무려 18년간 계속된다.

茶山の 장기간의 유배기간은 官吏로서는 확실히 암흑기였지만 학자로서는 매우 알찬 수확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康津生活은 관리로서는 苦難의 연속이었지만, 학자로서는 門徒를 거느리고 講學과 研究와 著述에만 전념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40세 이전에 관직생활 중에 낸 저술이 없지 아니하지만, 실로 그의 학문과 사상은 유배기간 중에 커다란 결실을 보아 중요한 저작이 거의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茶山 자신이 回甲 때 쓴 墓誌銘에 의하면 그의 저서는 經集에 해당하는 것이 232卷이고 文集에 해당하는 것이 260여권에 이르는데 그 대부분이 流配期에 이루어졌다.

57세 되던 해 가을의 解配로 康津의 초당으로부터 고향 冽水의 본집에 돌아 온 다산은 이듬해 「欽欽新書」 「雅言覺非」를 짓고, 회갑 때 「曠名」에서 그의 생애를 정리하고는 여생을 유유자적 하면서 보내다가 75세(1836: 憲宗 2년)를 一期로 숨을 거두었다.

3. 思想 — 茶山學

茶山이 남긴 저작은 500여권에 이르는 실로 방대한 것이며, 그것이 포괄하는 분야도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哲學·倫理·宗教·政治·經濟·科學·文學·言語·醫學·天文·歷史·地理·音樂·書畫 등 미치지 아니하

는 곳이 없을 만큼 넓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넓은 분야에 관한 저작들이 각분야의 專門家와도 겨룰만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茶山學은 어쩌면 百科辭典의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이 茶山學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상 그것을 經學, 經世學, 그리고 雜學으로 나누어보는 것이 보통이다. 經學에서는 哲學·宗敎·倫理 등이 다루어지고, 經世學에는 政治·經濟·法律을 주로 하되 歷史·地理·科學 등도 이에 포함되며, 기타 雜學에는 文學·言語·醫學·音樂 등이 한데 묶여진다.

그러나, 茶山學의 배어남은 그의 저작의 방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저작들이 당시의 역사적·지적 상황에서 하나의 독창적인 체계 속에 짜여져 있으며, 그 독창적인 체계가 진보적 사상을 형성시켰다는 점에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쓴 墓誌銘에서 자신의 저작들과의 관계를 매우 축약적으로 써 놓고 있다. “六經 四書로써는 修己를 하고, 一表二書(經世遺表·牧民心書·欽欽新書)로써는 天下國家를 위한 것이니 본과 末을 다 갖추려는 때문이다” 자신의 修養과 國家의 經營을 각각 本末關係에 있는 학문의 목표로 삼고, 자신의 저술을 통해 그것을 이룩하였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茶山學은 修己治人の學이라고 할 수 있다.

修己治人の 茶山學을 일러 흔히 牧民思想이라고 한다. 茶山이 말하는 牧者는 바

로 孔子의 君子요 맹자의 賢人에 해당하는 人格的 存在이다. 茶山은 人格적 존재로서의 牧者像을 정립하기 위하여 原始儒敎인 洙泗學的 孔子敎에로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秦 이후 등장한 訓詁·術數·科學·文章·性理 등의 五學이 本來的인 유학의 순수성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孔子의 修己治人の 道로서의 君子之道를 牧民之道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당시 性理學이 사변적인 經學으로 흘렀던 풍조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經學과 經世學을 하나의 체계 속으로 통합시켰던 것이다. 茶山의 思想이 실로 방대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의 전모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다만 가장 중요한 經學과 經世學의 요체를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해 두자 한다.

가. 經 學

茶山의 經學은 당시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버티고 있던 性理學, 즉 朱子學의 비판에서 시작하여 朱子의 四書三經의 세계에서 벗어나 六經四書의 經學을 확립하였다.

먼저, 茶山은 朱子의 天理說을 비판하고 새로운 天命觀을 제시했다. 그는 天理說을 비판하고 上帝天이라는 人格神의 존재를 인정하는 倫理的 天命說로 복귀했던 것이다. 이는 곧 朱子의 無神論的 立場에서 有神論的 立場으로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로써 宋代哲學의 主軸이 되어온 性理學的

人生論은 그 根柢로부터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倫理的 天命의 根源이 되는 人格神으로서의 上帝는 人性內 存在者로서 存在하기 때문에 人性과 天命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天命寄在道心說이 성립될 뿐만 아니라 人心道心 內自訟說이 전개됨으로써 朱子의 主靜說의 人性論이 活性論의 人性論으로 바뀌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어 이야기 하면, 茶山이 재발견한 上帝天은 언제나 道心의 形態로 존재하며 人性과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天命은 첫째, 인간이 태어날 때 — 生命이 胚胎된 순간부터 人性과 더불어 존재하며, 둘째 活性的 現在 進行形으로 존재하며, 셋째 道心에 기착하여 존재하므로 道心의 徹告와 昊天의 命戕는 同一者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程朱學에서 性即理說에 근거한 性理學이 性即天命說에 의하여 性命學으로 바뀌어졌음을 볼 수 있다.

前者의 天理는 形而上學的 存在者 — 先驗的 存在로서 인식되지만 後者의 天命은 宗教的 信仰 — 道德律의 至上命令者 — 의 대상으로서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宗教的 혹은 倫理的 天命觀은 당시 유포되기 시작한 天主教의 唯一神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茶山이 孔孟의 古典으로의 복귀정신이 낳은 소산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秦이전 시대의 古典인 詩·書에 나오는 上帝說에의 回歸를 통해 宋儒의 說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朱子의 性理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人性論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朱子의 理性的 人性을 感性的 人性으로 파악하여 性嗜好說을 확립해 놓았다. 그는 人性을 性即理가 아닌 性即嗜好로 이해하여 그러한 性의 感性的 嗜好는 好善惡惡하고 好德耻汚하는 倫理的 嗜好로 간주하였으며, 이로써 倫理的 存在로서의 人間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儒家의 人性論에 있어서는 人性과 禽獸性 — 物性 — 과의 구별은 윤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문제를 다루는 학설에 소위 人物性 同異論이 있다. 다시 말하면, 人性과 物性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주장과 다르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茶山은 후자 — 다르다 — 의 입장에서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程朱學派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茶山에 의하면 人間存在란 道義·禽獸의 兩性을 공유한 二重構造的 존재로 이해된다.

이는 마치 인간이란 道心과 人心의 兩性을 동시에 人間內存在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程朱學派들의 입장에도 비슷하다. 그러나 程朱學派들의 人性論에 있어서는 도의·금수의 二重構造的 人性論이 아니라 독자적인 本然·氣質의 兩性論이 정립되어 있다. 茶山은 道義之性과 禽獸之性을 윤리적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인간은 모름지기 금수에서 도의로 부단히 나아가고자 하는 윤리적 존재로 파악 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茶山에 의하면 程朱學에서 말하는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은 이러한 善惡의 구분과는 아예 무관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다음에 茶山의 倫理觀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天命과 人性觀에 입각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朱子學의 倫理觀과 완전히 다른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孔子의 仁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茶山은 孔子의 仁을 주해함에 있어서「二人也」, 「人人之間 盡其道者也」라 하여 人間을 倫理的 存在로 파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仁을 또 다시 「嚮人之愛也」라 하여 사랑의 嚮人的 實踐을 仁이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茶山의 仁에 대한 해석은 朱子의 그것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었다. 朱子는 仁이란 「心之德」이요 「愛之理」라 하여 心性論의 德性 내지 理學的 愛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古典的 의미의 仁은 결국 그러한 性理學的 의미로 쓰여진 哲學的 仁이 아니라 한낱 실천 윤리로서의 仁에 지나지 않았음을 茶山은 강조하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仁이란 二人關係에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극진히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랑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茶山의 倫理에 관한 관점을, 性理學的 先驗的 倫理觀과 대비시켜 實踐倫理的 結果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茶山의 실천윤리학적 결과론은 그

의 德의 해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朱子는 「得守心者德也」라 하여 이를 仁에서 처럼 心性論的 心德으로 이해 하려한 데 반하여 茶山은 「行吾之直心者德也」라 하여 이를 行動主義的 躬行의 결과를 德이라 하고 있다. “德이란 나의 直心을 實行하는 것이니, 실행하지 않으면 德이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仁義禮知만 하더라도 朱子는 이를 本然之性에 근거한 불변의 價值로 이해한 데 반하여, 茶山은 四端之心의 價值基準은 實踐躬行의 成果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상과 같이 茶山의 經學은 性理學的 概念론적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론적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茶山은 이러한 경험론적 세계의 토대 위에서 구축한 철학과 윤리의 체계를 바로 經世에 연관지어 당시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茶山의 思想家로서의 위대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古典에 대한 철저한 해석을 통해서 얻어낸 학문적 성과를, 종래의 학문 영역에 묻어 놓지 않고 과감이 자신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결부지어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經學과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관련을 맺고 있는 그의 經世學이 바로 그것이다.

나. 經世學

茶山의 經世學은 孔子의 安民論과 孟子의

賢者王道論의 현대적 구현이라 할 수 있는 牧民思想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茶山은 그의 湯論과 原牧이라는 글에서 民으로부터 비롯한 上向의 선출에 따른 王道의 順理와 王自로부터 비롯한 下向의 任用에 따른 霸道의 逆理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天子도 그의 존립의 기반을 里正이라는 下民의 薦擧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天子의 위치는 이러한 상향적 천거의 정상에 지나지 않음을 설파하였다. 그러므로 下民의 뜻을 저버리는 天子라면 그는 마땅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下民의 召喚權마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茶山이 現實政治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下民에 대한 내리사랑으로서의 牧民慈의 倫理이다. 이것이 爲民思想이요 牧民思想이니, 그는 牧者야말로 爲民有하는 것이지 民이 爲牧生하는 것이 아님을 누누히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民을 저버리는 專制君主의 설 자리를 말끔히 씻어버리는 한편, 당시 횡행하고 있던 지방의 부패한 수령, 탐관오리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茶山이 살았던 당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역시 농업이었다. 따라서 民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거개 농업정책이었다. 우리는 당시의 주요한 농업정책인 三政(田政·軍政·還穀)극도로 문란했던 것을 언급한 바 있다. 茶山은 農政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하고 당시의 여러 폐단들을 조목 조목 사례를 들어 들추어 낸 다음, 그의 토지개혁론을 전개했다. 그것이 바로 茶山の

閭田論이다.

그의 閭田論은 磻溪·星湖·燕岩 등이 내세웠던 限田論이나 均田論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은 점진적 개혁론과는 달리 근본적인 改革에 따른 土地國有論(莫非王土論)이요 古代 井田論의 理想을 본뜬 協同耕作制이다. 이는 井田制의 九家口를 확대하여 三十家口로서 一閭를 조직하는 大單位 協業農場制로서 그의 근본정신은 耕者有田 游民防止·土農一如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土地改革論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름 아니라 그의 兵農一致思想이라 할 수 있다. 곧 그의 閭田體制는 영농체제일 뿐 아니라 그대로 民防衛體制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兵農一致思想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그는 白骨徵布·黃口簽丁 등의 非理가 극심했던 軍政의 폐단을 극복하여 軍布制의 不合理한 점을 교정하려 했던 것이다.

다음에 그는 土農工商의 四民階級을 철폐하고 직업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양반계급이 무위도식으로 양인이 생산한 경제적 잉여에 기생할 뿐 아니라 가혹한 수탈을 일삼음으로써, 국가 재정이 곤궁해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대안이었다. 그는 游民으로서의 士人は 婦農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商·工業을 영위하는 方向도 개방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土農一致, 나아가 모든 직업이 평등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茶山은 奴婢制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왕조의

신분제에 관해서는 그 철폐를 반대함으로써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그의 思想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茶山의 시대적 배경과 生涯 및 그의 經學과 經世學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계를 간략히 보아왔다. 茶山은 性理學 등 전통사상의 비판에서 출발하여 한편 本原儒學을 계승하면서도 묵수·맹종하지 않고, 다른 한편 새롭게 들어온 사상들에도

개방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하여 결국 독자적인 자신의 사상체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특히 그의 예민한 현실 대응의 시각에 입각하여 性理學의 관념적 공허성을 신랄히 비판함으로써 實學의 토대를 공고히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은 학문의 거의 전 영역을 포함할 정도로 폭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체계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하겠다.



처음 부르고 싶은 노래

임 관 영

〈중령 제6751부대〉

제 1 장

(1)

조국을 위하여
겨레여
우리는 무슨 이름을 남길 것인가.

삼대를 흔들고
숫불씨를 돌려주던
어진 나뭇군의 후예여
우리는 무슨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난세를 살다가신 우리 先代는

시드는 무궁화의 거름알이 되었다.

흙먼지 들녘에서

호느끼는 목숨꽃이 되었다.

깨어진 알몸으로 泣을 뿌리며

꽃모종이 되었다.

형제여

무엇이 우리로 하여 소리치게 하던가

가슴에다 詩를 쓰게 하는가

보아라

어둠을 모르는 자는

죄를 모르는 자는

할 일을 망서리기 전에

흐린 눈은 淨히 씻고

마르잖는 샘물의 눈빛을 보고

때로는 純金의 햇살을 주워

血脈의 등성에 뿌려볼 일이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좁을 타고

핏줄을 열고 엄숙한 삶의 현장으로

조국의 의지가 무엇인지
뜨거운 旅程을 세워야 한다
뜨거운 旅程을 풀어야 한다.

(2)

사람들은 얼마나 종소릴 듣고 있을까
아름다운 종소리
아픈 종소리
우리는 차마 지버릴 수 없는
종소릴 들어야 한다
어제의 傷痕들이 힘줄에
다시금 솟구치는데

日·月을 섬겨온 우리 先代는
백두와 한라의 하늘소리 들으며
精氣를 모아
허기진 가시밭에서
얼음의 불꽃으로 달리던 별판
호르는 핏방울에 입을 맞추며
호국성(護國聲) 호국성 울치던 합성

깨어지고 터진 무릎의 登程
그리운 녀 저 소리 내력을 들어야 한다.
조상들 텃밭엔 恨 맺힌 들레

先代가 뿌려둔 호국의 피
혼신을 다한 그 자양분으로
곳곳마다 총총
조국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고
달려온 젊은이들 이 땅에 살아
뿌리째 일어서
신생의 빛나는 숲을 이루고
흩어진 白衣자락 푸른 깃발이 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춤을 추는데
아, 바람 많던 내 강산 내 조국이여
솟아라 우뚝 솟아라
온 누리로
새 역사의 수레를 타자.

(3)

종을 울리자

민중을 울리자
선진조국 푸른 들판에
모르는 자 아는 자
있는 자 없는 자
모두 모두 독립관을 세우고
마을마다 집집이 뜨거운 생명으로
힘차게 울리자
먼 곳을 헤매이다 돌아온
우리들의 불사조를 위하여

가슴을 앓고
어둠 속을 속 태우던 가슴을 앓고
괴뢰가 집거(集擧)한 울 속에 갇혀
하 오랜 세월
빈혈을 앓아온 우리들
칠혹의 굴레 벗고
이제는 돌아와 靑銅의 얼굴여야 한다.

층층 어둠을 사르고 솟아오른
동녘의 태양은 장엄하고
동해의 부활하는 꿈 꿈

서리물은 껍질의
저 햇살을 보아라
내일의 빛은 동방에 있다.

꿨기운 삼팔선
길게도 살아온 한이여
장강같은 한이여
분노의 숨결이여
우리는 일어선다.

이제 우리는
깊은 잠 뛰어 넘어
아름다운 동산 무궁화 동산
달려가리라
우리의 깊은 잠 깨워준 자
꽃바람이여
청정무구(淸淨無垢)한 꽃바람이여
七百義塚이여
萬人義塚이여
굽이굽이 서려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바람에 날리는 겨일 수는 없나니
이런 날
맑아지는 가슴이랑이여
우리는 가야만 한다
너도 나도
수세기 완강하던
지층의 굽이를 펴야 한다.

(4)

방벽이 무너진다
철벽이 넘어진다
목상의 생채기 마다
산까마귀 울음 골짜기에
호국의 파수군
행군을 하면
자유를 의면서 평화를 의면서
행군을 하면
발자국마다 쇳소리 나고
발 맞추는 경쾌한 쇳소리 나고
숨 죽였던 방울소리 다시 들리고

肢脈마다 초롱초롱 무궁화 꽃
언덕 위에 가득 온통 흐드러진 무궁화 꽃
아, 평화가 핀다.

자유가 핀다.

어머님 숨결이 떠나가신 돌담가에
누님의 숨결이 떠나가신 영마루에도
하나 들 별은 내리고
찬란한 꽃들은 피고
찬란한 꽃들 위로 별은 내리고

비둘기 등지엔 파아란 비둘기
하아얀 봄날엔 하아얀 노고지리
미소로 꽃 피는 조국여정에
우리의 비원(悲願)
평화가 핀다.
자유가 핀다.

제 2 장

(1)

우리는 삼손의 수수께끼
꿀의 등지를 알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우리는 축수를 새워
이 산 저 산으로 날으는
꿀벌을 보자.

병약자의 건강을 위해
위대한 희생으로 집단을 위해
날으는 꿀벌의 행렬을
우리는 무엇이든 이름 할 것인가.

아, 유다의 웃음 아래

내 어진 양들에게 칼 바람 몰아치던
흙 속엔 사무치는 목소리
흙 속에 살아
뜨거운 숨결이 있다.

한강 언덕으로 돌아가보라
깨끗한 언덕

「하얀 묘비(墓碑) 옆에서
한 송이 꽃잎이 노래하고 있음을」
그러면
알 것이다.

(2)

쪽잠을 자며
탐구심이 강했던 우리는
가까져야 야학을 하고
일손의 틈틈이
솔밭에 흑판을 걸고
가까져야 모국어틀 지키고

밤에도 키가 크는 숨결을 보았다.

동학군 야영의 횃불을 보고
청산리 전투 합성을 듣고
화랑담배 연기를 맡고
거기 뿌리내린 진언(眞言)을 외우며
우리는 돌아와 손을 잡았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튼튼히 손을 잡았다.

「국력 부강이 곧 생명
평화와 자유라는 진리」와
우리 만났다.

「승전자만이 생존한다」는
진리와 우리는 만났다.

(3)

아, 무엇이

이토록 불면의 밤으로 몰아가는가.

누이야

골목에서

고무줄을 타고 놀던 우리 누이야

삼천리 강산 달리고 싶어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

사뿐히 고무줄을 잘도 타더니

삼천리 강산 달리고 싶어

「백두산 뻗어나려 반도 삼천리」

「정이월 다 가고 삼월이라네」

사뿐히 고무줄을 잘도 넘더니

아,

일그러진 하늘만 물고 간 누이야

가난한 노래만 두고 간 누이야

얼음 풀려 풀려

개울물 흘러도

약한 목숨 버티지 못해

피빛 개울만 만들던 누이야

응어린 어느 곁에나

메아리지어 메아리지어
사라질 것인가

아,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불면의 밤으로 몰아넣는가.

러시아, 중국땅 山門밖에서
소쩍새 소리 들으며
밤마다 시름을 베고
회향곡을 부르던 동포들
우리는 보았다.

우수리강 푸른 강물 뗏목 옆에서
남양군도 바다소리 들어가면서
울던 시절이 있었다.
혹인의 연가가 아닌 우리들의 회향곡

아, 오늘도
하늘보다 먼 고향을 등진
실향민을 보아라.

똑 같은 혈관의 피
피는 흘러도
마주 향해도
헛발만 구르다가
힘 없이 깊어지는 주름 속에서
물러설 수 없는 녹두빛 울음
소망 하나로 구만리 역정
오늘은 또
어디쯤 가고 있을까 가고 있을까
오오, 가슴에 무너지는 꽃이여
뒤척이는 고뇌여
아, 핏줄을 찾아
절규하는 만남의 광장이여!!
어느날 웃음으로
망각의 늪 安住할까

(4)

총칼을 마주하고
돌아선 형제여
아직도 허약한 목소리만 높은가

우리엔 조국이 있다.
天地로 이어질 하나의 동맥

모두가 하나의 슬픔
이산의 아픔을 위하여
어린 새싹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얀 속품을 열었다.

신음 속에 질척이며
원진(圓陣)을 치고
남침을 해봐도
인제는 안 된다
차라리 피퇴침이나 달아라
기울어 기울어져 죽음을 이루니
이제는 그만
이슬과 풀잎의 의미라도 씹으며
사랑방 대화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따스한 모태를 찾아
사슴처럼 부드러운 얼굴을 대고
세월따라 때 묻지 않은
노래를 부르고

통일의 오작교 놓아야 한다.

민족의 오작교 놓아야 한다.

제 3 장

(1)

조국은 따사로운 품안
우리의 희망과 용기
부활하는 꿈 꿈
靑玉이 된다.

원주(圓柱)를 깨고
보이지 않는 지구촌 구석마다
드넓은 세상을 갈(耕)러 가는 새
까치의 청량한 소리…….
하늘에 여울져
날아 오른다
천년의 땃줄을 물고

날아 오른다
마침내 눈을 부빈다.

熱射의 모래 속엔
땀(汗)에 키스가 시작되고
일어서는 술한 대리석기둥
거대한 도시를 세우고
진신을 다해
일어난 진실의 열창
낮선 이스탄불 이야기를 쫓아가며
금동지를 뜬다.

희망봉을 돌아 북극해에도
거대한 시추선 우리 시추선
쿵쿵쿵 노다지를 캐고
잊었던 풍요의 노래
노래 부른다
내일을 노래 부른다.

아, 포효(咆哮)의 사십도
오금저린 욕십도

水源의 대바람 다스리는
해빙의 행진
남빙양의 행진
亢進을 보라.

와지끈 우지끈
流水을 헤쳐 가는
마지막 개척지 미개척지
龍動의 꿈, 꿈을 보아라.

캄차카, 사모아, 라스팔마스
베링해, 남빙양으로

어제는 남진
오늘은 서진 중
내일은 북진

荒天航海도 탁트는 시계
아, 우리들 시계
새로움이 눈 뜨는 우리들의 세계

아프리카 깊은 산맥 속에선
썩썩 툽질의 소리
우리들 앞에 열리는 역사
아, 지극한 은총의 진반

맹벌이 내리찍는
젓빛 석산을 오른다
비틀거리며 태산을 오른다
우르릉 광광 우르릉 광광
불도저의 굉음은 밤낮을 울고
크레인이 울고
다이나마이트는 밤낮을 타오르고
마침내 동강이 난다
강물이 고인다
바닷물이 고인다
달빛을 싣고
햇살을 싣고
우리들의 힘과 의지를 싣고
최좌 출렁이는
저 우리의 기술과 힘을 보아라
건강한 신경의 날어들

젊음의 불꽃 선더볼트여!
우리가 지른 정열의 불꽃
케냐를 푸르게 하고
천만년 조국을 빛나게 하고

어화 새봄이 온다
신바람 나게
고목에 꽃이 피는
불이 붙는 포옹의 빛깔로
사계절의 봄이 온다
오계절의 봄이 온다
청개구리 울음발에
모두의 가슴에 빗장은 풀리고
어화 새봄이 온다.

황소를 닮은 우리의 의지
저마다의 힘찬 전진 속에
구국의 의지 뒤를 보지 않고
하늘을 닮은 우리의 마음
끝 없이 높고 푸르다.

심원(心園)엔 海東의 샘물을 길어
싱싱한 붓물을 트고
석굴암·거북선·측우기·팔만대장경……
배달의 文化 전통을 잇고

바닷물은 막아 육지를 만들고
돌밭 산사락엔 빛나는 숲을 이루고
가뭄엔 구름을 쏘아올리고
아, 넘치는 희망, 솟구치는 용기
우리 강토엔 새봄이 온다.

(2)

겨레여 조국은 젊음의 열기
젊음의 대열이 솟아오른다
젊음의 음악은 울렁거리고
목발의 속울음 다 행구고
바윗돌 부순 한숨도 다 사르고
복된 마을로 솟아오른다.

오늘은 이만큼

다져진 행복
가슴에 어울지는 영롱한 기쁨
꺾어도 꺾어도 꺾이지 않는
우리만의 행복 우리만의 약속
내일도 또 내일도
밝은 층계로 걸어나가자.

앞날을 되새기는
心狀들의 熱度는
自生花를 보는 일
自生花를 가꿀 일이다.

제 4 장

(1)

우리는 안녕을 바라던 혼들과 만난다
빛나는 혼, 혼들과 만난다
차가운 별들의 역사를 헤아리고

이슬에 빛나는 꽃들을 안고
고향의 봄별을 놓고
서성이는 어머니와 아들 딸
빛나는 혼들과 만난다.

「恨 세월 망각 쉬운 형제여
나의 동포여」

혼들의 탐, 충혼탐 꼭대기에
울리는 저 소리는 무엇이나

한강 언덕 위에 별이 빛난다
남산술 푸른술에 별이 빛난다
구도자의 비둘기 난다
무궁과 통하는 인사를 한다
약속된 축복이기를

(2)

겨레여
지금은 민족사의 상승기

힘찬 상승기
모두 일어나
위대한 전진의 캠프를 치자
잘리운 허리춤엔 접목을 하고
해묵었던 터널엔 기적을 올리자.

호국의 파수가 되어
선진조국의 기수가 되어
기수들의 기수가 되어
전위의 깃발을 올리자
푸른 깃발을 날리자
우리의 모든 것은 전진 뿐이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 힘으로
우리 땅을 가꾸면
아, 다정한 이웃들 다시 모이고
가슴 속엔 확신으로 남는
가슴은 빛나
빛나는 아침 햇살을 타고
자유와 평화와
우리들의 영원한 조국을 위하여
사랑의 합창선 세계를 가자

인 체 와 사 격 술

정 승 진
(대위 공군본부)

대부분의 사수 들은 사격을 할 때면, 으레 “정조준을 하여 방아쇠를 당기면 된다.” 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 인체는 총과 표적과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실시되는 사격은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부터 열거할 내용들은 사격할 때 필요한 인체와 총과 표적과의 상관관계의 고찰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탐구로써, 사격을 하게 될 모든 장병들이 이를 읽고 활용한다면 사격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한 순서로는 (I) 눈 (II) 격발 (III) 호흡 순이다.

(I) 눈

사람은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으며 두

눈의 시력은 동일하지 않다. 이 두 눈은 각기 초점을 갖고 있는데 초점은 카메라의 초점과 비슷하며 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물체가 희미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 사격에 필요한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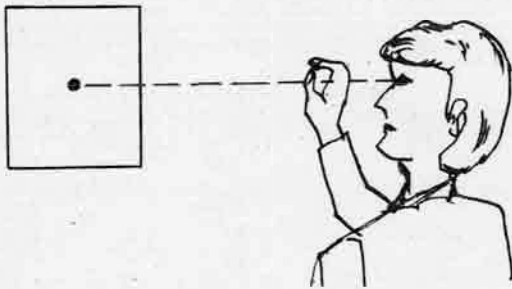
우리 대뇌는 두 눈에 비친 영상 중 하나의 영상만을 인정하고 다른 영상은 참고로만 인정한다. 이것을 눈의 입장으로 살펴볼 때 두 눈 중에는 영상판단의 지배적인 눈이 있는 것이다. 사격을 할 때는 이 지배적인 눈으로 사격을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의 눈 중에서도 사격에 필요한 눈은 꼭 하나 뿐인 것이다.

이 지배적인 눈을 찾는 방법으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첫째, 3~4m 떨어진 벽에 직경 1cm의 흑점을 표시하고 집게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으로 손가락 고리를 만든다.

둘째, 두 눈을 뜨고 눈의 초점을 흑점에 맞추어 손가락으로 만든 손고리 안에 흑점을 넣어 본다.

셋째, 한 눈씩 번갈아 감아 어느쪽 눈이 초점에 맞추어 졌는가를 확인한다. 이 때, 초점이 맞추어진 눈이 자기의 우세한 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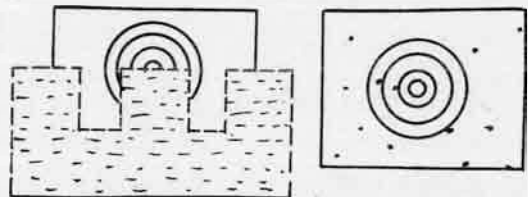
(그림 1)

그러나, 사격을 할 때 꼭 한 눈을 감을 필요는 없다. 사격시 한 눈을 감으면 시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한 눈을 감는 수고가 든다. 장시간 사격시에는 눈의 피로가 쉽게 오며 정신통일에 많은 장애가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우세한 눈이 있어 이 우세한 눈이 지배적 역할을 하므로 두 눈을 뜨고 사격을 해도 사격중 아무런 지장을 가져 오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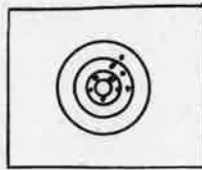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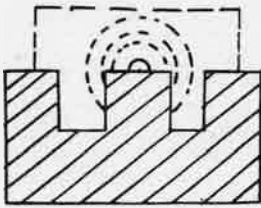
2. 눈의 초점

사람의 눈의 초점은 하나 밖에 없다. 따라서 사격시 초점을 가늀자, 가늀쇠, 표적에 동시에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수들은 흔히 조준선 정렬 후에도 표적을 똑똑히 보려고 애를 쓴다. 즉, 표적의 흑점에 무의식적으로 눈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눈의 초점을 표적의 흑점에 두었을 경우에는 그림 2 에서와 같이 가늀자 가늀쇠의 조준선 정렬 상태가 희미하여 그 편차(조준선 정렬 불일치 편차)를 찾아낼 수 없으므로 탄착을 한곳에 모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는 명중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그림 3에서와 같이 초점을 가늀쇠 선단에 두어 조준선 정렬을 끝까지 지켜 볼 때에는 표적은 희미하게 보이나, 조준선 정렬 상태는 똑똑히 보이므로 탄착을 한 곳에 모이게 할 수 있으며, 이 모이는 탄착점을 정신력에 의해 희미한 표적의 흑점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그림 3)

II. 격 발

1. 격발동작의 모순

사람의 신체는 신경조직에 의하여 통제된다. 피부가 아무리 작은 자극을 받았을 때라도 그 자극은 신경섬유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중추신경에 전달되어 마침내 뇌신경에 이른다. 사격시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조준이 이루어진 상태가 눈의 각막에 비치면 그 영상이 즉시 뇌신경에 전달되고, 다시 방아쇠를 당길 손가락에 명령이 내려간다.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면 0.18~0.22초가 걸린다고 한다. 눈이 감지한 격발시기를 대뇌의 명령에 의해 방아쇠 손가락이 명령을 수행하기까지 시간이 인체구조상 0.18~0.22초 후에나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시간의 차이를 가져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즉, 눈으로 정확히 조준상태를 확인 순간 즉시, 격발동작을 한다 하더라도 실지와는 항상 뒤 떨어진 상태

에서 격발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사수들은 격발 손가락의 동작을 눈에 의존하여 조준상태를 따라다니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조준상태에 따라 좋은 상태가 되면 방아쇠를 잡아당기고, 나빠지면 다시 격발 손가락을 풀어놓고 좋은 기회만을 포착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조준상태가 잘된 듯 하면 이동되고, 멀어졌는가 하면 다시 좋아지고, 또 즉시,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므로 자연히 신경이 방아쇠 손가락에 와 있어 좋은 기회만을 포착하려 하지만 예기치 않게 갑자기 격발을 하게 된다. 이 때, 비록 가장 좋은 순간 격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순간이 격발순간과의 인체구조적 차이로 인해 자신이 보고 쏜 그 순간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손가락 동작과 눈의 영상을 일치시킬 수 없는 것이다.

2. 올바른 격발법

이 인체구조의 모순을 피하여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그 방법은 눈의 활동과 방아쇠의 활동을 분리하는 것이다.

즉, 눈은 계속 조준선 정렬을 지켜보고 그 편차를 정밀하게 유지하면서 방아쇠 손가락을 부단히 직후방으로 운동시키면 방아쇠는 자신도 모르게 격발된다. 혹자는 방아쇠 손가락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람에게는 정신력 혹은 정신감응과 같은 영적인 활동이 있어 대뇌의 명령이 눈의 정조준에만 내릴지라도 정신력이 방아쇠를 직후방으로 눈과 방아쇠 간을 자동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에 이르려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3. 자율신경에 의한 격발 방지

대뇌에서 격발 손가락에 격발을 명령하면 신경섬유를 통해 방아쇠 손가락에 그 명령이 전달되어 손가락이 움직여 격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내에 자율신경(반사신경)이 대뇌의 명령을 알아채고는 미리 반동을 예감하고서 즉시, 자율반사 작용을 일으켜 격발 전 또는 동시에 총을 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 반사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격발이 이루어진 뒤에도 원상태로 계속 유지하려는 심리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즉, 실탄이 총구를 떠난 다음에도 계속 격발전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노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자율반사신경에 의한 격발이 방지되는 것이다.

Ⅲ. 호 흡

1. 호흡중지 양과 시기

사람이 호흡을 할 때는 배와 어깨를 비

롯하여 온몸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므로, 사격시 호흡을 중지하게 되는데 무리하여 너무 오랫동안 호흡을 멈추게 되면 몸에 산소의 공급이 줄어들어 심장의 운동과 시력에 장애를 주고 이로 인하여 정신통일은 물론 피로감 등으로 모든 기능이 약화된다. 때문에, 호흡은 짧은 시간동안 적절히 잘 조절하여 멈추도록 해야 한다. 평상시 사람의 호흡주기에 의한 호흡중지 시간은 보통 1.5~2초이며 호흡신경이나 근육 및 그밖의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연스런 최대의 호흡중지 시간은 15~20초이다.

이 자연스런 호흡중지 시간이 사격에 필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사격시 호흡중지는 심호흡 상태에서 산소를 충분히 확보 후 2/3가량 숨을 내쉬 뒤 호흡을 정지하는 것이 좋으며, 호흡을 중지하기 전의 호흡은 정신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신체조직에 맞추어 리드미컬하게 항상 같은 박자로 실시해야 한다.

사격을 할 때 호흡중지는 짧은 호흡중지 시간을 고려해 조준선 정렬, 정조준 후, 방아쇠의 압력을 이끌어 오다가 방아쇠의 적극적 압력에 들어가면서 중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전 기사의 얼 굴

유 명 준
(생도·공군사관학교)

흰 눈이 내리는 경치는 정말 포근하고 평화스럽다. 더구나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그 흰눈으로 더욱 눈이 부시기만 하다. 옛 우리의 선배들은 이 눈에 대해 지루함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해에는 풍년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 문화시대를 거쳐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 후배들은 그 눈을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짜증스러워 한다. 왜 짜증스러워 할까? 정서가 매말라서일까? 그것은 아니다. 단지 그 눈이 나에게 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 해는 녹아서 빙판이 되면 미끄러져 다칠 위험성이 있고 또 걷는 데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현대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는 교통마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눈이 오면 그 눈을 치워

야 하는 것이 싫다. 비단 그래서 내가 눈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라 다만 이야기의 소재일 뿐이다.

눈이 오면 운전기사 아저씨나 아니면 도로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무척 바빠진다. 운전기사는 타이어를 바꾸든가 아니면 체인을 감든가 한다. 도로 일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도로의 눈을 치우고 또 그것이 얼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곳에 모래까지 덮지 않는가. 모든 이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사고대책을 세워도 어느 한 모퉁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그것을 모를 까닭이 없다. 알고 있는 것이다.

눈이 오는 날은 평소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고를 한번도 자기 자신의 사고로 생각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사고전의 예방은 있어도 사고 후의 예방은 없다는 이 평범한 말은 가장 평범한 진리이다. 내가 이곳에 온지는 불과 한 달 남짓 정도밖에 안됐다. 그러나 이곳을 잘 알 것 같다. 그 이유는 이곳은 한국의 어느 지방도시나 마찬가지로 촌락과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문경 조령을 넘을 때 그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까지 이런 험하고 좁고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급한 국도를 다닐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문경을 지나고 서서히 조령을 향할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안전벨트를 매만지고 있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 사고를 당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그 경우는 적은 손상을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기사의 손에 우리 탑승 승객의 운명이 걸려 있다. 창가에는 급한 벼랑을 이루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보려고 했으나 앞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오기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 운전기사는 60k/h나 적은 속도로 운전했다. 반대편 모퉁이에서 자동차와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시선이 좌우 어느쪽을 봐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는 중에 중간좌석의 어느 한 승객이 “이차 왜이리 느려요” “조금 빨리 갑시다”

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승객의 시선과 함께 운전기사의 시선도 Back Mirror를 통하여 그 사람을 향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나도 빨리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나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 때 그 기사의 얼굴은 아니 눈동자는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안전은 욕망을 참고 예방을 하겠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이들은 모두가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또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행복하길 원한다. 그러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다. 자신의 피해만 없으면 안전하다고 하여 모든 이가 안전할 것이라는 오해를 할 것이다. 그 오해는 자신의 안전이 다른 이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주위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위험의식을 가진다.

그러나 정신적 사고예방은 하기가 힘들다. 단지우리는 물질적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타른 이보다 한번 더 관찰하여 나사를 죄이고 볼을 끄고 속도를 줄이고 등등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이 많다. 어느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각자 자기가 말

은 부분에 대한 것 한 번씩만 더 관찰하고 조사한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 하면 무제한성이 나온다. 그만큼 사고에 대해 철저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체계와 시설이 안전하다고 하여 사고는 없다고 큰소리 치지만 그 체계와

시설에 대한 예방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안전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안전하다”는 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방 할수 있나? 그것은 남보다 내가 먼저 한번 더 관찰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편집 후기



행복과 불행은 기준이 없다.
행복의 조건은 높지도 크지도 않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완벽한 것만을 추
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보다는 좀더 잘 할 수 있었을텐
데……라고,

작업을 끝내면서 또 다시 느낀다.

이제 심호흡을 한다.

마무리함에 있어서의 안도감, 그리고
아쉬움의 호흡이다.

무사히 끝낼 수 있음에 「공군」에게 협
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라매 가족이 「공군」을 통해 작은 지
식 하나라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은 준비한 우리들의 마음이다.

다음 호는 좀더 나은 「공군」의 탄생을
기약해 본다.

— 美 —

표지화

설봉 기 노 철 화백
현대미술대상전 추천작가
한국서화작가협회 동양화분과위원

차례화

선제 고 응 주 화백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전국 불교문화 미술대상전 추천작가
동양 미술대상전 초대작가
한국 예술문화대상전 초대작가

원고모집

급속성의 폭음속에 촌작을 다루는 영공초
계 임무.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를 다루는 작업속
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보라매들.

사색과 낭만을 즐기기에 너무나 작박한
시간들이기에 자칫하면 정서생활을 잃어버
리기 쉽습니다.

장교 전문교양지인 「공군」은 여러분의
고귀한 생활속의 글들을 모집합니다.

오래전에 놓아버린 붓을 다시 잡고 원고
지 한칸 한칸을 메꾸어 보십시오. 잃어가던
문학세계가 다시금 새로와질 것입니다.

힘들고 바쁜 생활속에서 나온 글들이기에
더욱 소중하며 값진 것입니다.

☆ 모집대상 : 장교 및 그 가족

★ 모집부문 : 군사지식, 교양, 생활수기 등
문학작품 전 부문

☆ 마감일자 : 제한없음(연중무휴)

☆ 원고매수 : 30매 내외(200자 원고지)

☆ 제출처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 기타사항 :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교료를
지급하며, 게재된 작품은 연
말 종합심사후 시상함.

☆ 문의전화 : (호) 5115, 5388
(직) 813-2691

공군

1987년 제2호(통권 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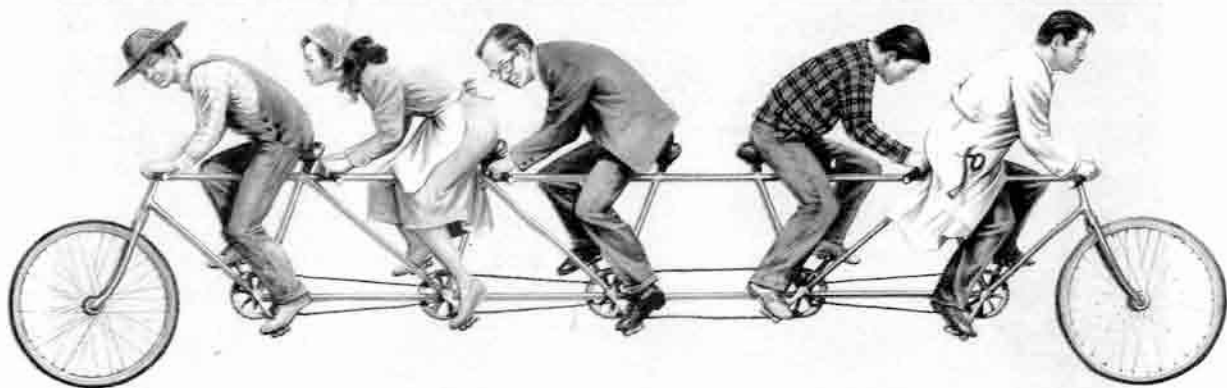
1987년 6월 10일 인쇄

1987년 6월 15일 발행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 공군교재창

어디로 갈까요?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1년은 세계의 10년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발전에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성숙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成熟社會 - 우리가 가는 곳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라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곳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너 하나 나 하나—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될 때입니다.
마음이 합해지면 일은 반이되고
마음이 흩어지면 일은 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안락한 우리의 내일은 안정된 오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공익광고협의회